

(2) 现代文学分科：

“第四次工业革命”和人文学、近现代文学、当代文学及现当代文学、当代文学和文化

11日 (星期六)	上午	第一部	-	-	-
	下午	第二部	-	-	-
12日 (星期日)	上午	第三部	现代文学分科 1-1	209	“第四次工业革命”和人文学
		第四部	现代文学分科 2-1	205	近现代文学
	现代文学分科 2-2		209	现当代文学	
	下午	第五部	现代文学分科 3-1	205	当代文学和文化1
现代文学分科 3-2			209	当代文学和文化2	

第三部：2017年 11月12日 星期日（上午）

现代文学分科 1-1			“第四次工业革命”和人文学(209号)	
时间	发言人		论文题目	主持
10:00 ~ 11:30	魏幸复	汉阳大学	4次产业革命与人文学之出路 - 处乎材与不材之间	林大根 (韩国 外国语大学)
	朴正元	庆熙大学	在第四次产业革命时代探索中国文化信息设计和服务模块	
	金松姬	LAMI人文与术经营 研究所	第4次产业革命和人文学, 问《庄子》	
	李知润	韩国外国语大学	韩国和中国文化政策比较：文化艺术福利方面	

第四部：2017年 11月12日 星期日（下午）

现代文学分科 2-1			近现代文学(205号)	
时间	发言人		论文题目	主持
13:00 ~ 14:30	徐维辰	延世大学	近代的惊羨与恐怖 — 清末民初科幻小说里亡国灭种的奇幻叙事	崔瑛祐 (韩巴大学)
	宁稼雨	南开大学	中国叙事文化学与“中体西用”范式重建	
	曹谦	上海大学	朱光潜美学三大理论资源及其当代启示	
现代文学分科 2-2			现当代文学(209号)	
13:00 ~ 14:30	李松, 刘宁涛	武汉大学	韩国鲁迅研究的回顾与反思	金兑妍 (首尔 市立大学)
	李宝暻	江原大学	现代小说的局限和破绽-重读鲁迅的“曲笔”和“油滑”	
	李敏忠	国立高雄应用科技 大学	形式与意象的邂逅—论林建隆自由俳句的特色	
	赵宝璐	培材大学	从文化等值的角度看朴婉绪小说《那个男孩的家》汉译本中 文化词语的翻译策略	

第五部：2017年 11月12日 星期日（下午）

现代文学分科 3-1		当代文学和文化1 (205号)		
时间	发言人		论文题目	主持
15:00 ~ 16:30	吴佩如	中兴大学	甘耀明小说《杀鬼》中的历史与鬼的形象	崔宰溶 (明知大学)
	金英明	韩国外国语大学	论刘震云《故乡面和花朵》中“四只小天鹅”的象征意义	
	于翠玲	全北大学	新生代的文革书写	
现代文学分科 3-2		当代文学和文化2 (209号)		
15:00 ~ 16:30	洪宏	南京大学	“人民电影”、“人学”电影与后“人学”电影景观 - 论中国大陆当代电影观念及其审美追求	申东顺 (淑明女大)
	黄景春	上海大学	黄道婆传说的当代建构及社会记忆转型	
	田龙过	陕西科技大学	第四次工业革命与中国古典文学的形态演变	
	刘明望	北京大学	以“茅台”二字渊源为例，探寻电脑时代中文学研究的边缘模式	

(3) 古典文学分科：古典文学、诗词、小说、散文、戏剧、经学 等

11日 (星期六)	上午	第一部	古典文学分科 1-1	204	古典诗文
	下午	第二部	古典文学分科 2-1	204	古典小说、戏剧
12日 (星期日)	上午	第三部	-	-	-
	下午	第四部	古典文学分科 3-1	204	古典文学、古典文化、经学

第一部：2017年 11月11日 星期六（上午）

古典文学分科 1-1			古典诗文 (204号)		
时间	发言人		论文题目		主持
10:00 ~ 11:30	崔昌源	青云大学	王鏊『海虾图』诗背景、浅释及初考		李永燮 (建国大学)
	安熙珍	檀国大学	庄子思想视域下欧阳修“穷而后工”论新解		
	宋清秀	浙江师范大学	朝鲜时代女性诗学观探析		
	金宜贞	圣洁大学	李渔的诗歌研究 - 以五言古诗为主		
	赵成千	乙支大学	李晔光《芝峰类说》的李白诗歌批评		
	申懿先	加图立大学	宋与高丽之禅师悟道颂中诗的表现		

第二部：2017年 11月11日 星期六（下午）

古典文学分科 2-1			古典小说、戏剧 (204号)		
时间	发言人		论文题目		主持
16:00 ~ 17:30	谢明勋	国立中正大学	《西游记》「三灾利害」考辨		王飞 (仁德大学)
	程芸	武汉大学	孔尚任《桃花扇》东传朝鲜王朝考述		
	鲁小俊	武汉大学	《三国志演义》的史家立场与演义趣味		
	宋贞和	高丽大学	《西游记》：再构的异域		
	王超	首尔大学	南塘韩元震对「虚室生白，吉祥止止」之解释		

第四部：2017年 11月12日 星期日（下午）

古典文学分科 3-1			古典文学、古典文化、经学 (204号)		
时间	发言人		论文题目		主持
13:00 ~ 14:30	高仁德	延世大学	以媒体观点考察河图洛书争论		李永燮 (建国大学)
	葛刚岩/李晓丽	武汉大学	从动机论角度看《周易》的生成		
	阎君祿	弘益大学	《庄子》“畸人”形象与“清丑”境界		
	胡倩茹	铭传大学	元丽通婚的女性特例代表__恭愍王妃与奇皇后		
	金智英	圣洁大学	关于韩愈以诗为文的考察		
	司开国	绍兴文理学院	韩国菩提庵、向日庵、洛山寺、普门寺观音道场与中国普陀山观音道场文化景观比较研究		

交通指南



地址：首尔 市西大门区 延世路50 延世大学 为堂馆

地铁 指南

地铁2号线 ‘新村站’ 2号 出口

京义中央线 ‘新村站’ 2号 出口

巴士指南

干线 巴士) 153, 163, 171, 272, 470, 601, 606, 672, 673, 700, 707, 710, 750A, 750B, 751

支线 巴士) 6714, 7017, 7713, 7720, 7727, 7728, 7737

广域 巴士) 9714, M6724, M7106, M7111, M7119

居民区 巴士) 西大门03, 04, 05

목차目次 어학語學

主旨发言 教室 : B09

全寅初(延世大学 名譽教授)	第四次工业革命时代人类的生活 : 要用易位而思的智慧理解对方 3
臧克和(华东师范大学 終身教授)	表意文字的认知策略—以楚简文字主要类型形声结构增长为例 10

专题讨论 教室 : B09

李旭淵(西江大学)

李俊煥(首爾大学)	Social computing -人文社会学与电脑技术的结合 17
吳昌宪(Foresight)	第四次工业革命对社会变化以及人文学带来的作用 18
吳台錫(東國大学)	戴维伯姆量子论的人文学性检讨 22
金炳基(全北大学)	第4次産業革命時代的藝術-遊藝主義 27

语言学分科 1-1 现代汉语(201號)

焦彭琰(国民大学)

徐晶凝(北京大学)	语法概念理解与语法能力相关性研究 31
金克中(湖北大学)	现代汉语致使义处置式研究 32
秦華鎮(首尔科學技術大学)	现代汉语形容词谓语句的事件句和非事件句 - 以‘形容词+过’句式为例 33
郭沂濱(水原大学)	基于交互作用的属性理解在活动语境中形容词的语义 38
梁英梅(韓國外國語大学)	现代汉语否定疑问句语用功能分析 42

语言学分科 1-2 修辞学(202號)

宋美鈴(瑞逸大学)

黃棕源(檀國大学)	梁后超思想对近代韩国知识界产生的影响 45
李亚铭, 白钰(陕西科技大学)	重返溝通 : 芻議漢語言文化中口語傳播傳統的斷層與復興 46
林克勤(四川外国语大学)	自我觉醒与形象重构 : 双重视阈下中国文化域外分层传播的向度解析 51
潘碧丝/朱锦芳 (马来西亚大学)	马来西亚与中国的民间教育往来对华文教育的发展与影响 56
安性栽(仁川国立大学)	孔子的‘中’與‘和’之修辭學 61
穆罕默德·阿里(苏伊士运河大学)	30年后再论《穆斯林的葬礼》 64

语言学分科 1-3 文字学(203號)

金俊秀(韓國教員大学)

金赫(延世大学)	甲骨文“秋”字在甲骨類組與用法上的字形差異考察 71
郑莲实(尚志大学)	《新增类合》通用字初探 76
韦金玉(北京师范大学)	太平天国文献用字特点探析 80

申祐先(漢陽大學)	從「罽」詞族論《詩·周南·葛草》「服之無斃」之義	85
楊錫彭(東國大學/南京大學)	漢字影響漢語說略	89
李周殷(淑明女大)	第四次革命時期「漢字教育」的方向和前景-通過激活腦科學領域的「前額葉」-	90

語言學分科 1-4 第四次工業革命和中國語言文學教育(205號)

李康齊(首爾大學)

許允貞(首爾大學)	對中國國務院通知「新一代人工智能發展規劃」解讀	97
朴志珪(首爾大學)	平台(Platform), 用戶(User), 大數據(Big Data) -第四次工業革命時代人口大國「中國」的意義	102
文秀貞(首爾大學)	人工智能時代與對人的理解	107
金正秀(崇實大學)	第四次工業革命的到來與「勞動」的困境 -以富士康工人許立志的遺稿詩集《新的一天》為中心	111
李善熙(CYBER韓國外國語大學)	第四次工業革命時代的教學觀和虛擬空間上的多語言教學	114
宋之賢(安養大學)	逆向思維在漢語教學中的應用	118

語言學分科 1-5 音韻學、文字學(209號)

羅潤基(韓國漢字研究所)

李智瑛(延世大學)	《江西謙大德經音》初探	123
慎富鏞(前)韓國科學技術院	漢語的擬聲詞和韓國語例子	124
陳忠敏(復旦大學)	歷史層次分析與方言的層次分類	125
陳秋萍(日本久留米大學)	江戶時代文人与朝鮮通信使的漢字字形比較研究	126
申世利(韓國外國語大學)	李德懋《隸古定》篇的再檢討	127

語言學分科 2-1 現代漢語(201號)

柳秀京(嶺南大學)

南哲鎮(嶺南大學)	機器翻譯(Neural Machine Translation) 的前景及今後大學漢語(外語)教育	133
朴炫俊(忠北大學)	再探反身代詞的阻斷效應-以漢語「自己」與韓語「자기(caki)」為主	138
李娜賢(韓國外國語大學)	對現代漢語「A+一點兒+V」與「V+A+一點兒」祈使句的對比研究	143
成耆恩(延世大學)	數詞限為「一」的動量構式---以情態動量詞為主	147
朴應哲(延世大學)	現代漢語健身語篇的認知結構分析	151
崔信惠(圓光大學)	表達屬性義的(很)【有+N】結構研究	156

語言學分科 2-2 修辭學、文化(202號)

安性栽(仁川大學)

羅敏球(韓國外國語大學)	修辭學上「修」的含義	163
宋美鈴(瑞逸大學)	簡析戰國時期縱橫家蘇秦的修辭戰略	167
劉東虹(華中師範大學)	演繹還是歸納：二語寫作研究中的誤區	168
盧家銀(中山大學)	中國公眾互聯網法治認知的影響因素研究	169
高瀨奈津子(日本札幌大學)	唐代宦官家系變遷研究-以宦官的妻子和女兒的位置為中心	174

语言学科 2-3 文字学(203號)

金信周(首尔女大)

何华珍, 李宇, 王泉 (浙江财经大学)	越南汉喃小学类文献整理研究导论	179
海村佳佳/海村惟一 (華東師範大學/福岡國際大學)	跨境視域下的“漢字學”命題—以漢字“木部”為例	184
丁克順(越南翰林社会科学学院)	漢字在越南的發展歷史及其特點與現今狀況	186
李运富(北京师范大学/郑州大学)	“古今字”的用字變化及原因	191

语言学科 2-4 汉语教学(205號)

蕭穎(仁荷大学)

Jerry Packard (University of Illinois, USA)	Facilitating Lexical Access in Chinese L2 Students	199
Sun-A, Kim 等(香港理工大学)	Orthographic Consistency and Individual Learner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iteracy Acquisition	203
应晨锦(首都师范大学)	语义背景视角下的固定语块教学	208
金椿姬(延世大学)	以韩国汉语学习者为中心的汉语语用教学 韩国学生对于汉语礼貌语使用分析	212
卞志源(放送通信大学)	探讨声韵学远程教育模式	215
卢福波(南开大学)	汉语二语交际能力培养及教学教材研究	219

语言学科 2-5 音韵学(209號)

李英月(慶熙大学)

竺家寧(國立政治大学)	元代兩種文獻反映的南北官話語音	227
张树铮(山东大学)	普通話口語詞的性質	231
李玉珠(梨花女大)	普通话母音的类型特征分析	236
金俊秀(韓國教員大学)	上古聲母構擬三則	240
李鐘九(白石大学)	桓歡韻的流變	245
韓炅濤(放送通信大学)	Study on sound changes of Old Chinese You Rhyme Group and Jue Rhyme Group characters in Chu bamboo slips	246
韩瑞英(国立韩巴大学)	A stochastic Optimality Theoretic study of the adaptation of Korean syllable final consonants in Chinese	250

语言学科 3-1 现代汉语(201號)

赵吉(协成大学)

李雪莲(浙江越秀外国语学院)	格与汉语介词体系	257
黄后男(韩国外国语大学)	指人宾语与动量词的位置关系探讨	258
张娜(首尔大学)	“或X或Y”的构式义考察	263
李阿衡(梨花女大)	对“A+着+N”的语义结构研究	268
刘亚菲(首尔大学)	关于“会”的一种特殊用法的考察	273

语言学科 3-2 汉语词汇 (205號)

朴应哲(延世大学)

殷寄明(复旦大学)	同源词根联合式合成词刍议	279
曹峻冰(四川大学)	《现代汉语词典》第6版对第5版、第4版的错误订正与存疑	283
劉雅芬(輔仁大学)	從認知隱喻看漢語核心詞「長」雙音節詞的語義形成	288
周碧香(國立臺中教育大学)	融合與新生—從Yama - rāja看佛教詞語的漢化	293
朱纪霞(忠北大学)	副词“简直”的词汇化及认知语义分析	298

语言学科 4-1 现代汉语 (201號)

姜柄圭(西江大学)

金瑛(南首尔大学)	基於句法分析的漢語四字格詞匯教學研究-以128個HSK常用四字格為例-	301
郑仁贞(韩国外国语大学)	汉语去及物化句式中心助词的句法语义功能分析	305
高英兰(淑明女大)	“可X”式形容词的类型及形容词性分析	306
金承贤(延世大学)	从认知语义角度考察“到”与“到X”的语义扩张机制	310
李曉奇(世宗大学)	现代汉语系词类动词省略的允准条件	312

语言学科 4-2 近代汉语、古代汉语(202號)

呂炳昌(青雲大学)

金琮鎬(韩国外国语大学)	論語名句裏“原因-結果”事件結構分析	319
张廷任(嘉泉大学)	分析《诗经》里的例子讨论“以”的语法化过程	320
尹淳一(高丽大学)	上古漢語情態副詞的範圍	324
王后龙(陕西师范大学)	“吐蕃”音义考辨	328
李海润(北京师范大学)	朝鮮字書《經史百家音訓字譜》收字考察	329

语言学科 4-3 文字学(203號)

朴錫弘(東國大学)

李圭甲(延世大学)	笔划变化异体字的偏旁生成与解体现象考察	335
河永三(慶星大学)	《古今释林》的文字學的價值	340
康惠根(忠南大学)	雙音節單純詞裡義符相同形聲字的來源及其組合	341
金愛英(安養大学)	佛經音義書引說文考	346
劉元春(上海交通大学)	《韩国金石文集成》释文商榷	347
金玲敬(庆星大学)	《新撰字鏡》異體字類型考	352

语言学科 5-1 近现代汉语(201號)

鄭素英(光云大学)

徐时仪(上海师范大学)	文白转型与雅俗合璧	355
黄仁瑄(华中科技大学)	《高僧傳》之慧琳“音義”的訛、脱、倒問題	360
王继红(北京外国语大学)	汉译佛经中的时间词语及其对中国时间观念的影响	365
潘薇薇(复旦大学)	古人名、字语义相反现象探微	370

冯予力/潘海華(复旦大学/香港中文大學)	再論"都"的語義:從窮盡性和排他性談起	373
蘇金智(江蘇師範大學)	當代中文發展的大方向	378

語言學分科 5-2 近代漢語、古代漢語(202號)

蘇恩希(淑明女大)

林永澤(首爾神學大學)	再談《老乞大》中的著字	385
黃信愛(首爾神學大學)	《一切經音義》中所反映的新詞和新義	386
姜勇仲(成均館大學)	《朱子語類考文解義》未詳條詞匯考釋	390
崔幸榮/安妍珍(韓國外國語大學)	《史記》、《論衡》中的能力類情態助動詞的否定形式研究 - 以"不能、不可、不得"為例 -	395
申杭哲(首爾大學)	作為語言學者的鄭玄 -以三禮注裡的'讀如'為主-	400

語言學分科 5-3 其他應用語言學(203號)

李善熙(CYBER韓國外國語大學)

張偉雄(日本札幌大學)	中日後現代思潮試論	407
陳佩英	印尼坤甸市漢語教學現狀及發展趨勢	411
郭曜榮(南華大學)	兩岸網言網語的對話:社會語言學觀點	412
蔡鴻濱(南華大學)	兩岸網言網語的遊戲:解構觀點探索	417
李繼征/隋雨竹(水原大學)	韓國學習者漢語影視教學研究	422
陸潭晟(南京郵電大學)	基於溝通特性的高校教學模式探索—以中國高校學生課程參與意願為參照	423

2017年度韩国中语中文学秋季联合国际学术研讨会

11月 11日 (星期六)

13:30-14:00

主旨发言 (B09)

主旨发言

全寅初(延世大学名誉教授)
臧克和(华东师范大学终身教授)

第四次工业革命时代人类的生活：要用易位而思的智慧理解对方
表意文字的认知策略——以楚简文字主要类型形声结构增长为例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류의 삶: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로 갈등을 극복하자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 전인초(全寅初)

나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정식 국교를 맺기 전인 1990년 2월(2-11) 처음으로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첫 중국 여행의 마음 설렘과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중 수교 전이어서 입국사증을 받기 위해 서울에서 홍콩으로 갔고, 당시 중국 입국사증은 홍콩의 중국 신화통신에서 업무를 대행했었습니다. 나는 당일 새벽 서울을 출발하여 홍콩-천진을 거쳐 늦은 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렸습니다. 중국 상공에서 내려 본 중국은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2년 8월 한중 양국은 정식으로 수교했고, 지금까지 나는 중국을 해마다 거의 두 세 차례 씩 다녀왔습니다. 나는 나의 중국학 강의가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한두 차례씩 중국의 학회에 참석하고, 동시에 중국의 주요 역사와 문화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했고 지금은 세계의 막강한 경제대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굴기했습니다. 나는 중국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굴기하는 현장을 항상 지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설정하고 실용(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적극 도입하여 오늘의 중국을 설계한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은 쑨원(孫文), 마오쩌둥(毛澤東)과 더불어 현대 중국의 삼대 위인이라는 평가에 이의가 없습니다.

문화대혁명(1966-1976)이 막을 내리면서 복권하여 권좌에 오른 덩샤오핑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오늘의 중국을 경제대국, 군사강국으로 굴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집권하자마자 공산당의 종주국인 소련을 마다하고 미국부터 방문(1979.1)했습니다. 그 무렵 남긴 덩샤오핑의 명언이 바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貓白貓)”론이었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적 이익이 앞선다는 의미로 당시 세계인의 인구에 회자되는 명언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덩샤오핑은 중국이 금세기 안에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의 4대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했습니다. 개혁 개방으로 서방 국가의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특구를 만들어 눈부신 비약적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G2 국가로 세계경제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컴퓨터로 시작된 인터넷(IT) 산업이 드디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은 우리의 생활에 응용되어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편리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복잡해진 연결과 이용방법은 세대 간의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진 시대를 살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빅 데이터(Big Data)와 융복합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시대가 될 것으



로 여겨져 불안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 중어중문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의 탁월성”을 주제로 중국어문학의 연구의 새로운 모형을 탐색하는 학술회의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여겨져 많은 기대가 됩니다.

2016년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영국인 허사비스 데미안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 고(Alpha Go)와 바둑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한국의 이세돌 9단과의 4차례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세기의 바둑 대결에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결과지만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 세 판을 진 완패였으나, 그 후 다시 보완된 인공지능 “알파 고”는 인간 바둑 고수들과 대결하여 전승했습니다. 알파 고는 사람과의 바둑 시합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지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알파 고를 개발한 것도 인간의 머리였고, 입력된 빅 데이터 기보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무수한 전략의 산물이었지만, 아무리 천재 기사라도 빅 데이터에 산재해 있는 수를 당할 수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문학의 탁월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탁월성이라고 했지만 인문학의 본질적 사유의 뿌리는 인본주의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인간 중심의 해석에서 그 우월성을 찾을 수 있어야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영국에서 증기기관 발명과 방직공업의 발전은 기차와 선박을 만들어 무역으로 국부를 성취하고 전함을 건조하여 약소국을 식민지로 만들거나 침략하여 점령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영국의 제국주의를 본받아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어 주변국을 군사력으로 지배하던 시대가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시작된 1차 2차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에디슨과 벨의 전기와 전화의 발명은 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활을 더 없이 편리하게 했으나 가공의 무기 발명으로 이어져 인류의 삶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가공할 무기의 파괴력 앞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는 국경 없는 전쟁으로 인류의 삶을 불안과 공포로 떨게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으로 얻은 이기(利器)로 인류의 삶을 더없이 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세계를 좁게 만들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시대를 지구촌에서 끊임없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11 중동 무슬림 국가의 알카에다 조직에 의한 뉴욕 세계무역 센터 110층 쌍둥이 빌딩을 공격당한 이래, 테러 공격에 대한 대비를 국내외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국내외적으로 안보의 무풍지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문제로 논의를 좁혀 보면, 과거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로 안보위기가 겹쳐 있습니다. 청일전쟁(1894)에서 패한 청국의 무인도 조어대(釣魚臺)는 대만에 속한 부속 도서였기에 일본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으로 일본에 진주한 미국은 작은 무인도 조어대의 영유권을 챙기지 못한 채로 오늘에 이르고 만 것이 중일 영토 분쟁의 씨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에도 독도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도는 조어대 섬보다 더 작은 두 개의 돌섬으로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 시네마(島根)현 오키(隱岐) 섬과는 157.5Km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독도를 자국 영토로 선포하고, 시네마 현에서 해마다 다케시마(竹島: 獨島)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일본 영토를 한국이 강제 점령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린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내용도 과거사 왜곡입니다. 고구려와 발해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헤이룽장 성과 지린성의 발해 유적지에 가보면 안내판에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 중국의 역사였다면, 요(遼) 금(金) 원(元) 처럼 24사에 서술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일시적으로 왜곡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한중일 삼국도 과거의 역사적 사실 논의에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최근세 역사시대인 조선조(1392-1910) 27왕 518년은 중국 명나라 태조 홍무(洪武) 25년(1392)에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宣統) 2년(1910)에 해당합니다. 조선의 외교 정책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을 표방하여 명과 청을 사대주의로 섬기고, 주변의 여진, 거란, 몽고 등의 나라들과는 상호 친화적인 교린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선은 한족 중심의 명나라를 중국이라고 여겼고, 당시 후금(後金)의 여진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명나라는 숭정(崇禎) 연간으로 외침과 내란으로 국운이 기울었던 시기였습니다. 청나라가 자금성으로 들어가 대청제국으로 중국을 본격적으로 통치(1644)하기 시작했지만, 조선의 사대부들은 만주족의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후금의 황태극(皇太極: 청 태종)은 1627년(丁卯胡亂)과 1636년(丙子胡亂) 두 차례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의 16대 왕 인조(仁祖)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황태극 앞에 삼궐구배(三跪九拜)로 투항하고, 군신의 맹약을 했습니다. 1637년 1월 중순(음력)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정조(正祖) 4년(1780년, 건륭 45년)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그의 8촌 형 박명원(朴明源)이 정사(正使)로 건륭(乾隆) 황제의 70세 생일 진하사(進賀使)로 떠나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연경(燕京)과 승덕(承德)을 여행하고 돌아와 여행기 『열하일기(熱河日記)』를 남겼습니다. 그는 『열하일기』 「도강록(渡江錄)」에서 “崇禎 紀元後 三周庚子年(1780년)”이라고 썼고, 그 3년 후에 정리된 『열하일기』 서문에서는 “崇禎 156年 癸卯(1783), 溯上外史題”라고 썼습니다. 그 해는 정확히 건륭 48년이었으나 그 연호를 쓰길 거부했습니다. 조선의 관리와 문인 학자들은 스스로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면서 순수하게 한족의 중국을 마음속으로 존중했습니다.

아직도 한중일 삼국은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작은 돌 섬 하나를 놓고 수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돌섬의 작은 불씨는 언제든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에 불안합니다. 한국은 강대국 두 나라 과거사의 피해자여서 마음의 상처(Trauma)를 항상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일 두 나라부터 패권을 배제하고 과거사의 진실 앞에 서로 다른 나라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진실만이 허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남습니다. 나는 대만에서 공부하던 시절 항전승리(抗戰勝利)라는 말을 자주 듣고 보았습니다. “대동아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승리했다.”는 말인데, 미국의 두 차례(1945년8월6,9일) 원폭 투하로 일본이 항복한 것을 세계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

본 정부가 위안부의 역사를 부정하고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위안부의 소녀상은 세계로 더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 앞에 독일처럼 머리 숙여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오래 전에 극복했을 문제입니다. 남경대학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일본은 부정하고 있어 중국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진실이 배제된 채로 눈앞의 현실과 타협하여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어울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솔직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로 1992년 수교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아 두 나라 사이에는 정말 갈등이 심했습니다. 물론 그 피해는 일방적으로 한국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중국이 한국이었다면 중국도 자국 방위를 위해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수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진정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김정일은 중국인 네덜란드 화교 량빈(梁斌)을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행정 장관으로 임명하여 서방의 자본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신변 정리를 위해 선양(瀋陽)으로 나온 량빈을 6가지 죄목으로 구속(2002년 10월)하고 18년 징역을 구형하여 김정일의 숙원 사업 계획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용인하지 않았고 김정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1918-2013)를 기억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5일에 95세로 타계한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에 당시 세계 각국의 전 현직 대통령이 거의 다 참석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한 위대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비폭력 인권투쟁을 하다가 투옥되어 27년간 옥살이를 했고, 민주적인 합법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를 박해한 백인과 정적을 관용으로 용서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출마 종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이면 족하다고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살면서 나는 세계의 지도자 중에서 넬슨 만델라만큼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를 억압했던 상대방을 용서하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삶의 길이라는 큰 족적을 인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국가의 경계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서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 인류의 실생활과 연결되면 나라별 국경이란 경계와 민족 단위의 의미가 지금보다는 약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즉 인간 중심의 인본사회가 될 때 민족과 국가의 관념이 지금처럼 배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인문학의 본질인 인본주의가 인류의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야 하는 시대를 감당해야 할 주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개국에서 150여 학자분들이 참석하여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큰 학회를 기획하여 이끌어 주신 한국중어중학회 이규갑 회장님과 학회 임원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第四次工业革命时代人类的生活： 要用易位而思的智慧理解对方

延世大学校 文科大学 名誉教授 全寅初

我是在中韩建交前1990年2月（2-11）第一次去中国旅行的。我依然无法忘怀初次中国之行时内心的那份激动与感慨之情。因为当时还是中韩建交前，为了办入境手续，我从首尔先飞去了香港，当时中国入境手续是香港的神话通信代办的。我当天凌晨从首尔出发，途经香港-深圳，深夜到了北京首都机场。从中国上空俯瞰中国，完全看不到一点灯光。1992年8月中韩两国正式建交，至今为止我几乎每年都会去两三次。为了可以在学生面前把我的中国学课上得更精彩，我每年会去中国参加两三次学会。还会参加中国历史及文化遗址的考察。

那期间中国发生了翻天覆地的变化。现在的中国已经崛起成为了世界经济强国和军事强国。我一直关注着中国日渐强大的发展。以“中国特色的社会主义”为核心，积极发展实用（资本）主义经济体制，打造出了当今中国的邓小平(鄧小平：1904-1997)、孙文、毛泽东，这三位一起被并称为创造当今中国的三大伟人。

随着文化大革命(1966-1976)的落幕，重新掌权的邓小平对国内外宣布走“中国特色的社会主义路线”，推进改革开放，把今天的中国打造成经济大国和军事强国。邓小平上台后，并没有先拜访共产党的宗主国苏联，而是访问了美国(1979.1)。那时的邓小平曾说过一句名言：“黑猫白猫”论-“不管黑猫白猫，能抓老鼠就是好猫”。相比理论来说更注重实际利益的角度出发，成为当时全世界广为流传的名言。当时的邓小平要在本世纪实现以农业、工业、科技、国防四个现代化为目标并且大力推进四大产业的发展。随着改革开放后，引入西方国家资本建设经济特区而取得了飞跃的发展。正因为如此，中国进入了发达国家的行列，作为G2成员国引领着世界的经济。

由20世纪后期出现的电脑而引申出的网络（IT）产业终于掀开了第四次工业革命序幕，也正是我们现在生活的这个时代。飞速变化的网络技术融入了我们的生活，为我们创造了前所未有的便利生活的同时，复杂的链接和使用方法却让人和人之间产生了代沟。年长的人们因适应不了网络技术的发展而感到不便。

由电脑和网络而衍生出的第四次工业革命融合了物联网(IoT)，人工智能(AI)，增强现实(AR)，虚拟现实(VR)，大数据(Big Data)，我们已经无法预知未来会是什么样的。如此飞速发展的第四次工业革命，即使用正常的角度去思考也很难预知，这难免让我们感到些许不安。

正值此时，恰好韩国中语中文学会要以“第四次工业革命的人文优越性”为题材，来探索中国文学研究的新课题，我对此表示非常期待。

从2016年3月8日到15日，在首尔，英国人Demis Hassabis开发的人工智能Alpha Go和世界围棋冠军韩国的李世石9段进行了4场角逐。本世纪的围棋对决引起了全世界的关注。结果众人皆知，李世石赢了一局，其余三局惨败，被修复更新后的Alpha Go和人类围棋高手对决的结果是全胜。不知是不是Alpha Go感到和人类下棋已经没意思了，它表示再也不和人类比赛下围棋

了。虽然最终开发人工智能Alpha Go的是人类的大脑，内存的大数据棋谱也是人类大脑里无数战略的产物。结论是再聪明的棋手也战胜不了海量的大数据库。我认为从这里可以发现人文学的卓越性。虽然说是人文学的卓越性，人文学的本质要从人本主义说起。我认为要从人类中心的解说里找出它的优越性才能确保人类的未来。

18世纪后期和19世纪，英国蒸汽发动机的发明和纺织工业的发展制造了火车和轮船，给国家带来了经济收益，建造军舰来殖民和侵略弱国。在亚洲，日本效仿英国帝国主义19世纪后期成为东亚的霸权国家，用军事力量来控制邻国，一直延续到20世纪中期。这就是英国第一第二工业革命的结果。美国爱迪生发明的电和贝尔发明的电话则是第三工业革命的延续，人类的生活变得更方便了，但是同时加工武器也出现了，人类的生活被焚毁得破碎不堪。直到今天，依然有很多国家因加工武器的破坏力而陷于无尽的恐慌中。没有国境的战争，不知何时何地会发生的恐怖袭击，让人们陷入无尽的焦虑和恐慌。人类文明发展的产物在给予我们便利生活的同时让世界变小了，持续的战争而造成的恐慌事态正在地球村上不断上演。美国2001年9.11中东穆斯林国家基地组织对纽约世界贸易中心110层两栋大楼攻击后，国内外严防恐怖袭击。包括美国在内，国内外都没有安全的地方了。

现在我们重新回到中日韩东亚三国的问题上来看，过去的历史问题还没解决，又存在着安全危机。甲午战争（1894）落败的清朝的无人岛钓鱼台是台湾附属岛屿，成为了日本的领土。第二次世界大战后，作为战胜国的美国驻扎日本时并未提及无人岛钓鱼台的归属问题。因此直到现在依然是中日领土纷争问题。韩日间也有独岛的领土纷争问题。独岛是比钓鱼岛小的小石岛，距离郁陵岛有87.4KM,距离日本島根县隱岐岛有157.5KM。日本最近主张独岛是自己国家的领土，并且每年在島根县举行竹岛日的活动。日本中学教科书上也教育学生们韩国强制占领了日本的领土。

中国吉林省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主办的所谓“东北工程”的内容也歪曲了历史。高句丽和渤海史也被编入了中国的历史。如果去黑龙江省的渤海遗址看的话，可以看到标识牌上标有归唐朝政权的内容。高句丽和渤海是中国地方政权，如果属于中国历史的话，也应该像辽，金，元一样被录入中国的24史。即便歪曲历史，但事实是无法被掩盖的。我们需要正视中日韩三国以往的历史事实，这也是在座大家需要面对的问题。

韩国近代历史时代朝鲜王朝(1392-1910)27王8年正是中国明朝太祖洪武25年(1392)到清朝最后宣统2年(1910)期间。朝鲜的外交政策是主张事大交隣的原则，以大国尊崇主义思想侍奉明清两国，也和周边的女真，契丹，蒙古等邻国保持友好关系。当时后金的女真族并没有把朝鲜视为中国。那时的明朝在崇禎年间因受到外侵和内乱，国运一度衰落。清朝进入紫禁城后，中国正式开始被大清帝国的统治，朝鲜的士大夫们并不遵从当时满族主义的清朝。因此当时后金的皇太极在1627年(丁卯胡乱)和1636年(丙子胡乱)先后两次侵略朝鲜。朝鲜的16代皇帝仁祖从南汉山城到皇太极面前三跪九叩来投降，拟定了君臣协议。这是发生在1637年1月中旬（阴历）的事件。

朝鲜正祖4年(1780年，乾隆 45年)燕岩朴趾源的哥哥朴明源作为乾隆皇帝的70岁大寿进贺史里的一员去燕京和承德旅行，并回来写下了热河日记。他在热河日记的渡江錄中记载是崇禎紀元後三周庚子年(1780年)，三年后修改后的热河日记序文里写为“崇禎156年癸卯(1783)，溯上

外史題。“当时准确是乾隆48年，看来他有意回避写当时的年号。朝鲜的官吏和文人学者自称自己为小中华，可见从内心深处尊重汉族的中国。

中日韩依然存在着历史问题，因为一个岛屿无时无刻都激化着矛盾。这个小岛就如同一个火苗，随时都会成为战争的导火索，给人们带去无尽的恐慌。韩国便是两大强国往事的受害者，背负着内心的伤痛。现在中日两国放下霸权，在历史事实面前互相站在对方的角度去理解去尊重，只有这样的态度问题才有望得意解决。只有事实可以战胜虚假而得以长存。我当时在台湾学习的时候经常听到抗战胜利这句话，“大东亚战争中国战胜了日本”的意思。史书记载美国先后两次、(1945年8月6,9日) 向日本投掷原子弹，迫使日本最终投降。日本政府否认慰安妇历史，然而越是如此慰安妇少女像就越被更多人乃至全世界人知道。在历史事实面前，像德国那样低头认错的话，问题早就被解决了。南京大屠杀也是无法否认的历史事实。日本一再的否认换来的只有中国人的公愤。掩盖事实，掩耳盗铃，独善其身的态度继续下去的话，良好的国际关系不会长久。唯有诚恳真实为本，才能建立良好长远的信赖关系

去年，中韩关系因萨德问题，迎来了1992年建交以来最艰难的时期。两国的关系极度紧张。当然最终的结局是韩国一方承受了代价。北韓核武器在上空威胁这我们，在这个现实关头上萨德出于韩国安全需要是必须采取的措施。换个角度，如果中国是现在的韩国的话，中国也会为了本国的安全防卫做出和我们一样的选择。北韓时时刻刻威胁称要消灭首尔。全世界都知道中国如果真的反对北韓核武器的话，完全可以阻止他们的行为。

2002年10月金正日任命荷兰华侨梁斌为新义州经济特区开发行政长官。筹划引入西方资本。然而中国整理政治人员把来到沈阳的梁斌以6条罪名予以拘留(2002年 10月)。判处他18年有期徒刑，金正日一心想实现的产业计划瞬间成为泡影。中国无法容忍不赞同的事业，金正日也未作出任何的抵抗。

我想各位一定记得南非共和国总统纳尔逊曼德拉(1918-2013)2013年12月5日95离世的纳尔逊曼德拉，他的葬礼上世界各国的现任总统几乎都出席悼念。

他活出了伟大的一生，以至于全世界为他的离世表示哀悼。他为了投身于反暴力人权的斗争后，遭受了27年的监狱生涯。虽然他通过民主合法选举成为了总统，但是他宽容的原谅了迫害他的白人和政敌。在总统连任的呼声下，他表示一次就足够了，毅然决然地离开了总统之位。他说“最伟大的武器就是和平”。活在20世纪和21世纪的当下，我认为纳尔逊曼德拉是唯一值得全世界人民尊敬的人。

他原谅了迫害他的人，为人类历史上留下了和平共存的伟大足迹。

第四次工业革命后，世界变得没有国境。需要的信息资源通过网络可随时进行传送。今后第四次工业革命进入人们的日常生活后，国家间的国境，边界，民族的意义将会被逐渐淡化。人和人，人本主义的社会把人与人紧紧联系在一起。无论什么时代，人文学人本主义的本质将引领人类迈向未来前进的方向。

感谢9国150位学者们的出席并发表了如此之多的优秀论文，还有对今天策划及安排本次学会的韩国中语中文学会李圭甲会长和各位学会成员的劳苦表示诚挚的慰问及感谢。

战国楚简文字数据库查询可以看到，已经见于《说文》的表意结构，或不见于《说文》的字形，成批增加字符，构成形声结构，或者说给出本字。下面就是数据库给出的例字。

1. “服从”本字：

战国《郭店楚墓竹简》“缙衣”篇有字，整理研究者释为从力从支结构。上海博物馆藏《战国楚竹书》一《缙衣》接下的引文是“詩員：儀型文王，萬邦作良”。《郭店楚墓竹简》所存字形结构左边的力符是没有问题的，¹⁾右边的字符则不同于支，而是彡。²⁾

相同文本，《郭店楚墓竹简》的字，在另外的出土文献里就形成了异文。上海博物馆藏《战国楚竹书》写作，将左右结构变化为上下结构，下半部分所从的力符还是清楚的，只是上半部分换成了声符彡。有的整理者研究者释为从力从垂，遂导致了该字的无法释读。虜，《玉篇》释：“服也，获也，战获俘虏也。今为虜。”《上海博物馆藏战国楚竹书》省作“虜”，取义为“服”。战国楚文字中“服”还是用“服马”字，大多是由“马”符构造。《说文》：服，用也。一曰车右馵，所以舟旋。从舟反声。房六切。昇，古文服从人。甲骨文作（林1·24·5），金文作（孟鼎）（毛公鼎）（秦公钟），而《睡虎秦简》隶定为服服：舟符仍较然明显。结体为从力从彡亦声字形，可能就是战国中期楚系文字补出的“服从”字的本字。

通过有关字形分析释读，我们还可以进而认识战国出土文献的一种异文类型。《郭店楚墓竹简》的字为“服从”本字，结构是从力从彡亦声。上海博物馆藏《战国楚竹书》写作，可释为“虜”，意义为“服”，跟《郭店楚墓竹简》的字只是在训诂意义上存在联系。训诂意义存在联系，往往也是战国文字形成异文的类型。正如本文作者在上海博物馆藏《战国楚竹书》所引《尚书》文字考》论文所揭示的：**在差不多同时代的写本里，使用字义相同或相近的不同文字单位，也是形成异文的重要类型。上古学术文本，往往口耳相传，使用意义相同或者相近的同训字，并不一定要靠语音上的联系。**像战国时期的有关《缙衣》的两个写本出现的“寒”与“滄”、“悞”与“怨”、“身”与“躬”等，就是这种类型的用字之例。

2. “过失”本字：

“过失”字形使用习惯，以往乃至现在基本上就是写作从辵从化声结构。战国简牍文作从心化声的结构作，其上下文见战国《郭店楚墓竹简》之“成之闻之”篇。《郭店楚墓竹简》“老子”甲篇，“化”用作“祸”，直接使用声符替代，则可以了解過、祸、化之间的读音联系。词意也是如此，像“过犹不及”，是古人以“過”与“祸”关联形式。

3. 仁字本字：

战国中期偏晚《郭店楚墓竹简》中《老子丙》“仁義”詞形作，其中仁字从身从心，此前的金文等载体还是作“仁”。这种用字现象，说明了战国某个时期人们对仁这一范畴的认识。同样的用字现象，又见于该类楚简《缙衣》、《五行》等篇。臧克和曾经揭示其间联系及类型（2010）：“仁、身古音相近，北魏杨衒之《洛阳伽蓝记》所载：‘亦与西域、大秦、安息、身毒诸国交通往来。’周祖谟校释：‘身毒，即印度之古译名也。’可证身、人古音相近。《广韵》二字都属真部：‘仁，仁贤。《庄子》曰：爱人利物谓之仁。《释名》曰：仁，忍也，好生恶杀，善生含忍也。又姓，《姓苑》云：彭城人也。如邻切。’《集韵·真部》：‘仁忝巨，《说文》親也。亦姓。古作忝巨。’《玉篇》：‘仁，古文作忝也。’按《玉篇》等字汇所著录“古文”从心千声，千又从人得声。犹如《诗·柏舟》“母也天只，不谅人只”。天、人协韵。即上举战国楚简从心身声结构，其“身”之主体显见也是取其“千”形，也许可以认为不过是围绕“千”形主线施加饰笔。出土各类楚简所见文字，结构如此。

4. “来去”本字：

1) 楚简文字力符多作、，见《郭店楚墓竹简》、上海博物馆藏《战国楚竹书》等。

2) 楚简文字中支彡两个字符在使用过程中的确存在互换的情况，如《郭店楚墓竹简》的《语丛一》“政”就从彡作。彡符上部所从，正是“鳧”字的声符，大徐本《说文·几部》：“舒鳧，鳧也。从鸟几声。房无切。”彡就是作为兵器之一的楛字初文，可能以鸟羽为饰，得名于功能之“殊”。《说文解字·几部》：“以投殊人也。《礼》：彡以积竹，八觚，长丈二尺，建于兵车，车旅贵以先驱。从又几声。”

《实用说文解字·来部》卷第五第163页：“来（ 甲骨  金文  简帛  古陶  古幣  漢印  石刻）周所受瑞麥來斄。一來二縫，象芒束之形。天所來也，故為行來之來。《詩》曰：詒我來斄。”但古书及后来一直借用以为“来去”字。《郭店楚墓竹简》“成之闻之”篇用字，即以从辵来声结构作为趋向动词“来去”字符，其中添加行动字符构件辵形，形成新出形声结构，也就是分化出本字。借助于古文字语料库提供的方便条件，我们还可以找到青铜器铭文亦有从辵结构作。这些用例，后来的石刻古文都还有所保留，如《实用说文解字·来部》所对照列具的形。同样，“來得及”之“及”字，隶变过程中，字形已经抽象化，所记录词义同样业已虚化。《郭店楚墓竹简》作，增加动符辵形，突出“逮”的动作行为，与金文从辵从彳分别构造为相对应，见于《实用说文解字·又部》卷三第87页“及”字条下。

5. “戰鬥”本字：

《说文解字·鬥部》仅著录鬥字象形结构。隶变之后，鬥鬥等字形区别度降低，唐代增字的《玉篇·鬥部》直接混淆为一：“鬥，都豆切。《說文》云：兩士相對，兵仗在後，象鬥之形。今作鬥同。”唐抄本《万象名义·鬥部》：“鬥，當侯反。鬪也。”至于该本所关联的鬪，其实是另外一个字形，《集韵·侯部》：“鬪，丁侯切。《說文》‘遇也’。又姓。俗作鬪，非是。”后来干脆使用借用的“斗”字。战国始使用新的形声结构，《包山楚简·文书》“戰鬥”使用字，作从戈豆声结构。这种情况，相当于专门为“戰鬥”新造本字。而且，新造本字也属于形声结构类型。

6. “作为”本字：

《实用说文解字·人部》：“撓（ 甲骨  金文  简帛  漢印  起也。从人从乍。則洛切。”所著录形声结构，本用为“起始”字，如《诗经·采薇》“采薇采薇，薇亦作止”之“作”，即使用本字记录。战国中期《包山楚简》或以“乍”用为作（金文语料库查询可得数十条记录），或“作为”字从又，形成从又乍声结构为，与金文从支乍声作相对应，就是“作为”之作本字，也是新出形声结构的类型。

7. “畏惧”本字：

《实用说文解字·白部》第九卷第284页：“怖（ 甲骨  金文  简帛  古璽）惡也。从白，虎省。鬼頭而虎爪，可畏也。於胃切。柜，古文省。”上海博物馆藏《战国楚竹书》第一册《性情论》第23号：“而民惧（畏），又（有）心惧（畏）者也。”《郭店楚墓竹简》中《唐虞之道》篇，从心从戈畏声结构。“畏惧”字或又从示，见《郭店楚墓竹简》中《老子》乙畏作，从示畏声结构。《玉篇·白部》所存“古文”从爪构造，乃至《说文解字》的“古文省”，大体就是战国楚简文字从示畏声结构的混淆。³⁾

8. 虚词“乎”专字：

《郭店楚墓竹简·老子》甲“祸莫大乎不知足”，其中乎作，从口虎声结构。《集韵·模部》：“呼戲乎戲，荒胡切。《說文》外息也。一說於呼，嘆辭。亦姓。或作戲乎戲。通作虞呼。”

9. “舉足”本字：

“举手投足”有本字从手符构造，但“举足”即抬脚，此前本字未之见。《玉篇·手部》：“舉，居與切。《說文》曰：對舉也。今作舉。”战国中期《包山楚简》“卜筮祭祷”类，使用从止舛声结构，字形作。

10. “宰割”本字：

《包山楚简》“文书”类有字作，从刀宰声结构。《实用说文解字·宀部》第七卷第223页，所列具小篆和相对应的各类出土文献字形来看，此前此后各个时期皆不曾见从刀宰声形声结构：“扼（ 甲骨  金文  简帛  漢印  石刻）臯人在屋下執事者。从宀从辛。辛，臯也。作亥切。”《万象名义·宀部》：“宰，子殆反。官也，制也，家也。”《玉篇·宀

3) 《玉篇·白部》：“畏，於貴切。驚也，忌也，懼也，難也，惡也。東，古文。”唐抄《古文尚书》隶古字形，也存在爪、示字符混淆情形。另外，《万象名义》等唐抄字汇皆未见，《集韵》《类篇》存此字形，皆以为“懼，烏回切，中善”。

部》：“宰，子殆切。治也，制也。宰，古文。”历代字汇所固定义项，业已失落了关于宰割的使用记录。因此，楚简所出形声结构，也可以看作是“宰割”词义的专用字形结构。

11. “侵伐”本字：

《实用说文解字·人部》第八卷第245页：“撤（ 甲骨  简帛  隶 漢印）漸進也。从人、又持帚，若婦之進。又，手也。七林切。”《万象名义·人部》：“侵，千金反。害也。漸進也。犯也。”《玉篇·人部》：“侵，千金切。漸進也。《穀梁傳》曰：五穀不升謂之大侵。侵，傷也。”《长沙子弹库战国楚帛书》丙篇“利侵伐”字从戈作。又有从水侵声的结构，《郭店楚墓竹简》之《性自命出》作，其中侵字作从戈浸声结构，为此前此后皆所不见之新出形声字。

12. “運動”本字：温

上海博物館藏《战国楚竹书》第一册《性情论》第27号：“凡身谷(欲) 膏(靜)而毋温(動)。”第五册《君子为礼》：“温(動)而不義，身毋温(動)安(焉)。”《郭店楚墓竹简》之《老子》甲“動”作，從辵童聲。

13. “怀疑”本字：擬

《实用说文解字·子部》：“礪（ 甲骨  籀  篆  隶  金文  古陶  隶  漢印  石刻）惑也。从子、止、匕，矢聲。徐鍇曰：止，不通也。矣，古矢字。反匕之，幼子多惑也。”大徐本已经分析得不胜支离。上海博物館藏《战国楚竹书》一《孔子诗论》“多疑”字作，从心矣声结构。该形声结构为战国楚简所使用所新造，此前未见。《实用说文解字·手部》：“焔（ 石刻）度也。从手疑聲。魚已切。”《集韵·止部》保存了相关形体的关联线索：“擬擬擬疑：偶起切。《說文》‘度也’。或从心从言。亦作疑。”楚简所见，殆即“擬”之初文形声字。

14. “难易”本字：懋

“難”為“難鳥”本字，至于“为难”“难为情”诉诸心理活动本字此前未之见。《郭店楚墓竹简》之《老子》丙本，使用懋为“难易”字，构字从心作，文本为“不貴懋(難)得之貨”。《说文·心部》：“殯，敬也。从心難聲。”大徐本注音为“女版切”。《玉篇·心部》：“懋，女板切。忌也，敬也。”这里的“敬”，意为“谨”，即对待难题之态度。

同样，“难易”之“易”造字为难，亦无本字，现存汉字最早见于《郭店楚墓竹简》之《老子》甲“懋(難)惕(易)之相成也”，其中“难易”字作，为上下结构。至于左右结构的“惕”，亦见于《说文·心部》：“沛，敬也。从心易聲。”与“懋”字同意等训。唐人增字的《玉篇·心部》已经作为“惕”字异体存录上下结构字形：“惕，他的切。憂也，疾也，懼也。悤，同上。”宋代《集韵·锡部》关联异体增加：“惕恂恂，《說文》敬也。或从狄。亦作悤。古書作悤。”这个上下结构的形声字，在唐抄《万象名义》里没有反映，大体上可以断代为唐代所增加的结构。我们知道，楷化的汉字表意形式主要依靠字形轮廓来形成区别。因此，结构位置就变得不像古文阶段那样随意。例如臧克和（2007）曾提到泽存堂本《玉篇》所保存“悤一惕”，其“勿”符两属且共用的情况：《日部》：“悤，呼骨切。明。”又见《心部》：“惕，他的切。忧也，疾也，惧也。悤，同上。”《心部》《日部》，“悤”字同构。但结构理解，或从易为声，或从忽为声，是“勿”符忽而靠上，忽而属下。一体为两属，肝胆变胡越。

15. “弁”字本字：从儿弁省声结构

《说文解字·兒部》第八卷：“晷，冕也。周曰冕，殷曰吁，夏曰收。从兒，象形。皮變切。晷，籀文兒从升，上象形。显，或兒字。”《玉篇》：“兒，皮彦切。弁也，攀也，所以攀持髮也，以鹿皮為之。《說文》曰：冕也。从兒象形。弁，同上。擗，籀文。”《集韵·线部》：“兒與弁紉：《說文》冕也。周曰兒，商曰吁，夏曰收。从兒，籀从升，上皆象形。或作弁。”战国《郭店楚墓竹简》之《性自命出》作，下部从儿符，上部为楚简用字（弁）声符之省，亦为形声结构。

16. “芙”本字从犬艹声：芙咲

《实用说文解字·竹部》第五卷第140页：“孩（  简帛  石刻）此字本闕。臣鉉等案：孫愐

《唐韻》引《說文》云：喜也。从竹从犬。而不述其義。今俗皆从犬。又案：李陽冰刊定《說文》从竹从夭，義云：竹得風，其體夭屈如人之笑。未知其審。私妙切。”看来唐代人已经不知其溯。《集韻·蕭部》：“笑咲关：仙妙切。喜也。古作咲。或省。俗作咲，非是。”改犬为夭符，也许就是隶变过程中艸竹混淆，再改造声符的结果。战国《郭店楚墓竹简》之《性自命出》22号：“芙情之浅澤也。”其中“芙”字结构⁴，从犬艸声。第24号：“聞芙聲則鮮如也斯喜。”《老子》乙9号：“大笑之。”《老子》乙10号：“芙不足以爲道矣，弗大。”⁴

17. “明德”本字：

“明德”，传世文献如《尚书》多见，大略相当于“成语”。例如《周书·梓材》：“今王惟曰：先王既勤用明德，懷為夾，庶邦享作，兄弟方來。亦既用明德，后式典集，庶邦丕享。”《周书·召诰》：“拜手稽首，曰：予小臣敢以王之隤民百君子越友民，保受王威命明德。”《多士》：“自成湯至于帝乙，罔不明德恤祀。”解释者往往多曲为之说。姜昆武《考释》以为“明德”“乃战国以前政治历史上极为重要之成词，其来源为古初民族对光明崇拜之遗痕在历史上发展成一暴流者也。盖此乃以较原始之宗教情愫为基础之古词，周以来政教交替用之，于是此宗教性术语，不断粘敷以政治、道德、哲学等多方面内容而延长其生命，扩大其作用，此词遂由宗教术语过渡为政治术语。在天曰天德，在人王则曰明德。”⁵

战国楚简则明确孔子态度以“明”即谓之“诚”。上海博物馆藏《战国楚竹书》一《孔子詩論》：“裒(懷)尔明息(德)害(曷)，城(誠)胃(謂)之也。”其中“明德”，字形作，明字从示明声，为“盟誓”仪式所用本字。

以上是取样性分析，从某些“点”上可以发现，出土战国楚简文献文字早已体现出增加形声结构的倾向。即使从“断面”的发展来看，同样也支持上述结论。

刘志基教授(2015)通过战国楚简帛文字语料库加工，详细精确统计该时期象形、指事、会意、形声“四书”结构使用频率及“四书”所占比例：“排除其中字形不清及合文等，经过系统的结构分析，最终确定楚简帛文中可以作结构分析的不重复字形共计4411个，实际字频总数为62560，其中象形字203个，总频次15735，指事字51个，总频次8231，会意字549个，总频次13861，形声字3608，总频次24733。”并列具先秦各个时期各种出土文献实际使用历史过程中的此消彼长对照表：

四书类别	西周金文				楚简帛文			
	字数	字形比重	用字总数	字频比重	字数	字形比重	用字总数	字频比重
象形	324	9.57%	29326	51.64%	203	4.56%	15735	25.15%
指事	42	1.24%	2266	3.99%	51	1.16%	8231	13.16%
会意	1037	30.64%	11178	19.68%	549	12.45%	13861	22.16%
形声	1981	58.54%	14018	24.68%	3610	81.84%	24733	39.53%

这种战国文字的使用选择倾向，即形声结构的急剧增量，根本是出于“区别”词义发展派生出新义项，为此而构造“本字”的需求。而且，总是使用已经使用过即业已认知熟悉的字符作为新出形声结构的构成部分。

借助形声结构形成新的楷字区别，同样体现出后世楷字选择使用的主要倾向。依据现存楷书字书统计，形声结构所占比重超过90%以上。南朝原本《玉篇》残卷所著录不见于《说文》的“新增”部分为714个，其中形声结构字形共有676个，占新增字总数的94.7%。其中左右结构字形有553个，占形声字总数的82%。左右结构的字又以左形右声者居多（右形左声者较少，除了一个左边声符为永、右边形符为舟的结构即“泳”字异体外，其余的全部在欠部）。这反映了文字的书写日趋规范化和定型化，规范稳定的文字在交际中具有重要的意义。形声之外的结构只有38个，占新增字总数的5.3%。⁶

石刻异体字表义构件换用调查，也可以发现这一楷化形声发展规律。调查统计表明，中古石刻异体字表义构件换用现象，更多地发生在形声结构类型当中。在发生换用的大约358个不重复单字中，形声字约占278个，占了换用总字量的77.7%。这背后的取舍规律，即在于楷字区别性的规定。

形声认知模式的维护，构成楷字系统的基础，也是记号区别性得到重建的系统保证。形声结构中的声符和形符，各自的作用，都是在相互依存、相互对待的结构关系中实现的。形声结构，体现了汉字的基本区别

⁴ 释文用字依据，均见华东师范大学中国文字研究与应用中心《古文字语料库》“战国楚简帛文字数据库”。

⁵ 臧克和著《尚书文字校诂》“周书”部分《梓材》《召诰》诸篇，其中《梓材》篇注释第11，援引了姜昆武上述“成词”说法。有的地方，还存在将“明”看作与“龟勉”通用的情形。上海教育出版社1999年。

⁶ 朱葆华《原本玉篇文字研究》第六章“《玉篇》新增字研究”。齐鲁书社2004年，第160页。

功能；而形声结构区别意义的实现，就是依靠形符和声符的对立组合。因此，形声化选择，以增加记号的区别度为前提，往往不计笔画多寡。形声化选择与简约性选择形成对立和补充，都是由背后区别性机制所支配的。⁷⁾

调查统计的基本结论是，楷化选择倾向于形声结构，与其说是顽强保留示意标音功能，毋宁说是维护楷字结构区别性原则，由此带来认知机制上归类识别的方便。

臧克和在《说文解字新订·前言》（2002年）、《中国文字发展史·隋唐五代文字》第一章楷字的发展第二节楷字的区别性（2015），⁸⁾曾专门讨论过作为楷字系统主体的形声结构功能属性和认知机制关系。据现代心理学实验分析，记忆的优先顺序大致体现如下两种认知模式：一是“按形归类，打包记忆”；二是“熟悉顺序，便于处理”。

关于“按形归类，打包记忆”。汉字按照部首编排，为什么源远流长，影响到现代楷字编排？说到底符合了关于汉字形体属性的认知规律。以形系联，可以将成批的汉字“打包”，实现形体结构的视觉关联。达到了这样的认知水平，就比其他结构方式哪怕是简化形体，更能提高认识功效。从这个意义来说，许慎《说文解字》编排组合，最大贡献是遵照形体特点进行信息“打包”。臧克和（2003、2006）曾指出：《说文解字》对后世汉字整理影响最为深远的，就在于将字形结构分类——从看起来散漫的字群，寻找其中蕴含的共有的形体成分，提取出来，从而建立起共同的关系类型。这在数学方法上，类似于代数因式分解过程中的“提取公因式”。这一科学思想，对后世字汇的聚合乃至后世文字的整理，具有创辟性意义。⁹⁾

《说文》所提取的部首，就外延而言相当于一个范围，所指示的义界就是一个范畴，这个范畴的代表符号即形符，构成为认知心理学上的“原型”。认知心理学家赵艳芳研究提出2001）：“范畴化认知活动是主客观相互作用的过程，所有事物的认知范畴都是以概念上凸现的‘原型’定位的，‘原型’对范畴的形成起重要作用。‘原型’是指作为范畴核心的图式化的心理表征，是范畴化的认知参照点。”更早些时间，王甦、汪安圣也揭示过（1992）：“某事物只要与原型有近似的匹配，即可成为该范畴的一员，从而被识别。”在这类认知“打包”过程中，庞大的汉字体系里似乎没有比形声结构处理起来更加方便的选择了。

关于“熟悉顺序，便于处理”。大脑对序列的记忆情有独钟，源于序列性事物便于处理的认知原则。记号保持形声、追随流俗、结构平衡等选择原则，说到底，也是适应了大脑“熟悉顺序，处理省事”的认知原理。¹⁰⁾

7) 明谢肇淛《五杂俎》卷十三《事部一》：“郑隶《六书略》凡 24235 字，而谐声者 21341，则谐声居十分之九矣。而欲一一说之，可乎？”上海书店 2001 年，第 269 页。

8) 该书第一章第二节之四“楷字区别重建与使用选择”：“楷字记号区别功能，根本上取决于整个楷字系统。调查表明，相对于其他字体类型而言，楷字系统主体是基于形声结构模式建立起来的。因此，唐代楷化记号区别性的重构，根本上就是形声结构的选择问题，而并非是一味走简约化的道路。”

9) “打包”机制，就是要找到整个部类当中所包蕴的共同结构模式，即以“囊”字为例：《名义·口部》：“囙，拞各反。囊字。”据此联系，可以找到《说文》：“𠂔，囊也。从囊省，石声。”囊实为从束囙声结构。据篆文，囊则从束囙声，囙实为囊字初文，也属形声结构，即从口石声，变换声符为石，即得到从口石声结构，见《郭店楚墓竹简》之《老子》甲作。据此联系，可以分析《宋本》囊部第四百六十七整个部类。该部收录凡 10 字，其中属于《宋本》新增字有“壘（𡗗）、囊”。通过具体分析，可知所统摄 8 字，皆可归《束部》：部首囊字，从束囙声；囊，从束囙省，咎声；囊，从束口，左声；囊，从束，匚省声；囊，从束囙声；囊，从束囙省形，襄省声；壘，从束囙声；囊，从束从囙非声。

10) <http://www.sina.com.cn> 2006 年 08 月 21 日

15:31 《北京科技报》发表题为《科学家研究发现象棋大师记住一盘棋的奥秘》，通过把信息元素“打包”成“大块头”，国际象棋大师们就可以超越记忆局限。

2017年度韩国中语中文学秋季联合国际学术研讨会

11月 11日 (星期六)

14:00-15:30

专题讨论 (B09)

主持：李旭淵(西江大学)

李俊煥(首爾大学)

Social computing -人文社会学与电脑技术的结合

吳昌宪(Foresight)

第四次工业革命对社会变化以及人文学带来的作用

吴台锡(東國大学)

戴维伯姆量子论的人文学性检讨

金炳基(全北大学)

第4次産業革命時代的藝術-遊藝主義

Social computing -人文社会学与电脑技术的结合

李俊焕 首尔大学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인문학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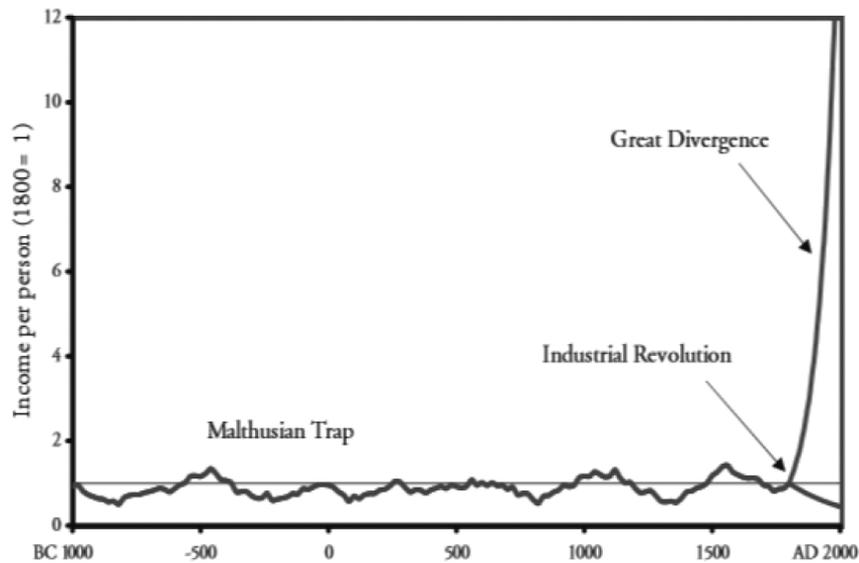
吳昌憲 (Foresight Company Co. Ltd)

[目次]

-
- 一.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 二. 산업혁명 시대의 해계모니
 - 三. 왜 인문학인가
-

一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이란 용어는 토인비(Arnold Toynbee)의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강의” 라는 저서에서 비롯되었는데,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커다란 변화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로 활동했던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18세기 영국의 사회상을 일컫는 산업혁명의 본질을 자유경쟁, 공장제, 부의 급속한 증가, 분배의 불평등 등으로 요약했다. 이후 프랑스의 역사학자 망뚜(Paul Mantoux)에 의해 “18세기의 산업혁명” 이 출간되면서 “산업혁명” 이라는 단어는 학술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위 그림에서 보여지듯 농업혁명 이후 인류 역사에서 1인당 실질소득은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생산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했기에 연도별 편차는 있어도 인구증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인당 실질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인류는 물자의 절대적 빈곤상태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1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해 보



면, 1. 기술적 측면으로는 기계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 조직적 측면에서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정착되고, 3. 경제적 측면에서는 광범위한 자본축적을 바탕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4. 사회적 측면에서는 산업자본가와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계급사회가 형성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시스템 산업과 중화학 공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 전기산업, 통신산업 등이 시스템 산업에 해당하며, 염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 등이 대표적 중화학 공업이다. 1차산업혁명에서 공장제 생산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면 2차산업혁명에서는 포드사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대량생산이 본격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에너지원 측면에서는 1차산업혁명은 석탄을 사용한 증기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었다면, 2차산업혁명시기에는 전기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게 되고 증기기관은 내연기관으로 대체된다.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1. 기술시스템의 본격화, 2. 과학이 기술혁신에 본격적으로 활용, 3.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 4. 세계경제의 다원화, 5. 기술의존도의 증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시스템은 철도시스템, 전기시스템, 통신시스템, 생산시스템 등을 일컫는 용어로 기술사학자인 휴즈(Thomas P. Huges)가 제창한 개념이다. 1차 산업혁명이 영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로 만들었다면, 2차산업혁명은 독일과 미국의 부상 등 세계 경제의 축이 다원화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대기업이 부상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각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정치, 경제가 대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을 가져왔다.

여기까지가 학계에서 정립된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였지만 사실 3차 산업혁명의 시기와 특징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나오기 전까지 3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훗날 3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3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불릴 만큼의 변화시기가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사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만큼 아직은 산업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훗날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로 정의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이유는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며, 아직은 ‘탈산업사회’, ‘제3의 물결’, ‘지식혁명’, ‘네트워크 혁명’ 등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로 불리는 이유는 산업적으로 생산성의 비약적 증대와 그에 따른 산업의 재편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마무리되지는 더더욱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시대일 뿐이다. 따라서 IT 기술이 가져온 혁명적 사회변화가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IT 혁명의 시대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탄생과 이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들의 등장 그리고 그 사업들을 대표하는 아마존, 구글, 이베이

등의 기업의 등장이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이후 애플이 주도한 스마트폰 생태계의 등장과 이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산업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기존 산업의 혁명적 변화도 진행 중이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디어산업의 변화다. 기존 언론이 장악하고 있던 미디어 산업이 애플이 만든 팟캐스트와 구글이 인수한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미디어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 환경이 바뀐 것이다. 손쉽게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이 만든 미디어를 유통시키면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기존 언론들이 장악한 미디어 산업의 주도권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이신문을 통해 유통되던 기사들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신문사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도 상당수준 약해진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면 아직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사람들의 통제 즉 빅브라더의 등장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술적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유령처럼 떠돌면서 막연한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유익하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준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이룰 더 부추키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二 산업혁명시대의 헤게모니

이탈리아의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어떤 집단이 장악하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지배층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헤게모니가 우리 사회를 장악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와 경제/경영학의 발전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산업혁명은 공장제 대량생산에 기반하고 있기에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단순한 교환의 매개체였던 돈이 자본으로서 등장하게 된 시기가 바로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돈이 돈을 벌어드는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의 척도가 돈이 되는가로 바뀐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학문(특히 오늘날 인문/사회학 등의 분야)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고 자본의 광고를 통해 생존하는 언론이 이러한 논리를 전파하면서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먼저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계몽주의에 기반한 인문학이라는 분야가 자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근대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다. 우수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이 바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근대적 교육제도와 교육학이 발전하게 된다. 객관식 평가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전면으로 등장한 시기도 바로 이때부터다. 객관식 평가시스템은 매우 오묘해서 근원적 문제에 대한 깊은 사유와 동료들과의 유대관계를 철저히 거세하고 사회

제도에 순응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매우 객관적인 제도로 보여져 거부감도 적은 그야말로 자본에게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수학과 과학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넘어서 학문의 주류로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학문의 위계(?)가 바뀐 것이다. 객관식 평가시스템은 한발 더 나아가 성적에 따른 출세우기를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자본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을 순서에 따라 채용하고, 회사 내에서는 고과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효과적으로 전화시킨다. 여기에 어린 시절부터 출세우기 방식에 익숙해진 노동자들은 ‘노력정당화 효과’에 따라 자신들이 획득한 조그만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본가에 매우 충실하게 행동하며, 다른 노동자들을 차별한다. 자본이 노동자들을 편가르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본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경제학과 경영학이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이기적인 인간상이라는 프레임을 주입시켰다.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동료와 경쟁하여 승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인적자원 관리라는 말을 통해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자원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학과 경영학의 논리는 국가 경제를 다루는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이도록 만들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논리를 제공했다. 낙수효과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하면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기도 했다.

三 왜 인문학인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헤게모니가 우리사회를 지배해왔다. 이러한 헤게모니는 자본의 지원을 받는 지식인들과 언론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유통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힘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 대중으로 옮겨가고 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SNS를 통해 유통되면서 만들어진 헤게모니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로지 촛불만을 든 평화적 방식으로 이러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힘은 부정적인 영향도 역시 막대한데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경시현상 그리고 인간적 유대의 저하다. 예전에는 일대일로 대면하면서 사람들이 유대를 가지고 교류했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통의 절대량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질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다수와 다수가 소통하기에 주목받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인 소재를 만들어야만 한다. 10대 청소년들이 또래를 가혹하고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려 스타가 되려고 한 행동들이 이를 대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의 중요성에 대한 회복이다. SNS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이 공유되고 정의로운 헤게모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회복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인문학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며, 수학과 과학이 아닌 인문학이 다시 학문의 주류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이유이다.

1. 연구 동기

동서를 막론하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대체로 철학이라는 동일 범주 안에서 구분 없이 논의되었던 학문체계들이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공히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세계진리 이해에 있었다. 이후 학문 분화를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별도의 두 학제로 굳어졌다. 그리고 지난 100년의 과학은 과학사적 혁명인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탄생 및 이에 따른 새로운 문명사적 진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서구 학문을 통해 이루어진 세계이해에 대한 혁명적 전환기에 처하여 동아시아의 인문학자로서 이를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며 진로를 설정해야 좋을지에 대한 지평적 모색에서 출발한다. 본고의 핵심은 양자역학 10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에도 충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한, 이인슈타인의 결정론적 실재론적 관점을 심화한 데이비드 봄(David Bohm, 1917-1992)의 ‘숨은변수이론(Hidden variable theory)’, 그리고 이에 대한 사교실함의 결과인 벨 부등식의 의미를 인문학적으로 검토해보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데이비드 봄 양자론의 쟁점적 키워드들인 ‘숨겨진 변수’, ‘내포 질서’, 또는 ‘미분리된 우주’라는 용어가 암시하는 양자역학의 철학적 함의의 동아시아 사유, 특히 ‘老莊禪易’ 등 동아시아 근원사유와의 접점에 관한 검토이다.

2. 데이비드 봄 양자론의 숨은변수이론

(1) 숨은변수이론과 내포질서

『전체와 접힌 질서』(1952)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목차

(1)전체와 조각내기, (2)흐름양식: 언어와 사고로 하는 실험, (3)과정으로 본 실재와 지식, (4)양자론과 숨은 변수, (5)새 물리질서를 보여주는 양자론-1부: 물리학 역사에 나타난 새로운 질서, (6)새 물리질서를 보여주는 양자론-2부: 물리법칙에서 내포질서와 외연질서, (7)잡히고 펼쳐지는 우주와 의식.

제1장은 조각나지 않은 전체로서의 세계관을 제기했다. 제2장은 언어가 전체적 사고에 문제를 일으키며 어떻게 조각내는지에 대해 영어와 라틴어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분리적 세계표상으로서의 주어중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흐름 양식으로서의 동시중심주의를 주장했다. 제3장은 지식, 사고, 의식의 본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흐르는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제4장은 양자론의 특징과 숨은 변수에 대한 과학적 기술인데, 이 과정에서 하이젠베르크, 폰 노이만, EPR역설 등을 검토하며 문제점과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리고 제5,6,7장은 ‘숨은변수이론’에 대한 논의다. 현상설명에 그치는 양자론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서 숨은변수이론과 그 세부사항인 내포질서와 외연질서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그 과학철학적 관점을 요약하면, 우주자연의 본질은 ‘상호 유기적이며 비분리적 연결 속에서 흐르고 작동하는 그 무엇으로서의 전체상’이며, 여기서 ‘질서와 의식의 개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기계질서와 내포질서를 대조하며, 기계질서는 독립적 현상적, 분리적, 비인과적이라고 했다. 봄은 또한 상대론의 질서가 ‘연속성, 엄격한 인과율(또는 결정론), 국소성에 근거하고, 양자론은 불연속성, 비인과율, 비국소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은 기본 개념부터 모순되므로 이 둘을 기존의 개념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고, 이 둘을 함께 바라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며 그것이 내포질서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상 봄 양자론이 지니는 내포질서론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①기계론적 독립성이나 부분성이 아닌 전일성과 총체성, ②우주 자연의 실상으로서의 흐름의 관점, ③현상이라고 하는 외연질서의 안에 접혀 숨겨진 참질서로서의 내포질서의 설정과 작용, ④우주에 충만한 보이지 않는 실재성이다.

봄은 이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제기했던 숨은변수이론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를 들면서 새로운 양자론은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공간에 충만한 가운데 숨겨지고 접혀지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규칙성이 양자역학에 맞는 새로운 ‘내포질서’ 개념이라고 했다. 내포질서는 현상의 이면에서 진공처럼 보이지만 우주에 충만한 가운데 작동하는 본질적 메카니즘이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외연질서이다. 이러한 질서 개념은 봄에게서 ‘생명과 비생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봄 양자론의 내포질서 개념을 중심으로 그것의 동아시아 인문학적 상관성을 생각해본다.

3. 데이비드 봄 이론의 동아시아 인문학적 검토

본 장에서는 봄 숨은변수이론의 핵심개념인 내포질서의 함의에 대해, 이와 유사한 접점을 보이는 ‘노장선역 등 동아시아 근원사유와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두 사유의 접점 모색과 이해를 인문과 과학의 학제간적 시야에서 시도한다.

상기한 봄의 이론 중의 핵심 회두를 동아시아 사유로 넘겨받아 재해석해본다. 그 요점을 가급적 봄의 용어를 빌어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①미분리의 전일성과 총체성, ②불연속과 맺음, 그리고 흐름의 사유, ③두 종의 세계질서: 내포질서와 외연질서, ④양자론과 동아시아 사유에서 공히 보이는 이중성양가성의 함의이다. 이제부터 동아시아 사유로 본 봄 이론의 인문학적 검토를 상술한 네 가지 측면에서 요점적으로 기술한다.

(1) 미분리의 전일성

동아시아 사유에서 전일과 총체의 관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심 관점이다. 이는 불교와 노장은 물론 人學 중심의 유가사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는 우주 자연의 물질적 질서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다루는 만큼 유가보다는 노장과 불교를 중심으로 본다. 봄이 애호한 용어인 조각나지 않은 하나, 혹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시초로서의 ‘무량함(the immeasurable) 같은 것에 대한 『장자제물론』의 표현은 가장 극진한 경지는 사물이 있기 전이고, 둘째가 사물이 있기는 하나 나누어지지 않음인 ‘未卦’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를 크게 보아 ‘분리되지 않음’이란 뜻의 ‘未卦’이라고 표현한다. 『장자』 내편을 마무리 하는 <응제왕>편의 말미에는 ‘혼돈의 죽음’이란 고사가 나온다. 이 역시 나누어지기 전의 총체로서의 원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설파이다. 이 ‘혼돈의 죽음’ 이야기는 자꾸 갈라지고 나누어짐, 즉 분봉됨으로써 야기된 도의 은폐를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노장의 未卦 혹은 玄同과 같은 同卦의 경지는 우주와 인간 의식의 ‘전일상’의 경지이며, 동아시아 사유의 가장 특징적인 속성 중 하나이다. 그리고 데이비드 봄 역시 분석이 야기하는 총체성의 훼손으로서의 지엽성과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전일총체의 관점을 지향했다고 본다.

이러한 전일성의 도는 태극 음양 사유를 통해서도 설명 가능하다. 태극으로 표상되는 음양론의 사유는 총체성과 개별성, 그리고 그 사이의 모순상반되는 요소들의 내적 상호공존과 상호추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봄 사유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검토 대상이다. 주역의 사유는 태극과 음양의 자기전개적 혹은 자기수렴적 의미, 0과 무한의 양자수학적 개념, 그리고 흐름과 맺음의 속성 등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개별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 세 가지로 나누어 해당 부분에서 기술한다.

(2) 불연속, 맺음, 그리고 흐름

봄은 양자적 세계가 불연속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연속성을 설명해줄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서의 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내포질서’라고 했다. 세계와 사건은 거시적으로는 흐름나, 미시세계에서는 불연속과 단절로 보인다. 흐른다면 그것은 흐름으로서의 일상이지 개별 사건이 아니다. 또한 일상과 그것의 누적인 일생 또한 사건의 점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것이 ‘點綴’이며 유동하는 흐름이다. 미시에서의 단편적 사건들이 거시에서는 흐름이 된다. 사실 수학에서도 흐름은 자연의 본질이며 그런 의미에서 마디로 단절된 점의 집합인 정수보다는 무리수가 더 본질과 실상이라고 말한다.

이를 주역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주역의 사건은 아주 작은 개별 사건인 爻의 진행과 그 결과로서의 일단락인 卦로 구성된다. 그러면 효과 궤는 어떤 관계인가? 주역에서 효는 동태적 미시 사건들이다. 그리고 하나의 소성괘 혹은 대성괘는 셋 또는 여섯 효가 순열을 이루는 순간 시공간 상에서 하나의 정태적 상이 맺히면서(capture), 그림(picture)이 되어, 의미를 발하게 된다. 이것이 특정한 위상공간 상에서의 사건의 모습과 의미이다. 이를 양자역학적으로 말하자면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양자상태의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관찰자와

대상은 상호 공명의 춤을 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용의 동시성원리(synchronicity)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좋은 공명을 위해 占卜을 하는 것이겠다.

이번에는 ‘흐름과 맺음’의 의미를 양자론적으로 생각해본다. 양자적 세계에서는 관측자와 대상이 상호작용하여 파동함수가 붕괴라고 하는 확률적 사건을 통해 관측 결과를 자아낸다. 관측 전 중첩 상태의 미발현의 세계가 관측을 통하여 하나의 상으로 맺어지며 사건이 발현된다. 그렇다면 사건의 연속인 존재의 삶이란 이러한 상 맺음의 점철과 연속과 흐름이 아닐까? 그리고 그 상 맺음은 각 존재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각기 다르게 구현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우주에 살면서 동시에 수많은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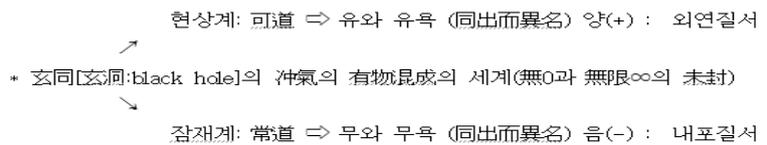
태극의 중심선은 중심점을 좌표 중심에 놓고 보면 $y = \sin x$ 의 그래프가 된다. 이것을 미분해보면 일정 시공간 상에서의 시간 선행적 사건의 조짐과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점복의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일상의 근사 세계에서 미분된 매 지점은 방향과 강도가 다르다. 그러나 총체로 보면 마치 주가 변동 그래프와 같이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 척도를 분사일주월년으로 갈수록 그래프는 안정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미시로 보면 단절과 불연속이나 거시로 보면 연속과 이어짐으로서, 맺음에서 흐름으로 가는 과정이다. 효의 흐름이 궤로 맺어지며 사건이 되고, 이러한 사건들이 시간 속에서 누적되며 다시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인간과 우주의 시공간적 유동의 과정이다

(3) 두 개의 세계질서

봄이 본 양자론의 물리적 세계질서는 접혀져서 드러나지 않는 ‘내포질서’를 통해 이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펼쳐져 드러난 것이 외연질서라는 것이 그의 숨은변수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면 동아시아 사유가 보여주는 세계 구도는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도불이 다른 언어와 유사한 지향을 보이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노자의 관점이 가장 표상적이다.

특히 노자는 제장은 깊은 우주론적, 존재론적 함의가 담겨져 있다. 무욕과 유욕을 잠시 보자. 관측자의 영향과 관련한 불확정성 이론에 기초해 볼 때, 系에 대한 영향을 배제한 상태가 무욕이고,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유욕이다. 노자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에는 주체의 객체에 대한 영향 관계 측면에서 비인위성의 ‘원자연’과 인위성의 ‘인위자연’의 두 상태가 존재한다. 비인위성의 [무위, 무욕] 상태에서는 만물에 숨겨진 내재된 질서가, 그리고 인위적 영향유위, 유욕 상태에서는 현상으로 구현된 질서가 나타난다. 그리고 보임[有]과 보이지 않음[無]의 두 세계는 ‘유무상생’하며 상호 추동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그 중간에 진정한 배태의 시공간으로서의 이득한 거뭇함의 영역인 沖氣로 가득 찬 ‘玄洞’의 세계가 있어 여기서 유와 무가 생성된다. 그렇다면 노자의 ‘玄洞’은 곧 우주물리학으로 보면 암흑물질 혹은 암흑 에너지의 영역인 ‘玄洞(black hole)’이 아닐까?

노자가 말한 두 세계란 ①보이지 않는 ‘常道’의 잠재태의 세계, 그리고 ②밖으로 구현된 ‘可道’의 현상의 세계이다. 이를 서양철학에서는 본질과 현상이라고 부르겠지만, 필자는 본질이 현상에 비해 역사적으로 우월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 상호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잠재계’와 ‘현상계’로 부르려 한다. 가도의 세계는 개별 존재자들의 현상의 세계이고, 상도의 세계는 개별 존재자들을 넘어 미발현된 잠재태의 세계이다.



또한 노자의 함축을 우회로 풀어나간 장자 역시 유사한 논리를 펴는데, 노자와 장자는 “並作, 兩行, 並生”등의 용어를 써가며 보이는 유계열과 보이지 않는 무계열의 두 세계를 모두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내포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봄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노장의 사유는 어느 하나의 우월적 세계관이 아니라 가도와 상도라고 하는 두 미당(field) 간의 상호텍스트적이며 둘 다 모두 받아들이는, 즉 사물의 흐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대궁정하는[因題 兩行]의 세계 인식이다. 노자의 용어로 봄의 이론을 말하자면, 봄의 내포질서론은 현상의 이면에서 늘 존재하는 상도의 세계에 대한 주목이고, 그것을 내재된(implicit) 또는 함축된(implicated) 질서로서 내포질서(implicate order) 혹은 접힌 질서(enfolded order)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현상적 질서가 외연질서(explicate order)가 된다.

(4) 이중성-양가성

어떻게 보면 세계는 이진법으로 움직인다. 양수와 음수, 0과 1, 들숨과 날숨, 경선과 위선, 빛과 어둠, 요(凹)와 절(凸) 등 두 요소의 대립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상호 주고받는 보완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들은 두 요소의 맥동적 왕래 중에 파동과 흐름을 이어나가지, 둘 중 어느 하나로써만 추동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의 이중성과 모호함을 보여준다. 빛과 물질 역시 입자와 파동의 속성을 함께 지닌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음양론은 대립되는 두 요소가 서로 영향 관계 중에서 생성과 붕괴를 같이하는 상보적 짝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둘 같은 하나는 내재작용에 의해 움직이므로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다. 그런 면에서 양자역학에서 질적 속성을 보이는 ‘둘 같은 하나의 비국소적 얽힘은 봄 이론의 전일적 관점하의 내포질서 개념과 상충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사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토대는 음양론이다. 음과 양은 서로 상반-모순적인 두 속성이 ‘음중양, 양중음’으로 하나의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이 아니라 질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또 노장에서의 유와 무, 음과 양, 가도와 상도의 두 세계는 둘이 서로 관계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노장에서 무는 존재의 한 형태이다. 존재는 무로도 유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는 이 둘이 이름은 다르지만 실은 같이 나오는 것이며[並作, 並生], 그래서 같이 나왔으며 이름을 달리한다[同出而異名]고 했다. 그래서 노장은 둘을 모두 인정하고[因題, 함께 가라고[兩行]] 한 것이다.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것,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슈뢰딩거의 고양이’이다. 양자상태에서 관측 전 상자 안의 고양이의 상태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었기도 하다. 양자역학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중적 상태라는 모호성, 이는 바로 양가성(ambivalence)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가지 모순되는 속성을 함께 내재하고 있는 사건의 중첩을 의미한다.

고전수학에서 0과 무는 별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대우주론과 양자론에서 무는 만물의 시원이며 무한으로 확장 연결된다. 불교와 노장에서 보이는 유무는 상생하기도 하지만 무에서 유가 생성되어 나온다고 말한다. 양자론과 동아시아 사유에서 공히 보이는 0과 무의 무한성은 팽창하는 우주에서 빅뱅 이전의 상태와도 맞닿는다.

주역으로 말하자면 송대 周敦頤(1017-1073) 성리학에서 심화된 ‘태극이 곧 무극’이며 동시에 만물의 분화이다. 또한 노자적으로 말하자면 常道의 잠재 상태에서 무수한 현상으로서의 可道적인 분화와 발현이다. 봄의 숨은변수이론에서는 내포질서가 외연질서로 무한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무한해 보이는 우주는 빅뱅 이전 티끌보다 작은 무에서 시작하여 특이점(singularity)의 사건을 지나며 무한으로 확장중이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시 특이점을 거치며 수축하여 무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것, 그것의 내재와 외적 발현은 양태는 비록 다르지만 실은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가 둘의 모습을 가지는 의미에서 이중적이기도 하고 양가적이다. 둘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둘인 것, 이것이 우주만물의 본래적 모습이다. 때문에 그 적용은 생명과 비생명을 함께 아우른다. 그래서 시공간이란 개념에 토대를 둔 存在는, 보이는 것으로 말하자면 밖에 드러나 있어 ‘외재(exist)’하지만 숨겨져 접힌 관점에서 보면 ‘내재(inist)’한다. 결국 존재는 관점에 따라 常道の 안과 可道の 밖 양쪽에서 ‘내외재(inexist)’한다. 접히고 펼쳐지는 사물의 세계, 그것은 사건과 상황에 따라 펼쳐져 드러나기도 하고 접혀져 숨겨져 있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3. 맺음말

얽힘과 관련된 1952년 데이비드 봄의 숨은변수이론은 1964년 벨 부등식에 의해 국소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확인된 것은 봄의 숨은 변수이론이 국소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지, 비국소적인 봄 숨은변수이론은 벨 부등식으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양자역학에서 핵심 개념의 하나인 비국소적 얽힘은 양자역학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문제는 이러한 얽힘이 왜 또는 어떻게 하여 나타나는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알 길이 없고, 봄은 그것을 숨은변수이론에서 전체와 흐름이라는 총체 관점 속에서 내포질서의 외연적 발현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본고는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봄의 비국소적 숨은변수가설 및 내포질서 개념의 접점들을 동아시아 인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요점은 ① 미분리된 우주개념으로서의 전일과 총체 관점, ② 미시의 불연속과 사건적 마다가 거시에서는 연속과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관점 전환, ③ 현상계와 잠재계 간의 주고받음의 상호적 세계인식, ④ 우주적 이치의 둘이 실은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이중성과 양기성의 齊物적 兩行이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존재는 사건의 연속과 누적으로 시간 속에서 存하고 공간속에서 在하며 흘러간다. 이러한 사건속의 존재를 ‘존재시간’이라고 한다. 대나무가 단절되고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매듭을 통해 이어지듯이, ‘존재시간’의 흐름을 미시적이고 미분적으로 보면 각 순간으로는 불연속적이지만 거시 전체로서는 연속적 흐름이 된다. 마찬가지로 쪼의 개별 사건이 모여 卦라고 하는 중사건을 이루고, 또 그것들이 모여 대사건으로서의 존재의 삶을 구성한다. 그리고 개별자적 사건들은 또다시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는 자기분화와 자기조직적인 프랙탈 형식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간헐적으로 사건적 특이점(singularity)이 존재하며, 세계는 ‘잠박’되어 보이기도 하고 ‘현현’하여 보이기도 하는 두 종의 양식으로 접히고 펼쳐진다.

데이비드 봄 숨은변수이론의 핵심 개념인 내포질서(접힌 질서)와 그것에 상대되는 외연질서(펼친 질서)의 개념으로 설명한 우주자연에 대한 이해는 접근 방식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자·장자·선학·주역’의 ‘노장선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근원사유의 관점에서 볼 때 인문학적 접점과 맥락이란 질적 공유도가 크다. 특히 개별이 아닌 총체전일의 관점, 가시와 불가시라고 하는 두 종의 세계 설정과 그 사이의 넘나들, 무와 0 등의 이중적·양가적 속성들은, 일반 양자역학 및 봄의 이론과 의미 있는 접점과 맥락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고대 사유가 보여주는 인문학적 특징들은 아직까지 완결되거나 검증되지 못한 봄 이론에 대한 인문학적 참조체계와 관점적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향후 본고의 제3장에서 행한 몇 가지 주안점들, 즉 전일성과 두 세계, 흐름과 맺음의 사유, 모호성·이중성·양가성, 0과 무, 역설의 사유, 한자의 언어철학적 의미 등의 과학철학적 내용과 상관성에 대해서는 별도 고찰을 할 것이다.

第4次产业革命时代的艺术-游艺主义

金炳基 全北大学

2017年度韩国中语中文学秋季联合国际学术研讨会

11月 11日 (星期六)

10:00-11:30

语言学分科 1-1 (201號)

主持：焦彭琰(国民大学)

徐晶凝(北京大学)

语法概念理解与语法能力相关性研究

金克中(湖北大学)

现代汉语致使义处置式研究

秦華鎮(首尔科學技術大学)

现代汉语形容词谓语句的事件句和非事件句

- 以'形容词+过'句式为例

郭沂滨(水原大学)

基于交互作用的属性理解在活动语境中形容词的语义

梁英梅(韓國外國語大学)

现代汉语否定疑问句语用功能分析

语法概念理解与语法能力相关性研究

徐晶凝(北京大学)

在语法教学中要不要使用语法术语，在二语教学界有不同的观点。Mohammed A (1996) 认为，学习语法术语只会增加学习者的学习压力。Brog(1999) 研究发现，有的教师认为指出各语法结构的名称完全没有必要，有的教师则认为能够说出某个结构的名称可以帮助学习者更好地记忆该语法结构。

那么，在语法教学中究竟应该不应该使用语法术语？对语法概念的理解是否有助于二语学习者语法能力的提高？本文将汉语作为第二语言的语法教学作为研究对象，对此问题进行实验研究。

在本研究中，我们观察了学习者的语法考试总成绩、作文得分、语法概念理解三者之间的关系，研究发现，语法概念理解题的得分与学习者的作文得分、语法考试总成绩之间高度正相关，即考试成绩好、作文成绩高的学习者，对语法术语、语法概念的理解也往往更为清晰。同时，对语法概念的理解还与学习者的学习风格具有一定的相关性。

文章认为，与学习者语言能力发展密切相关的语法概念和语法术语，在教学中有必要教授给学习者。

现代汉语致使义处置式研究

金克中 湖北大学

현대 중국어 형용사 서술어구의 사건구와 비사건구

-‘형용사+過’를 중심으로

진화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目次]

- 一. 서론
- 二. ‘過’와 현대 중국어 형용사
- 三. ‘A+過’ 형용사 서술어구의 사건구와 비사건구
- 四. 결론
- <參考文獻>

一. 서론

사건(bounded)과 비사건(unbounded)¹⁾은 경계성(界性, boundedness)의 특징을 언어 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인지언어학자인 Langacker가 대표적이며²⁾, 중국에서는 沈家煊(1995), 陆俭明(2013), 赵美英(2016) 등이 있다. 중국어 형용사의 경계성 특징은 주로 정도부사의 수식 여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진다.³⁾

- (1) 天很藍, 云很白。(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다.)
- (2) 她说, 脸色苍白。(그녀는, 얼굴색이 창백하다고 말했다.)

이상의 예문(1)의 ‘藍, 白’는 정도부사 ‘很’의 수식이 가능한 성질 형용사이며, 예문(2)의 ‘苍白’는 정도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한 상대형용사이다. 이러한 구분은 성질형용사는 비한정적이며, 항구성을 가지는 비사건이기에 한정성분인 ‘很’과의 결합을 통해 문장이 성립된다고 본다. 반면에 상대형용사는 한정성, 즉 사건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도부사의 수식없이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개체층위 서술어(individual level predicate)로 분류되는 중국어의 성질형용사는 이상과 같이 비한정성, 즉 항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양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체층위 서술어는 상표지 ‘過’가 출현하는 문장에 사용될 수 없어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는 한정성분인 성질형용사가 ‘过’와 결합해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师母, 时间对每个人都一样, 您也曾年轻过。”(사모님, 시간은 사람들에게 모두 같습니다. 당신도 일찍이 젊었습니다.)
- (4) 我们相敬如宾, 我们甚至连脸也没有红过一次。(우리는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했으며, 심지어 얼굴도 한번 붉힌 적이 없었다.)

이상의 예문(3)의 ‘年轻过’는 과거에는 젊었으나, 지금은 젊지 않음을 나타낸다. 예문(4)는 비한정 성분인 ‘紅’이 한정성분인 ‘臉’과 한정성분인 ‘一次’와 결합하여 과거에

1) 일반적으로 ‘Bounded/unbounded’는 한정(有界)/비한정(無界)으로 번역되어진다. 본고는 문장은 하나의 사건(event)을 나타낸다는 것에 착안해, 문장전체의 한정성과 비한정성을 ‘사건/비사건’이라는 용어를 가져와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문장 전체가 한정성을 가지는 경우 사건구로, 비한정성을 가진 경우 비사건구로 분류한다.

2) 이우철(2010:118)참조. 이우철(2010). 有界, 無界 이론을 이용한 중국어 연구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44, 117-130.

3) BCC 참조.(http://bcc.blcu.edu.cn)

4) 정지수(2010:232)참조. 현대중국어 경험상 ‘過’의 부정 중국언어연구(제 32 집)

한번도 그러한 적인 없음을 나타내며, 현재의 상태는 알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비한정성분인 형용사가 ‘過’와 결합한 ‘A+過’ 형용사 서술어문을 고찰대상으로 선정하고, 형용사와 결합하는 ‘過’의 의미와 ‘A+過’가 중심 서술어로 사용된 형용사 서술어문을 사건구와 비사건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A+過’ 형용사 서술어문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二. ‘過’와 현대 중국어 형용사

2.1 동태조사 ‘過’

일반적으로 ‘過’는 동사에서 동태조사로 어법화되었다고 간주한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 ‘過’는 동사 뿐만 아니라 형용사 뒤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이 때 형용사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제시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방향동사 ‘過’는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주로 사용되며, 이들과의 결합을 통해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보어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過’는 방향보어인가? 다음 아래를 보자.

(5) 他是行动力大过一切的男人。(그는 행동력이 모든 남자보다 크다.)

(6) 少年时学过, 青年时做过, 中年时累过, 今天老了, 我们就应依法享受退休生活。

(소년이었을 때는 배웠으며, 청년이었을 때는 해보았으며, 중년이었을 때는 피곤했으며, 오늘은 늙었다. 우리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퇴직 후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

(7) 他面色惨白, 我从没见他这样苍白过。(그의 얼굴색이 창백하다. 나는 그가 이렇게 창백했던 적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8) 我们是一群肢体语言大大丰富过文字的人。(우리는 신체언어가 문자보다 훨씬 풍부한 사람들이다.)

이상의 예문에 사용된 ‘過’는 예문(5)와 예문(8)에서는 ‘A過B’ 형태로 사용되며, 이들은 방향동사의 ‘超过或胜过’의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예문(6)과 예문(7)에서는 ‘A+過’의 형태이며, 이들은 ‘~해본 적이 있다/없다’의 의미이다. 이러한 ‘過’의 의미는 경험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작의 완성, 완료에서 유추된 동태조사의 의미이다.

경험의미를 가지를 ‘過2’는 시간 참조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했음을 나타내기에 ‘過’가 반영하는 사건은 이전에 발생 및 종결되었다는 종결성(終結性)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문(6-7)은 A한 성질이 적어도 과거에 한 번은 발생했음을 나타내며, 현재 상태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A+過’에서 성질형용사는 항구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질형용사 ‘累’가 시간 선상에서 지속되며, 반복되어도 항상 동일한 성질이 유지될 수 있기에 ‘過2’와 결합 가능하다.

2.2 ‘過’와 결합 가능한 현대 중국어 형용사

『現代漢語形容詞詞典』에 수록된 개별 형용사(개별 의미항을 구분해 고찰 대상 형용사는 1342개이며, 동태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제시된 것은 1092개이다.)의 석의를 고찰한 결과 766개의 형용사가 ‘過’와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석의에 ‘了, 着, 過’가 동시에 제시된 형용사는 14개였으며, ‘了, 過’가 제시된 것은 748개였다. 그리고 ‘過’로만 석의된 것은 3개(饱满1, 恍惚1, 晴朗)이고, ‘了’만으로 석의된 것은 325개였다. 『現代漢語八百詞』에 따르면 ‘過’가 ‘超過’의 의미를 지닐 때, 일음절 형용사 가운데 긍정적인(積極)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들이 ‘형용사+過+[+名]’의 형태로 출현한다고 했다. 그러나 코퍼스 검색 결과 ‘不!应该说, 顽固过叔婆.’ 처럼 부정적(消極)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도 사용이 가능했으며, 동태조사인 ‘過’도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와 다음과 같이 출현했다.

- (9) 这个真不知道..人家以前霸道过,改了就是好同志哈。(이건 정말 모르겠다. 그 사람은 예전에 포악했었으며, 변하고 나서는 좋은 동지이다.)
- (10) 他对妻子从来没有这么粗暴过。(그는 아내에게 여태까지 이렇게 거칠었던 적이 없었다.)
- (11) 我们一起颓丧过,认真过。(우리는 함께 의기소침했었으며, 성실했었다.)

위 예문(9-11)에 출현하는 형용사 ‘霸道, 粗暴, 颓丧’은 모두 소극적 의미이다 예문(9)의 ‘累’는 성질변화가 종결될 경우 ‘不累↔累’로의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며, 성질형용사이므로 항구성을 가진다. 그리고 항구성은 시간선상에서 동일한 성질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중복이 가능하기에 성질형용사는 ‘過’와 결합이 가능하다. 예문(10)의 ‘苍白过’는 ‘苍白’가 나타내는 상태, 즉 ‘健康的脸色→身体不舒服的脸色’의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달리 말해 ‘苍白’로의 변화는 건강한 상태에서 아픈 상태로의 변화로 인해 얼굴에 투영되는 건강 상태로, 얼굴색은 상태의 변화에 따라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용사가 반대되는 성질 또는 상태로의 변화가 가능할 경우 기본적으로 ‘過’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三. ‘A+過’ 형용사 서술어문의 사건구와 비사건구

3.1 ‘A+過’ 형용사 서술어문

형용사와 결합하는 ‘過’의 경우, ‘A+過’로 문장의 중심 서술어가 될 경우, 주로 부정문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A+過’ 긍정형을 살펴보자.

- (12) 有过,也真的惨过。。。 (있었었어, 게다가 진짜로 비참했었어.)
- (13) “我会说是好看过。而且年轻很多,大概二十八、九吧!” (나는 보기 좋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정말 젊었어, 대략 28, 29세지!)
- (14) 如果一个人从来没有自卑过,只是自大、傲慢过,这个人一定很浅薄。(만약 한 사람이 한번도 열등감이 없이, 오직 세상 자기만 있는 것처럼 거만했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매우 경박하다.)

위 예문(12)은 일음절 형용사이며, 예문(13)과 예문(14)는 이음절 형용사이다. 예문(16)을 사건구와의 비교를 위해 ‘了’로 변화시켜보자. ‘有了,也真的惨了。。。 (있지, 게다가 진짜로 비참해...)’는 비참해지는 상황으로의 변화가 시작된 이래로, 그러한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A+過’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만 진행되었던 것으로, 발화 시점에서는 종결된 사건이다. 이에 본고는 ‘A+過’를 과거 한정 기간동안 출현한 ‘기간 한정 사건(期間限定事件)’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간한정 사건이기에 한정된 기간 안에서는 [+한정], [+종결점], [-이질]의 특징을 가진다. 다음으로 ‘这么/那么’와 함께 사용된 ‘A+過’를 살펴보자.

- (15) 盛世华,你几时笨过了? (청스화, 너는 언제 어리석었었니?)
- (16) “我的心从来没有这么乱过。” (나의 마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지러웠던 적이 없었다.)
- (17) 玛丽莲·梦露又打又抓又喊,从没有那么激烈过。(마릴린 먼로는 때리고 잡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까지 그렇게 격앙된 적은 없었다.)

위 예문(15)은 ‘A+過’가 ‘这么’와 함께 사용된 것이며, 예문(16-17)은 부정문에서 ‘A+過’가 ‘这么/那么’와 사용된 경우이다. 사실 형용사가 ‘这么/那么’와 함께 사용될 경우, 정도의 높음을 나타낸다. 朱德熙(1956)는 ‘这么/那么’는 비한정 성분인 성질형용사에 정도성을 부여해서 한정 성분이 되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상의 예문(15)의 ‘这么/那么+형용사+過’는 ‘한정화+비한정 +기간한정’이 되어 전체 문장은 기간한정 사건문이 된다.

예문(16-17)의 ‘这么/那么’는 모두 부정문에 출현한 ‘没(有)+P指+W’ 형태이다. 예문

(17)의 경우 부사 ‘从来’가 사용되었다. ‘从来’는 ‘先時’ 부사로 시간 참조점 이전의 지속단계이기에 ‘从来’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상태가 줄곧 유지되는 것이므로, ‘从来’는 명확한 시작점을 가지지 않지만 명확한 종결점, 즉 시간참조점인 현재를 종결점으로 가진다. 따라서 선시부사 ‘从来’는 시작점이 불분명 하지만 참조점 이전의 과거 시점에서 시작해 참조점을 종결점으로 가지는 과거 기간 한정성분이며, 기간한정 사건문과의 결합할 경우 기간한정 사건문이 된다 판단된다. 또한 부정문에서 부사 ‘从来’와 한정화 성분인 ‘这么/那么’의 존재여부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没有这么乱过’는 지금 흐트러짐(现在很乱)이며 ‘但是从来没有乱过.’는 지금도 흐트러지지 않음(现在也不乱)이다. 본고는 이들 예문들 사이의 의미적 차이점은 ‘从来’에 의해서 부여된 시간적 특징에 한정화 성분 ‘这么/那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여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这么乱’에서 ‘这么’는 어지러움의 상태를 한정화한다. 동시에 한정화된 양적 특징은 화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형용사의 양을 한정화하기 위한 수단인 ‘这么’는 정도부사 ‘很’처럼 정도를 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들과 달리 화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른 부여량[+賦與量]을 부과한다. 그러므로 화자에 의한 부여량이 부정될 경우, 전체 문장은 그러한 적인 없었음을 나타내게 된다.

3.2 ‘A+過+부가성분’ 형용사 서술어문

일부 ‘A+過’는 부가성분을 가지고 문장의 서술어가 되었으며, 이 때 부가성분은 대부분 빈어인 NP성분이었다. 그러나 일부 ‘A+過’는 동량사 또는 시량사와 공기할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

- (18) 她已经笨过一次, 不能再笨第二次了。(그녀는 이미 한번 어리석었었다. 두 번 다시는 어리석어질 수 없다.)
- (19) 我曾经这样幸福过2次! (나는 일찍이 이렇게 두 번 행복했었다.)

예문(18-19)는 구체량인 ‘一次’, ‘2次’를 가지며 출현하는 ‘過’는 ‘~한 적인 없다’는 ‘過2’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들 ‘一次’, ‘2次’는 확정량(定量)이지 비확정량(不定量)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A+過’는 기간한정 사건문이기에 확정량을 가질 수 있지만 한정성분을 부가성분으로 가지는 것보다 비한정성의 비확정량을 부가성분을 가지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고 본다

사실 코퍼스에 출현한 대부분의 ‘A+過’가 부가성분으로 동량사 또는 시량사를 가진 경우 부정문에 자주 출현했다.

- (20) “什么嘛, 那种凶婆娘怎么会可爱, 我就被她凶过好几次。(뭐야, 그런 사나운 할머니가 어떻게 귀여울 수 있겠어, 나는 그녀에게 몇 번이나 무섭게 당했던 적이 있다.)
- (21) 没有谁比她更有理由安心享受休假了, 这么多年她可没有清闲过一天呀。(어느 누구도 그녀보다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녀는 한가롭게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다.)

이상의 예문(20)은 비확정량 ‘好几次’를 부가성분으로 가지며 ‘被’ 자구의 서술어로 ‘A+過+부가성분’이 사용되었다. 피동은 결과상태를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므로 ‘A+過’는 기간한정 사건문이기에 한정성분이므로 결과 상태가 존재한다. 더욱이 ‘A+過’의 형용사는 반대되는 성질 또는 상태로의 변화가 가능해야 하기에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변화는 결과상태가 존재하고 이러한 상태변화는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의미하기에 ‘A+過’는 피동문에 사용될 수 있다. 예문(21)에 보이는 ‘一天’은 하루도 그러한 적인 없었다를 나타낸다. 이 역시 기간한정사건문이기에 시량사와의 공기가 가능하다.

4. 결론

본고는 비한정성분인 형용사가 동태조사 ‘過’와 결합한 ‘A+過’ 형용사 서술어문을

고찰대상으로 선정하고, 형용사와 결합하는 ‘過’의 의미와 ‘A+過’가 중심 서술어로 사용된 형용사 서술어문을 사건구와 비사건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A+過’ 형용사 서술어문에 출현하는 동태조사 ‘過’는 ‘過2’로 ‘過’가 반영하는 사건은 이전에 발생 및 종결되었다는 종결성(終結性)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성질형용사는 항구성을 가지는 비한정성분으로 시간 선상에서 지속되며, 반복되어도 항상 동일한 성질이 유지될 수 있기에 ‘過2’와 결합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過2’의 경험의미를 가지는 전체 사건은 외부 관찰자에 의해 관찰되어지며, 과거에 발생해 경험했던 사건임으로 종결점을 가지지만, ‘過’의 화자의 시간 참조점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그러했던 적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명확한 시작점을 가지지 않는다. 즉, 과거 어느 한 기간 동안에 발생되어 종결된 것을 의미하기에 ‘A+過’ 형용사 서술어구는 기간한정 사건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간한정 사건구로서의 ‘A+過’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这么/那么’와 함께 사용된 ‘A+過’의 경우, 기간한정 사건구이기에 한정화 성분인 ‘这么/那么’와의 결합이 용이하고, 전시부사 ‘从来’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둘째, ‘A+過’가 사용된 부정문이 부사 ‘从来’와 한정화 성분인 ‘这么/那么’를 가질 경우, 문장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형용사의 양을 한정화하기 위한 수단인 ‘这么’는 화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른 부여량[+賦與量]을 부과하기에 부여량이 부정될 경우, 전체 문장은 그러한 적인 없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셋째, ‘A+過’가 부가성분을 가질 경우, 출현하는 성분들은 대부분 빈어인 NP성분이었다. 그러나 일부 ‘A+過’는 동량사 또는 시량사와 공기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A+過’는 ‘一次, 一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동량사와 시량사와 공기했다. 이러한 공기는 ‘A+過’가 기본적으로 기간한정 사건구이기에 한정성분인 확정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용사의 비한정성은 여전히 비확정량의 부가성분을 가지도록 요구하며, 빈어의 확정량 부정은 최소량을 부정함으로써 전체를 부정하는 수사학적인 쓰임이 많았다.

넷째, 木村英樹(1997)은 중국어 피동문은 동사구조가 비교적 높은 결과성과 동작개체에 게 구체적인 영향성을 끼쳐야 한다고 했다. ‘A+過’는 기간한정 사건구이기에 형용사의 상태변화과정과 더불어 종결이 존재한다. 더욱이 ‘過’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반대되는 성질 또는 상태로의 변화가 가능하기에, 상태변화로 인한 결과상태가 존재하고 이러한 상태변화는 경우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의미하기에 ‘A+過’는 피동문에 사용될 수 있다.

參考文獻

고영란(2016a), 「‘형용사+過’의 형식적 편향성에 관한 고찰」,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5-199.
 고영란(2016b), 「현대한어 ‘형용사+過’의 증가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中國人文科學 第63輯
 郭锐(2015), 「汉语谓词性成分的时间参照及其句法后果」, 世界汉语教学, Volume 29, Issue 4
 陆俭明(2013), 「关于“有界/无界”理论及其应用」, 语言学论丛 第五十辑
 李晓云(2005), 「“形容词+过”句式刍议」, 青海民族学院学报(社会科学版) 第31卷第1期
 馬慶株·王红斌(2004), 「先时、同时、后时时间副词与动词的类」, 『汉语时体系统国际研讨会(2003)论文』(竟成主编), 百家出版社
 이우철(2010), 「有界, 無界 이론을 이용한 중국어 연구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44, 117-130
 정지수(2010), 「현대중국어 경험상 ‘過’의 부정」, 중국언어연구(제32집)
 진화진(2017), 「중국어 형용사 서술어문의 사건문과 비사건문—‘S+A+了’와 ‘S+A+了+NP’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第102號
 최규발정지수(2007), 「중국어 상 표지 ‘過’의 의미, 통사적 특징과 부정 현상」, 중국인문학회 신춘 학술 대회

基于交互作用的属性理解活动语境中形容词的语义

郭沂滨（水原大学）

[目次]

- 一. 引言
- 二. 从可见性到行为者的态度
- 三. 生态心理学的知觉观和行动观
- 四. 框架语义学的整体论
- 五. 对个别形容词的分析——以“硬”为例
- 六. 终章
- <主要参考文献>

1. 引言

形容词表达事物的属性,但是考虑到理解与属性相关的具体经验结构时,属性的概念就不仅是事物的客观性质,必须基于人类与其生存环境“交互作用的属性”进行理解。本文将提出一个以主体与对象的相互作用为前提的解释形容词的框架,考察在活动的语境中对形容词属性的理解以及表达方式。

2. 从可见性到行为者的态度

2.1 主体性的语言学

认知语言学被称为“主体性的语言学”。

(1) 主体性的语言学

主体性的假说:发话的背后有认知主体的存在

语义—概念化:语言是概念化的过程或者是它的产物

本文基于生态生理学的知觉、行动观的视角,认为在我们所见的事物背后,主体绝非仅是对事态漫然眺望的被动的观察者,而是具有某种意图和欲求的能动的行为者。因此,我们必须关注语言背后主体的“存在方式”,即“态度”(stance)。

2.2 对长度的认识问题

皮亚杰(1954)曾经让儿童看例(3)中的两个图形,并问他们哪一个较长。于是,其中年龄较大的儿童回答是两个图形的长度不一样,而年龄较小的儿童的回答则是两个图形的长度相等。

(2) 物体的长度与动作行为的相对化

例:当作棍棒使用

当作绳子使用



如果两个物体以用作棍棒使,在现实世界中就被认为一样长,对长度的判断取决于它们的材质及用途,跟认知主体的行动紧密相关,在认知语言学中把这种属性称为“交互作用的属性”。

Lakoff(1987: 51)曾这样定义:

(3) 交互作用的属性(interactional properties)

属性概念不应该被视为跟所有的生物不相关的客观地存在于这个世界,毋宁说它是作为物理性、文化性环境的一部分与我们相互作用的结果。

2.3 交互作用的属性

在日常生活中,例如,“旅行箱很重”不是指其质量,而是主体在搬运过程中感到的“抵抗力”。“重”不表达物体的内在属性,而是以主体“搬动”为背景的交互作用的属性,需要考虑身体的体验。

(4) “重”所表达的典型意义(新地1997: 80)

a. 基于重量概念的自上而下的力

b. 在搬动物体时感到难以移动

主体不仅是能感知抵抗力的体验者,还是搬动的行为者。这种行为者的观点在迄今为止的认知语义论中尚未给予重视。所以,当我们在论及攻击或抵抗等概念时,只把主体看成观察者是足够的,主体同时也是持有某种目的的行为者。

3. 生态心理学的知觉观和行动观

3.1 生态心理学及其语言观

生态心理学把交互作用原则(the principle of reciprocity)于研究之中。Lombardo(1987: 3-4) 明确阐述了该原则的三个重要含义: 一是动物(包括人)-环境交互作用不仅是心理学的研究对象, 而且是生态心理学的中心原则; 二是生态心理学中“生态”的含义是指动物-环境的交互作用, 从人和环境的二元分离向人-环境的相互作用的视角转换; 三是有机体和环境都是生态系统, 它们的组合也是生态系统。以下是生态心理学所倡导的人类、环境观:

(5) 生态心理学的人类、环境观

- A. 人类观——是能动的在环境中进行活动的实行者
- B. 环境观——是相对于生物而言有意义的结构化的环境

以下是生态心理学具有代表性的语言观 (Reed 1996: 324)。

(6) 生态学的语言观 (ecological view of language)

语言不是观念或者行为的表达手段, 语言是为了他人可以利用信息的手段, 在此基础上, 它有助于自身及其调整集团的活动。因此, 语言在指称某种事物时, 其所指并非事物内部的表象, 而是指环境的状况或状态。

3.3 生态学的存在论

生态心理学认为环境对生物来说充满了丰富的意义和价值。对处于这种环境中的生物来说的价值和意义又被称为“动允性”(affordance) (Gibson 1979:119-136)。例如, 对人来说, 苹果具有可以吃的动允性, 而对于一个愤怒的人来说, 苹果具有扔出去以攻击他人的动允性 (Eysenck & Keane 2000:85-86)。

本文关于行为的“动允性”是障碍、抵抗、地形、载重、强敌等问题。

(7) 促进、阻害行为“动允性”活动的环境属性对于行为者来说:

- 执行行为的可能性
- 状况类型 → 容易, 困难(行为)
- 所利用的环境: 障碍, 抵抗, 地形, 载重, 强敌

3.4 知觉与行为的联结

例如“行李箱很重”, 是从搬运较为困难或者吃力这种负面的“动允性”角度来理解。在对属性(重)产生知觉的基础上, 主体才能决定是否执行这种行为。在较为容易的情况下会实行; 而在较为困难的情况, 就会探索新的“动允性”。

4. 框架语义学的整体论

4.1 框架语义学

(8) 框架语义学的语义观

- A. 语义的整体说——语义依靠情境和语境
- B. 理解的语义说——语义是理解=概念化的问题
- C. 适合性的原理——语义被还原成情境的结构

4.2 经验的结构: 行动框架

环境的意义与生物的身体具有相对性。从生态心理学的视点看, 我们所感知的事物绝非是客观存在, 而是把它放在特定活动的场景中进行理解 (Siegel & Cocking 1977)。作为一种理想认知模式 (ICM)¹⁾, 本文把使周围环境结构化的活动看成行动框架, 并将其一般化。所谓行动框架就是在日常性的场景中把主体的能动性行为看成理想化的模式。

(9) 行动框架: 由经验所构成的理想化活动模式: 语言中重要活动的具体事例

- 行为框架: 操作、破坏、制作
- 移动框架: 移动、出现、消减
- 授受框架: 授受、买卖、传达

例如, 在移动某件东西时常使用搬运、推动、举起等词语表达, 都能用“某个人把某件东西向某个地方移动”这种理想化的搬运场景表述。搬运的场景由搬运的主体、被搬运的东西、移动场所等参与者所构成, 活动的最终目标则是某个东西存在于某个地方。

(10) 搬运框架

- A. 参与者结构: 主体、物体、(工具)
- B. 移动的路径: 起点、经路、到达点

¹⁾ Lakoff (1987:68) 认为该模型的价值在于它对行为方式高度概括, 为认知世界提供了一个简约的、理想化的认知框架。

4.3 形容词的解释与活动的语境

4.3.1 “桌子”的语义

桌子具有一定的形状和材质，但它是基于“吃饭、办公和学习道具”的本质特征所下的定义。

(11) 与行为相对化的桌子的语义

- a. 坐在桌子前吃饭: 桌子 ⇒ 饭桌的角色
- b. 在桌子上写字: 桌子 ⇒ 课桌和办公桌角色
- c. 踩在桌子上: 桌子 ⇒ 踏台角色
- d. 搬桌子: 桌子 ⇒ 货物角色
- e. 睡在桌子上: 桌子 ⇒ 寝具角色

参考) ? 吃桌子: 桌子 ⇒ 食物角色

4.3.2 形容词“重”的语义

例如，踩在凳子上时，凳子的高度就是焦点；在搬运凳子时，重量就比高度重要得多。这种事物的属性就是行为与主体的相对化。

(12) 与行为相对化的凳子的属性

- a. 坐在凳子上 ⇒ 凳子硬
- b. 踩在凳子上 ⇒ 凳子低
- c. 搬凳子 ⇒ 凳子重

参考) ? 吃凳子 ⇒ ? 凳子好吃

本文把“重”的典型属性理解为在搬运活动情境中的货物属性。

(13) “重”的“动允性”

- a. 重量(对象) ⇒ 困难(主体、搬运、货物)
- b. 搬运框架: 搬, 推动、举起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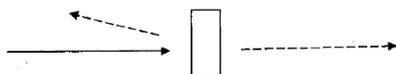
5. 对个别形容词的分析——以“硬”为例

5.1 “硬”的语义

5.1.1 自然的动允性

抵抗力并非事物的内在性质，而是针对某个主体行为的反作用，具有交互作用的属性。

(14) 阻碍的图式 blockage schema (Johnson 1987:128)



下列(15)以某个发话为背景，表达在某种特定的情境中“切冻肉、嚼甘蔗”和“拧螺丝、打开罐头”等行为。

(15) a. {冻肉、甘蔗}很硬 → 切了半天没切动(嚼了半天没嚼烂)

b. {螺丝、罐头}很硬, → 拧了半天没拧动(开了半天没打开)

“硬”的概念背后存在着活动情境，这证明对发话的解释必须考虑活动情境。由于这种活动情境是以自然内隐的方式插入语篇中的，这就使得在理解句子或文章时很少能意识到上下文语境。

5.1.2 有关“硬”的经验描述

本文把“硬”放在破坏或使物体变形等活动情境中进行理解。

(16) “硬”的日常性经验(西尾 1972: 414)。

作为日常性的体验，我们是通过什么方法感觉到“硬度”的呢？

可以认为是来自外部的“压”、“敲打”、“拉”等作用力。使物体变形的办法有“凿坑”、“折断”、“弄弯”、“拉长”等种类。

从生态心理学的观点分成两大类：1) 导致实质性变化的“探索活动”；2) “执行活动”。

(17) 有关“硬”的两种行为

- a. 探索活动——表面接触活动, 压, 敲打, 拉等打击活动
- b. 执行活动——状态变化活动, 切, 折断, 弄弯等变形活动

基于这种语义结构，在活动情境中对“硬”的概念进行理解时视为一种“操作的可能性”。

(18) “硬”的典型“动允性”

- a. 硬度(对象) ⇒ 困难(主体, 破坏, 对象)
- b. 破坏框架: 切, 割, 敲, 凿, 弄弯, 拉伸

5.2. 隐喻与故事的理解

5.2.1. 心理与社会的用法

表达抵抗力的形容词当扩展到抽象意义域时，多数情况下仍能保留抵抗力的意义。同样，在表达人的态度时，从心理、社会意义上来说存在改变对方的活动并构成承受来自对象抵抗力的图式。例如，“表情僵硬”、“心肠硬”等，背后隐藏着使对方表情变柔和或者使对方意志软化等活动情境。

- (19) a. 她的 {表情, 姿势, 看法, 观念……} 僵硬
b. 李先生的 {心肠, 态度……} 很硬
- (20) a. 这个人嘴很硬→很难让他服输
b. 此人头脑观念僵硬→想让他改变思考方式比登天还难

5.2.2 故事的理解与活动的情境

最后，本文将以童话为例，观察在活动情境及所感知的属性中所具有的一贯性表达。(21) 两个主人公以敲开海龟蛋为目标，以这种活动的意图为背景，他们先是用拳头敲打海龟蛋，但是却敲不开，未能实现活动的意图。这两个人把无法实现意图的原因归结于对象“硬”的属性。因为到此时仍没有到达目标，于是就用石头很顺利地打破了海龟蛋。

- (21) 谷粒和格拉先戴上了围裙。
“哎，我要敲开海龟蛋！”
谷粒用拳头猛敲了几下海龟蛋。
“哎哟，疼死了！怎么这么硬啊！”
谷粒的眼泪一下子就流了出来，疼得直跳着跺脚。
“那就用石头砸砸试试”，格拉说。
就这样用石头一砸，果然砸开了。（《谷粒和格拉》）

然而，当这种一贯性被打破的时候，我们对故事的理解就会产生障碍。例如(22)“敲打→打破”所引起的破坏与“重”的属性所引起的搬运活动就不匹配；(23)“搬运→抱起”行为所引起的搬运与“硬”的属性所引起的破坏活动也不匹配，于是就变成了不具备一贯性的使理解产生障碍的语篇。

- (22) “哎，我要敲开海龟蛋！”
谷粒用拳头猛敲了几下海龟蛋。
“哎哟，疼死了！怎么这么重啊！”
- (23) “哎，我要搬海龟蛋！”
谷粒用两只手抱起海龟蛋。
“哎哟，疼死了！怎么这么硬啊！”

6. 终章

本文把形容词属性的语义定位于行为的活动中，集中于表达抵抗力的“重”、“硬”这类形容词，论述了表达阻碍行为的形容词在活动情境中语篇表达的一贯性和连结性，描述了生物或人类的相互作用所展现的属性。生物性现象表现为主体与对象双方自律性的行动，对它们的描述需要以复杂的活动中为基础。

〈主要参考文献〉

- [瑞士] 让·皮亚杰(1980), 《儿童的语言与思维》, 傅统先译, 文化教育出版社.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ed, E. S. (1996), *Encountering the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bson, J.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Houghton.
- Eysenck & Keane. (2000), *Cognitive Psychology: A Student's Handbook*. Hove and New York: Psychology Press.**
- Siegel, I. E. & Cocking, R. R. (1977), *Cognitive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新地 綾 (1997), 〈形容詞“重い”の多義性に関する認知言語学的考察〉, 『言語科学論集』 3, 77-104.
- 西尾 寅弥 (1972), 『形容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 秀英出版.

现代汉语否定疑问句语用功能分析

梁英梅（韩国外国语大学）

{ 目次 }

-
- 一. 引言
 - 二. 否定疑问句与反问句的区别
 - 三. 否定疑问句的类型
 - 四. 否定疑问句的语用功能
 - 五. 结语
- <参考文献>
-

一 章题目

正文

参考文献

- 胡德明，否定疑问句形成反问的条件，宁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2009（6）
- 于天昱，现代汉语反问句研究，北京：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2007. 50
- 赵元任，汉语口语语法，吕叔湘译，商务出版社，1979（356）
- 朱晓亚，否定型语调是非问句的答句，语言科学，2007（1），58-64

2017年度韩国中语中文学秋季联合国际学术研讨会

11月 11日 (星期六)

10:00-11:30

语言学分科 1-2 (202號)

主持：宋美鈴(瑞逸大学)

黃棕源(檀國大学)

梁后超思想对近代韩国知识界产生的影响

李亚铭, 白钰(陕西科技大学)

重返溝通：芻議漢語言文化中口語傳播傳統的斷層與復興

林克勤(四川外国语大学)

自我觉醒与形象重构：

双重视阈下中国文化域外分层传播的向度解析

潘碧丝/朱锦芳(马来亚大学)

马来西亚与中国的民间教育往来对华文教育的发展与影响

安性栽(仁川国立大学)

孔子的‘中’與‘和’之修辭學

穆罕默德·阿里(苏伊士运河大学)

30年后再论《穆斯林的葬礼》

梁启超思想对近代韩国知识界产生的影响

黄棕源 檀國大学

重返溝通：芻議漢語言文化中口語傳播傳統的斷層與復興

李亞銘 白鈺（中國·西安）

口語不僅是人類語言文化的肇始，還是使人類擺脫蒙昧，組成社會的助推器。正如《春秋穀梁傳·卷十二》中所說：人之所以為人者，言也。口語活動是人類最基本、最靈活、最常用的語言傳播形態，它從誕生之日起就一直伴隨人類始終。與人類社會的不斷進步相共振，口語文化的形態已從單純的日常交際轉變為演講、談判、辯論、口頭詮釋、播音主持等多種形式。口語文化與人類社會的運行息息相關。不僅是個體的“人”甚至是一個集團、一座城市、一個國家也都需要運用話語的傳播維繫其自身的運行與利益。口語不僅建構了人類的世界觀，而且內向操作著人類的社會行為與習慣。

與歐美國家口語文化的興盛同步，西方的口語教育、研究有著良好的傳統。在美國的教育序列版圖裏，口語表達教學和訓練作為人文素養類的基礎課程貫穿了中小學、大學的始終。口語教學與文字教學平分秋色地支撐起了英語教育的主要範疇。近年來，中國學者開始關注國內漢語言教學中對口語忽視與弱化的現狀，併發出了重建口語教育的呼聲。^[1] 日益走向開放、多元的當下中國，口語表達在社會的建構、運行過程中發揮著越來越重要的作用，重新建構漢語言口語教育可謂時不我待，任重道遠。因此，回答並厘清中國有無口語文化的傳統？中國口語傳播活動的現狀是什麼？造成當前狀況的原因是什麼？有著顯而易見的理论價值與現實意義。本文從梳理口語傳播活動在中國的演變過程入手，嘗試回答以上問題，以圖為建構有本土特色的口語教育體系做出嘗試與積累。

一、口語傳播的內涵與學科特徵

口語傳播這一概念是從西方的 speech communication 翻譯過來的。有學者根據語言學家索緒爾有關語言和言語的劃分，將其翻譯為言語傳播；留美華人學者魯曙明、林燦初等將其翻譯為溝通交際。不管借助何種工具，人類日常的傳播行為多是以有聲語言並輔助以非語言符號來展開的。因此，無論是從傳播形式上考察，還是從傳播過程中審視，“口語”都是 speech communication 的基本形態。

為了與 mass communication（大眾傳播）相區別，以及突出 speech communication 的學科獨特性與核心能力，筆者一直沿襲臺灣地區的學術習慣將其譯為“口語傳播”。與文字傳播的規律與效果不同，口語傳播是人類在不同的社會情境中運用語言和非語言手段來組織、發送、回饋資訊並產生有效互動的一種傳播行為。^[1]

口語傳播學探討的是一種話語方式，即研究人們如何最恰當的利用口語形式以及其他副語言形態來影響受眾，如何使人在思想、觀念、行為、行動上產生改變。口語傳播學的歷史淵源和學理雛形可以追溯到古希臘時代的 Rhetoric。國內將 Rhetoric 翻譯為修辭，與中國語言文學中修辭研究所關注的書面用語的選詞擇句、辭格文采等範疇不同，西方的修辭傳統一直被等同為“言說的藝術”或者“說服的藝術”。^[2] 在歷經了近、現代歷史的變遷與實證研究、行為科學思潮的衝擊後，在社會學、心理學、人類學、語

言學等多個學科知識的交叉和激蕩中口語傳播學構建了現有的研究體系。^[3]

1、口語傳播活動在漢語言文化中的的流變

中國的口語傳播活動有著悠久的歷史，但口語修辭研究一直以來就是以西方為中心延展開來的。要想瞭解判斷一個事物的性質和未來，一個重要的手段就是要知道它的過去。依據中國歷史劃分的習慣以及口語傳播活動演進的特徵，本文嘗試從五個階段進行闡釋：

先秦時期：與古希臘繁盛的口語活動相對應，幾乎同時代的先秦時期也是中國口語傳播異常發達的階段。先秦是中國社會大動盪的時期，諸侯國之間“合縱連橫”，戰亂不斷。因此這一時期政治生活中的勸諫、論辯活動十分活躍，甚至可以說口語傳播是這一時期外交活動中最重要的形式。這一時期名家輩出，遺留下的口語傳播思想也對後來中國的口語傳播活動產生了深遠的影響。儒家的孔子、孟子、荀子等都十分重視口語傳播要切合政治倫理需要的屬性，提倡將口語傳播活動與人生修養結合起來；墨家的墨子以及法家的管子、商鞅等比較關注於口語傳播如何發揮其社會功能；道家的老子、莊子較多關注於語言表達與意義呈現之間的辯證關係；以鬼穀子、蘇秦、張儀為代表的縱橫家，主要關注於對辯論和說服的探討。尤其值得指出的是，這一時期以孔子為代表的儒家教育體系有了明確的分工——“孔門四科”，即德行、言語、政事、文學。其中的“言語科”明確以語言的應用、表達為主要教學內容，可以說開創了漢語言文化中口語教育的先河。孔門七十二賢中的宰我、子貢就是言語科人才培養中的代表人物。

漢魏六朝時期：經歷了秦朝焚書坑儒的高壓政策之後，漢魏六朝時期又為中國的口語文化創造了一個相對寬鬆的政治環境。在漢代，儒學漸成中國文化的主流，這一時期的口語傳播思想多是對儒家口語傳播倫理思想的總結與引申。代表人物主父偃系統地將口語傳播上升到了治國安邦，安身立命的高度。魏晉六朝時期中國再次進入了分裂與動盪。期間玄學清談的風氣興起，文人雅士們喜於齊聚一堂就相關哲學命題進行論證、辨析，他們飽含智慧與言辭審美的口語傳播活動成為中國口語傳播史上一條獨特的風景。漢魏六朝時期的口語傳播活動與思想發生了重要的變革，即從關注口語轉而偏重於關注文學，這一時期的《典論·論文》、《文賦》、《文心雕龍》等重要著作在論述的時候或將口語與文學揉和在一起論述，或開始逐漸轉向以文學為主。漢魏六朝時期是漢語言文化傳統由口語轉向文字的關鍵階段。

隋唐宋元明清時期：從這一時期開始，中國進入了較為穩固的大一統的封建時代。從隋唐開始直至清末結束的科舉制度，開啟了封建王朝以文章筆試為主要形式的人才選拔機制。這一時期對文章、詩歌、詞句等文學修辭的探討成為主流，在封建集權的漫長統治下口語文化逐漸寂落。期間，間或有人對口語傳播有零星的論述，也多是在儒家口語傳播倫理秩序上的進一步闡釋；相關口語傳播活動的主要表現形式：一是，以佛教傳播為代表的講經說法活動的盛行；二是地方官員奉朝廷命令照本宣科的定期對治下百姓宣教聖諭皇命的口頭教化活動。這一時期也是中國“重文（文章）輕語（口頭表達）”傳統形成並固化下來的時期。

近現代:中國的近現代史是在中西文化相碰撞的背景中, 中華民族探求救國圖強的歷史, 也是中國口語傳播傳統開始得以復興的時期。這一復興有兩個重要基礎: 一是維新黨人梁啟超、秋瑾等, 革命黨人劉師培等有識之士通過報紙發表文章和親身踐行的形式對民眾進行了有關“演說”的社會啟蒙; 馬相伯、蔡元培等在大學教育中系統的借鑒西方經驗、建立起現代演講制度, 對新式知識份子進行了實踐啟蒙。二是, 議會、法庭等新興政治形式的出現以及報紙、廣播、現代交通等新興社交環境的巨大變革使得人們對口語傳播能力的需求日益強烈。這一時期以公共演講為主要形式的口語傳播活動成為推動社會進步的有力工具。如魯迅、聞一多等文學家關於社會民主與進步的演講; 蔡元培、陶行知等教育家關於社會教育的演講; 孫中山、毛澤東、周恩來、蔣介石、張學良等所發表的政治演講等等。尤其值得注意的是, 中國近現代的口語傳播活動開始與廣播媒介結合, 使其傳播效果更加強大。上述大多數的演講都為宣傳進步思想, 推動中國政治變革起到了推動作用。這一時期的口語傳播思想多是以西方演講理論、言論民主等思想為基礎的相關論述, 少有中國視角的創造。值得一提的是毛澤東在演講中使用飽含生活氣息的語言風格, 蓬勃大氣地綜合運用多種修辭手法, 其所呈現出的中國風格與中國氣派可以說是中國口語傳播實踐的代表。

當代: 經歷了短暫浩劫的人民共和國, 在改革開放後迎來了新的發展階段, 社會逐步開放, 政治氛圍日益寬鬆, 國民經濟飛速發展。社會交往成為國人社會生活和經濟活動的充分必要條件。雖然這一時期的口語教育在漢語言教學中依舊被忽視, 但人們卻開始愈發重視對口語傳播能力的習得, 中國的口語傳播活動呈現出走向繁榮的態勢。1993年開始, 由新加坡廣播局舉辦的國際大專辯論賽以其獨特的觀賞性在電視轉播過程吸引了國人的眼球, 也使大學、社會掀起了舉辦辯論比賽的熱潮。邵守義主辦的大眾雜誌《演講與口才》深受讀者喜愛, 在迎合人們需求的同時也對普及口語傳播的基本原理做出了貢獻。隨著廣播電視的普及, 播音員、主持人、評論員日益成為口語傳播活動的典型代表。新媒體快速發展, 又將中國社會帶入了“電子口語傳播”時代, 以微信、微博、音視頻即時通訊、論壇等為代表的新興傳播手段使人們的交流方式再次向“口語”形態回歸, 為口語傳播活動的繁盛提供了廣闊空間。十八大後, 中國處於深化改革的重大歷史階段。以習近平為代表的中共領導人以口語傳播的形式將其政治自信和治國理政智慧展現得淋漓盡致。中國領導人的現場口頭表達經常成為新聞節目的重要素材直接播出。習近平主席無論是外訪還是出席國內外會議, 幾乎每次都發表演講, 有的還作全程直播。他本身所具備的高超的口語傳播能力已引發了國內外的廣泛好評。這一時期的理論研究開始在演講學、口語修辭學、辯論學等方面逐步走向深入。在取得一定成績的同時, 也呈現出成果總量不足, 學理縱深度差, 偏重技巧與主觀經驗總結等缺憾。新的時代迫切需要中國漢語口語教育的再次復興。

2、中國口語文化的特徵

首先, 中國有著悠久的口語文化, 並在古典時期取得較為輝煌的成就。中國口語傳播發展長河的輝煌時期在先秦時代, 老子、孔子、鬼穀子、孟子等一大批世界著名的文化名人都對中國口語傳播思想多有論述。《戰國策》、《戰國縱橫家書》等著作對先秦時期口語活動進行了詳盡記載。《鬼穀子》一書作為中國古典辯論說服的代表作, 是這一時期口語傳播研究的重要成果。先秦口語傳播思想雖未形成一個結構完備的理論體系, 但卻開啟了中國對口語傳播活動與研究的源頭, 閃現出了燦爛的光輝。^[4] 雖然其中的

相關論述顯得片段性，但卻依舊對中外口語傳播思想具有深刻的啟示意義。

其次，雖然中國有著悠久口語傳播傳統但在隋唐到明清階卻段存在斷層。這一時期關於語言的研究與活動主要圍繞著文體、語體的演進展開。縱觀中國口語傳播的流變，在經歷了先秦時期百家爭鳴的輝煌後，就逐漸走向低谷。尤其是隋唐到明清階段文學活動遠盛於口語活動，相關口語思想也主要是對“修辭立誠”觀念的解釋與重複。上述情形與西方口語傳播發展史中文學修辭在後期漸成主流的狀況很相似，只是中國口語傳播的沉寂期過於漫長，再次走向復興的時點相對較晚。

再次，注重發揮口語傳播的社會功能。中國古人將口語傳播視為治國安邦的重要手段，認為“出言陳詞，身之得失，國之安危也（《說苑》）”。將口語傳播與建立功勳、樹立德行並立，視作是一個人改變社會的重要標誌。認為“太上有立德，其次有立功，其次有立言，雖久不廢，此之謂三不朽（《左傳》）”。將口語傳播與社稷的安危、國家治理的能力聯繫起來，認為“言出乎身，加乎民；行發乎邇，見乎遠；言行，君子之樞機。樞機之發，榮辱之主也。言行，君子之所以動天地也（《易經》）”。

最後，重視對口語傳播的倫理道德約束。中國古代非常重視口語傳播與道德修養密切結合，將作為客體的“言語”與作為口語傳播主體的“人”視為一個有機整體。強調言為心聲，只有道德修養高，遵守倫理規範的人，在口語傳播活動中才能取得好的效果，才能通過口語傳播保其功業。正如《易經》裏所說：“君子進德修業。忠信，所以進德也；修辭立其誠，所以居業也”。從古至今，“修辭立誠”已演變成為中國口語傳播活動中最基本的原則之一。

1、中國口語文化傳統出現斷層的原因

中國的口語傳播活動在發展過程經歷了漫長的沉寂期。這一發展中的斷層對中國的社會文化、政治運行以及個體的思維範式都產生了廣泛而深遠的影響。其原因主要在以下方面：

首先，中國封建集權政治架構的長期穩固運行使口語傳播活動失去了繼續發展的社會條件。先秦時期，戰亂不斷，諸侯國之間兼併頻繁，由此帶來了社會交往的頻繁。君王們需要士人們發揮口語傳播的才能，通過雄辯、說服等手段，以外交途徑輔助戰爭攻勢，以圖自身利益最大化。士人們也通過口語傳播活動建功立業，安身立命。進諫和雄辯成為進入統治階層的有效途徑。但是，封建集權統治者重強調皇帝權威，注重維護中央集權，嚴禁民間自由結社和散佈思想學說。歷朝歷代多有“文字獄”，百姓與士人因言獲罪的案例不勝枚舉。因而，口語傳播失去了其發展的土壤。

其次，以書寫文化為代表的科舉製成為封建王朝選才的制度化機制，依靠進諫和說服進入政治機構的路徑被阻斷。與先秦依靠口才來謀得官職的情況截然不同，隋唐以來，科舉制度建立並穩固下來，國家選材的依據不是看口語表達而是看文字書寫。在科舉指揮棒的推動下有關八股文寫作的理論日漸興盛。此外人們對詩詞歌賦等文學藝術、書法藝術的追求也進一步登峰造極，口語傳播則陷入沉寂。^[5]

再次，東方文化中“慎言”的觀念進一步被僵化和誤讀，演化為了“少言”或者“勿言”。傳統



的東方文化不崇尚辯論辭令，追求言說與行為、道德的統一。孔子就旗幟鮮明的反對無道德的口語傳播行為，指出“巧言亂德”，“巧言令色，鮮矣仁”（《論語》）；並提出“言忠信”、“言思忠”、“言必信”（《論語》）等口語傳播的道德準則。他還提出了君子要“敏於事而慎於言”，“訥於言而敏於事”等行為準則。道家的代表人物老子也認為“知者不言，言者不知”，“善者不辯，辯者不善”（《老子》）。強調口語傳播要以道德修養為前提，以言行一致為準繩，這樣的觀點是完全正確的。但後人在闡述口語傳播活動的“慎言”原則時越來越極端，甚至走向“勿言”的僵化路子。在中國語境中對口語傳播活動的倫理追求是有其合理性的，這其實也是對口語傳播的理論和實踐提出了更高的要求，但一定要在適當的範圍內進行，不可過猶不及。

最後，中國傳統思維方式習慣通過“悟”和綜合感知來把握事物，不太重視依靠口語傳播的認知功能。與西方人追求邏輯上的推理與判斷不同，中國的傳統思維方式注重直覺性整體思維，這種整體性思維往往是籠統的、感性的。如佛教禪宗裏講究“頓悟”、“坐禪”；道教講究“坐忘”、“冥想”；儒家理學注重通過“思”進而逐步認知事物。在意義的闡釋與表達中，往往使用“取相比類”的方法，缺乏條理性與層次感。^[5]因此，在中國這個高語境文化的國度，人們不願意多辯，也不需要多言。相反，在崇尚辯論的西方文化中，人們信奉真理越辯越明的信條，口語傳播被認為是發現知識，傳播知識的工具。

五、結語

漢語言文化中的口語傳統在經歷了先秦的早期輝煌，隋唐至明清的斷裂，直至近現代迎來了走向復興的新趨勢。在地球村的概念裏無論是國家還是個人都需要對外交流與溝通，都需要通過話語的使用彰顯其存在。漢語不僅是世界上使用人口最多的語言，而且是學習人數增長最為迅速的語言之一。截止 2016 年，已有 140 個國家建立了 511 所孔子學院和 1073 個孔子課堂，各國孔子學院和課堂各類學員總數達 210 萬人，舉辦各類文化活動受眾 1300 萬人。^[6]語言的使用不僅在於書，更在於帶著人類體溫的活生生的口頭交流。蓬勃發展的世界漢語教學應對長期以來的“重文輕語”現象引以為鑒。漢語言教學、研究的同仁們也應攜起手來，共同助力口語傳統的再次復興。

中国文化的域外传播是全球化时代文化涵化的发展趋势和人类历史进程的必然要求。全球化构建了一个世界信息和文化相互碰撞与交流的平台，文化的内在本质对多元与互补的诉求则提供了中国文化走出去参与世界文化大潮的合理动因，故而这种文化的越界、传播、融汇并非仅是国家和民族主体意志的驱动，而是包括外部环境、内在因素等多种机制共同作用下文化流动的一种必然导向。

一

全球化语境下的这种对外传播活动强调文化自身的发展规律对其流向选择的影响，而不是人为主导因素的强行规制，但文化主体的自我觉醒依然是一个重要的考量指标。“文化自觉”这个概念肇始于费孝通先生的归纳与总结，他认为文化自觉的视角是小中见大，即从一个民族的文化内视延展到其他民族，甚至全人类的文化共同问题。其基本含义是属于一定文化群体的人对自己本民族文化有一个清醒的认识，了解本民族文化的源头、形塑、规制、固化的进程，明确其鲜明的特色及未来的发展方向。拥有对本位文化进行转型和改向的自主能力，也能够在新场域、新时空下自我调整、自主创新。

自费孝通先生之后，国内很多学者都对“文化自觉”这个命题进行了深入研讨，使其成为一个备受关注、广为响应的热点学术话题。这实际上与当今全球化的场域和背景密切相关，一方面，由于各民族文化都有自身生存和传承的内在要求，学者们开始对文化本质主义旗帜下的霸权话语和中心本位产生怀疑、反思和批判；另一方面，多元文化碰撞、交流、融汇成为世界文明发展进程的必然趋向，这就要求当下文化自觉的重要内容必然包括对本民族文化的自信、对异质文化的尊重、对多元文化的包容。简要来讲，包含：第一，在全球化的演变进程中，要充分发掘本民族传统文化对现代社会有重要精神价值的组成部分，自觉呈现民族文化中有普适意义的蕴含内容，并让其新的场域中不断衍进、扩散、共享；第二，注重理解和诠释异质文化中的先进内容和核心精髓，并能够针对社会实践需要，相互借鉴，自觉吸收异质文化中的优秀部分，运用到本民族的文化遗产与发展中来，在多元并存的文化生态中自觉观照、相互融汇和整合转型，增强自身文化力量，形成全人类和谐共生的文化理念；第三，在本民族传统文化与外来文化的相互交流、对话、共享、互利、鉴别的过程中，自觉进行文化创新，发现文化系统中新涌现的有价值的文化要素，积极推进文化建设与发展。

中国历史上虽经战乱迷迭，朝代断续，但文化自觉的意识与行为依然薪火相传，从战国时代的百家争鸣到五·四新文化运动，再到中国共产党提出的“复兴伟大的中华文明”的价值实践和“将传统文化当做独特战略资源”的具体举措，甚至是国内学界对中国现代化转型进程中出现的复杂问题的批判性反思都是文化自觉的具体呈现和典型表征，反映了当代中国文化自觉意识的觉醒，也是中国文化自觉的符号具化。反观西方文化，其借文化全球化的浪潮已形成了一种视其他异质文化为他者的狭隘的主体思维模式，并在自我想像与战略设计中逐步固化了全球化就是西方化的定论，很大程度上为文化的误读和文明的冲突不可避免的言论起到了推波助澜的作用，给世界文化秩序造成了混乱和动荡。

面对西方文化的扩张，中国应保持理性的批判精神和冷静的距离意识，即既正确认识西方文化中的优秀特质和文化多元化的大趋势，又坚持本国文化建设的民族特色，不断延续和努力创建新的民族精神；既不闭关锁国，修筑文化围墙，以民族意识拒异质文化于国门之外，又旗帜鲜明

* 本文系国家社科基金一般规划项目“中国文化走出去的策略与路径创新思考”（项目编号：13BSH043）的阶段性研究成果。

地让中国文化走向世界，传播我们的民族先进文化和独特精神价值，展示中国的大国形象，为全球文化的多元共生、互补共荣贡献力量，实现人类文化共同体的平等对话与交流。因此，全球化语境下中国文化的域外传播，重构大国形象是其目的之一，也是新形势下中华民族文化自觉的主体担当和重要表现。

二

所谓国家形象，从传播学的角度看，指的是在世界各国的媒介宣传报道中，媒介所反映和建构出来的一个国家的形象。这说明国家形象主要是通过国家的传播媒介（包括本国和国外的主流传播媒介）展现出来的，它是国家对外交往中呈现的身份标签，也是他国在国际社会中对本国的镜像认定和客观评价。中国目前在国际交往中展示的是一个历史久远、生机勃勃、负责任、有担当的东方大国形象，这意味着中国在国际上要承担更多的主体责任，在国际社会中有更好的表现，其中一个主要的标志就是中国国际话语权的提升。但是，西方社会刻意塑造的他者形象和妖魔化中国的意识框架仍然对中国国家形象造成了不小的负面影响。二十一世纪以来，中国综合国力的增强提升了中国的国际地位，使得中国的大国身份得到了国际社会的充分认同；中美关系由僵化对抗走向理性对话，客观上改变了美国对中国的态度；好莱坞宣传策略由政治化向商业化的转变，全球化背景下的共同市场成为其生存与发展的目标诉求，这些因素使得中国国家形象逐渐摆脱了早期的被他者化和冷战时期被妖魔化的窠臼。然而，美国电影中的中国人物形象仍然处于西方观众兴趣关注的边缘地带，其对中国人物形象的塑造也还存在一定的主观想象和有意扭曲。这实际上也反映了美国媒体对中国国家形象的一种集体认知。要改变这种不利的地位，不能仅靠各种传媒工具组合起来宣传国家形象，而应采取主动姿态让中国文化传播出去，让国际社会了解、欣赏、认同中国文化，使得中国文化的全球化与西方文化的全球化形成良性互动，才能有效避免亨廷顿所指称的文明冲突和文化战争，重塑中国的大国形象。

故此，中国文化的域外传播就是对中国国家形象的一种具象输出和媒体呈现，因为国家形象塑造的过程离不开以文化为内容的媒介信息传播。从提升软实力的角度说，传播文化可以增加一国的影响力。在学术思想为国家战略提供养分的思路指导下，约瑟夫·奈强调，一个国家的文化能够在全球流行传播，并且在国际社会已经建立了有利于自己的言语行为准则以及主导制定、修改这些准则的能力，都是不容忽视的、重要的国家力量。中国要在国际上重塑正面、积极、负责任、有担当的大国形象，就必然要传播优秀民族文化，丰富世界文化生态，进而增加中国在国际社会的吸引力和感召力。

中国文化的博大精深、层面丰富的内部结构与国外文化消费者的阶层化和诉求多样化都使得我们重新关注文化分层建构与存在的这一经典理论主线对现实的观照作用。因此，在传播中国文化、重塑中国大国形象的过程中我们认为文化的分层化存在是一个需要重新归因和深入分析的问题，换言之，中国文化在域外的分层传播可能是有效提升中国国家形象的一个重要抓手。

三

文化的分层实际上是文化全球化背景下文化与其他社会场域，如政治、军事、科技、信息传播等日渐交往发展的一个时代特征。这种分层也体现了一种文化流变，即基辛所诠释的，一个既成的文化体系也不是一成不变的，它的内部可能经常会出现文化发展方向性的转变及各种形态的流变，这会冲击到文化本身的稳定和恒常，包括人们已经形成并固化的价值观念、宗教信仰、生活准则等等。民族文化体系内的这种流变受到各种社会思潮（如后现代哲学、后殖民理论、文化本质主义等）的影响，又在消费社会的全球化衍进中迷失方向和发生嬗变。多因素共振下的这种文化的时代裂变打破了文化固有的传承与延续的稳定性，造成了传统文化的悬搁，全球化与现代化格局又进一步压迫了本土文化传承递延的空间。这说明，文化分层既是现实存在的，又受到全球化生态的影响而加剧。这种分层造成的区隔会割裂民族文化的整体性与系统性，形塑不同的言

语行为主体和交往语境。而全球化促进下的文化的迁移、文化的涵化和文化的融汇则使文化超越、模糊和混杂各种民族文化的界限，形构新的消费文化类型。

布尔迪厄对文化分层的论述依然是设定在其文化资本的话语框架之内的。他强调，相关的文化意蕴概念都可以简化为一个词即品味，品味是文化分层中的核心概念和主要区分指标，与生活方式、文化鉴赏能力、思想观念等文化资本具有高关联性。他指称品味表现为阶级的一种偏好或能力，构成其生活方式的有效法则，是一种把自我本体与其他人或其他群体区别开来的偏好。基于不同群体品味的差异，他将社会划分为三个不同的阶级：上层阶级（支配阶级或资产阶级）、中间阶级（中产阶级）、下层阶级（劳动阶级）。他认为，三个阶级各固有着不同的品味，且在日常生活中不断强化品味的差异而将彼此区隔开来。他的文化分层理论强调了自我的基模性和群体的排异性。由此，归属于不同阶级的群体为了维护自己阶层的稳定性和排他性，不断创造着本阶层特有的文化，形成了一种文化再生产的模式，彰显着群体自身独特的品味标志，从而与其他群体划清疆域。同时，品味不仅是现实阶级存在与划分的标志和象征，而且会递延到阶级的后代，保持基本的连续性和完整性。总之，社会中的文化分层表现为不同群体对资本，尤其是对文化资本的占有、积累、传承情况的不同，而这也是文化再生产的必然结果。

马克斯·韦伯则是从另外的立场和视角来阐释文化分层的现实意义的。对于他来说，文化分层才是人类社会的本质。文化分层决定经济分层和政治分层的形成。人们可以根据一个人在社会精神交往活动中的声望来评判其身份地位；其次，经济分层和政治分层只是社会分层的表象，随着社会的进步，经济与政治的分层会逐渐向文化的分层靠近。那些拥有大量财富和掌握核心权力的人总是为自己披上文化的高雅外衣，在公众面前宣示自己的文化品位，以掩饰自己徒有财富和权力却欠缺文化涵养的人格短板。因此，韦伯认为，在经济、政治和文化这三组分级制度中文化才是根本和目的，围绕着文化分层人类不仅构建了日常生活的言语行为框架，而且也推动了历史社会的不断发展。

四

透过比较研究的模式与视野，我们发现，在19世纪西学东渐过程中，西方文化对古老华夏的传播就是沿着这种文化分层的脉络逐渐推进，在针对性明确的浸染、渗透之后，以其现代性科学和教育话语取代了中国传统学术话语，完成了西学对国学场域的最后覆盖和占领。一般认为，宋明以后，中国社会阶层以文化为分野形成了三层清晰架构，一是以官员、士大夫为代表的文化精英层；二是以城镇市民为主体的市井文化层，三是以广大农村为表征符号的民间文化层。这三层文化圈在面对外来文化渗透的局面时表现出不同的抗拒与接受的差异。面对殖民主义的武力攻势和异质文明的巨大冲击，以魏源、林则徐为代表的经世派官员提出师夷长技以制夷，并试图通过对西方文明中先进部分的学习，寻找民富国强的理论源头。与官绅士人思想激荡、步履拖沓的艰难转变相比，广大农民接受西方文明的心理负担要轻得多，奇技淫巧的洋货和教会提供的免费教育很快就使中国农村跨越了中西文化的道德界限。随着越来越多市民对西方文明的积极反应，本地官商士绅感受到了一种无形的压力与威胁，也加快了接受西学的步伐。在学习、接受西方文化的各个历史阶段上，中国社会具有不同观念、规范、诉求、功能的各阶层文化群体，发生了不同的反应和呈现出了不同的传播效果。西学东渐作为外来文化传播与本位文化接受的统一过程，就是在这些彼此犹豫彷徨、交相潜移默化的多主体互动关系影响下曲折发展的。通过对19世纪西方文化传播至中国社会的历史分析，可以一窥西方文化分层输出的套路和范式，其不同的传播路径选择为中国大国形象重构的文化传播策略提供了前在影响和经验参考，结合文化分层的理论观照和中国目前文化自觉的建设现状，则可以为中国文化在域外的分层传播预设思考框架和描摹理论图式。

从另一方面看，在欧洲汉学研究视角之下对近代东学西渐的历史镜像进行考察也有助于现今当下中国重塑其大国形象的路径设计与策略反思。从元代开始的500多年间，不少西方传教士、旅

行家、外交使节、贸易商队远涉重洋、跨越千山来到中国撰写了大量有关中国的游记并广泛传播，其中以马可·波罗为典型代表，并逐渐形成了一支文化散播队伍，或云域外的中国话语阶层，包括门多萨、康德、尼采、哥德、伏尔泰等。总的来看，传教士对中国文化在欧洲传播起了重要的作用，但是，他们不是受过严格训练的专业学者，因而显得不够系统和严谨。18-19世纪真正对中国文化感兴趣的汉学家才是研究并推动中国文化在西方传播的主要力量，如马礼逊、理雅各、卫三畏、威廉·绍特等。他们的研究与译介使西方社会对中国文化包括中国传统宗教有了崭新的认识，还带动了当时其他学者翻译了很多道教、儒教、佛教文献等中华传统典籍。总之，那时的西方社会对中国文化的关注和接受具有以下特点：一是从文化分层来看，西方学术知识界是认知中国文化的拓荒者和主力军，其他社会群体则相对滞后；二是此前完整而全面的汉学研究为这种认知和传播打下了基础；三是西方社会并不是对中国文化不分轩輊地全盘接受，而是汲取其精华，从异质文化中寻找弥补自身不足、以求进一步发展的养分。可见，从历史经验来看，西方的文化知识界对中国传统文化是比较关注的，而普通民众和政治官僚阶层则另有其感兴趣的异质文化需求。

五

从文化分层理论和传播的时空脉络来看，新形势下中国文化的域外传播应从以下三个向度展开：

首先，中国的传统文化是中国文化域外传播的第一个指涉对象。中国传统文化的核心价值观念不仅吸引着国外汉学家孜孜以求、直情径行，而且还能为世界进入后现代社会的走向及全人类的福祉提供思想源泉。有学者认为，中国传统文化中具有时代魅力的价值观念体现在三个方面：一是强调万物有机联系的和谐思想。二是恪守规范的中庸之道，即遵守既定的标准，既反对高调冒进，又轻鄙躲避退缩。三是作为礼乐文明重要标准的仁爱思想。仁爱思想也比较接近于后现代主义的建设性立场，从而使西方工业化社会的后现代转向具有了东方文化的影响和观照。

其次，中国文化的域外分层传播在指向国外精英受众的同时，还要借助于国外大众的认同度和解释力。前述西学东渐中清政府的官员士绅迫于普通民众对西方文明的认知与接受的压力，慢慢开始接触和接受西方文化，这一历史经验表明，大众文化也是中国文化传播的重要内容。并且中国的大众文化的发展后来居上，已经形成了自己的系统风格和固定市场，与主流文化、高雅文化鼎足而三。另外，中国大众文化的域外传播，也是对西方通俗文化输出与渗透的回应与交流，应该成为中国文化分层传播的重要内容。如中国饮食文化在国际上具有极大影响力，成为塑造中国美食大国正面形象的重要推手，它跨越国家、民族的疆域，消弭意识形态的界限，具有的大众性和普适性，符合民众的消费心理和现实诉求，作为一种易于接受、确凿有效的传播方式，它所蕴含的文化价值观对在国际社会中树立全面而真实的中国形象，增强中国文化的国际影响力发挥了独特、持久、难以替代的作用。

第三，中国文化的对外分层传播中还应重视与西方政界进行政治文化交流。总体来讲，政治文化是社会总体文化下属的一种亚文化，其概念边界具有一种模糊性和混杂性，殊难给出一个精准的定义。但是，不管国内外的学者对政治文化的定义归纳指称是处于何种立场、从哪个角度，意识形态都是他们描述的一种共性，因为意识形态本身是一种由政治思想家总结的存在于人类社会各个场域的主观意识的集合，它是政治文化体系中的一个核心范畴。文化作为人类精神活动的产物，它必然蕴含着意识形态，文化与意识形态是一种相互交融的伴生关系。中国与西方在社会制度和政治思想上存在的鸿沟。在过去的中西文化交流中，政治文化的交流几乎一片空白。但随着西方现代性模式在全球扩张，世界上也出现了许多西方社会制度和政治思想无法解决的复杂问题，这些问题已经超越了社会制度的歧异和意识形态的区隔，关系到全人类的根本利益和共同命运，需要全世界各民族站在命运共同体的立场上去考虑问题。这就提供了一个中国与西方国家可以在共同关注的人类问题上，在共同利益搭建的平台上，平等、平和、平衡地进行政治文化交流



，互相取长补短，互帮互助，协商解决面临的问题和危机的可能。另一方面，中西意识形态的差距有日渐扩大的态势，因为以美国为代表的西方国家借文化全球化的扩张不断地对中国及其他发展中国家输出西方意识形态。中国需要通过挖掘、深化、加固、增强有中国特色的政治文化内涵，对内强化中国社会核心价值体系的吸引力和感召力，对外积极正确应对西方这种单向度的政治文化浸染与渗透，加强建构和不断提升中国的国际话语权，努力增进世界上其他国家对我国政策国情、价值体系、发展模式、历史文化的了解和认识，展示中国作为文明、民主、富强、开放、包容、进步的东方大国形象。

我们要传播出去的中国政治文化的表征和内涵，概括地说，应该具有如下基本特征：一是这种政治文化是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事业的有机组成部分，它的内容和目的从根本上来讲要服从和服务于国家的总体战略和改革开放、和谐社会建设的大局，服从和服务于全面建成小康社会和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宏伟蓝图。二是这种政治文化从总体上要顺应世界和平、发展的时代潮流，积极参与国际事务，促进共同繁荣，为全人类的福祉做出贡献。三是向全世界展示中国人民团结统一、爱好和平、勤劳勇敢、自强不息的伟大民族精神，解读我国包容性崛起过程中的和平愿望、大同理想、善意举措，宣传我国一直奉行的独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与所有国家友好交往互利合作、主动推进和谐世界建设的愿景。

马来西亚与中国的民间教育往来对华文教育的发展与影响

潘碧丝、朱锦芳（马来亚大学中国研究所）

1、前言

马来西亚与中国在历史、经济、政治等等各方面都有着千丝万缕的关系。19世纪至20世纪初的中国“下南洋”移民潮，当时的马来亚就是许多中国子民的目的地。后来，有的就在此落地生根，有的则回归祖国原乡。留下的中国子民，本着中华文化重视教育的传统思想，纷纷在居住地或聚集地兴办教育。从私塾授课到建校办学，从民间活动到进入国家教育体系，规模日趋壮大，教育体系也趋于完善，成为除中港台之外，最大的中文教育基地。1980年代，当中国实施改革开放政策，庞大的市场吸引着全球目光时，中国也在寻找海外的经济市场。对于中国而言，同本同根、文化语言相通且熟悉马来西亚国情的当地华人，无疑是最适合担任马来西亚与中国之间的沟通桥梁。

时至今日，中国成为世界第二大经济体以及最大的贸易出口国。在展现其经济实力的同时，也大力发展和推广其软实力，让世界了解中国，借以消除对她这个共产主义国家的偏见和负面的看法。因此，教育领域就担当起了重要的角色。通过学习中文，中华文化的思想与内涵也更被世界所熟悉。也正因为语言文化和思想内涵得以无缝结合，马来西亚华人在中国崛起的大环境之下，占尽了天时地利人和。

2、马来西亚与中国教育往来背景

1974年，马来西亚与中国正式建交，成为冷战时期以后，第一个与中国建交的东盟国家。1980年代，由邓小平倡导的改革开放政策实施以后，马中两国在政治、经济、旅游等领域都频繁互动，双边贸易往来逐年增长。相对而言，因马来西亚的教育政策以及马共敏感等问题，教育领域并未掀起太大的热潮。1990年，时任中国国家教育委员会副主任滕藤访问马来西亚，象征了两国教育领域的官方正式往来。此后，两国的教育往来频繁，不过较多注重在师资的培训和学术交流，学生层面的交流并不普遍。而中国高校也开始进入马来西亚进行推广、介绍和招生等工作，同时进行考察。一些与东南亚华人关系密切的南方高校如广州暨南大学和福建华侨大学先后在1993年到马来西亚招生，并且承认独中统考文凭。但是，由于马中两国并没有签署任何教育合作协议，再加上签证的受限，赴中国留学的人数并不太多，而且仅参与短期课程或培训。1995年，中国国务院颁布《中外合作办学暂行办法》，正式开展中国与外国的教育合作服务。两年后，马中两国签署《中华人民共和国和马来西亚政府教育合作谅解备忘录》，为两国教育领域的合作打开了方便之门。

11两国教育关系正常化以后，互往对方国家留学的学生人数也逐年增加。2001年，在马的中国留学生人数有4,837人，而后两年人数直接突破万人，达10,849人和10,349人。中国也在2001年加入世界贸易组织（WTO），更加深入地融入全球化的经济发展

。随着全面开放门户的发展进程，越来越多中国学生到国外留学。马来西亚在地理环境的优势、以相对廉宜的学费获得欧美高校的学历学位以及优惠留学生的政策等等的条件之下，成为中国学生在东南亚主要的留学目的地。2010年，中国留学生人数首次超越印尼，位列留学生排行榜第二位，成为了马来西亚主要的留学生源国之一。马来西亚政府在教育协议签署以后，放宽了到中国的签证申请，因此留学中国的马来西亚学生逐渐增多，人数从2003年的841人增加至2015年的6,650人。

11教育领域的良好发展，两国领导人提出更高层次的合作，即双方互相承认学位和学历。学位与学历的互认并不是一件易事，其中涉及的许多问题如教育制度差异、政府认证与管理单位的体制和两国官员的跟进与态度，令协商进度停停顿顿。从倡议的提出到协议的真正落实和签署，共历时11年之久。2011年4月下旬，时任中国国家总理温家宝官访马来西亚，于吉隆坡签署《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马来西亚政府高等教育机构学位与学历互认架构协议》。协议中，中国将承认所有受马来西亚政府承认的教育机构，同样地马来西亚政府也将承认所有受中国政府承认的教育机构，获承认的学位与学历仅限学士学位，专业执照则需按所在国的法律行事。协议达成后，第一批获承认的大学：中国146所，马来西亚64所。次年6月，中国大学增至820所。目前，中国政府承认的马来西亚大学与大学学院共76所，中国大学的数量则维持不变。

随着中国成为世界第二大经济体以及最大的贸易出口国，马来西亚政府出于培养汉语人才的目的，派遣200名获得公共服务局奖学金资助的学生到北京外国语大学学习汉语。与此同时，中国政府也提供许多来华学习的奖学金如中国政府奖学金、孔子学院奖学金、省级奖学金等等，吸引外来人才。这对马来西亚华社而言，无疑是一大利好消息。当没有了经济上的障碍以后，越来越多马来西亚学子到中国留学，而这些留学归国的学子也直接或间接地起了宣传的作用，影响着后辈们到中国留学。加之越来越多的中国高校到马来西亚招生，对优秀学子提供优厚待遇，种种利好因素之下，马来西亚留学生人数逐年增长。

3、民间往来的各种活动

1969年的513事件以后，马来西亚的种族关系变得敏感和紧张。政府也在1970年代和1980年代间，陆续出台各种不利于华人利益的政策与条规。削弱华人经济发展的《新经济政策》、制约华人文化自由度的《国家文化政策》以及中学改制事件，使整个华社处于沉重压力的状态。但是，华社也并未因此对华文教育和传统文化做出让步，全华社上下团结一心，维护民族权益。华社群策群力资助不肯接受政府改制的中学转变为独立中学，华人父母纷纷将子女送入独中就读，以示支持。筹办全国华人文化节，设立华社研究中心以及举办一连串的复兴文化运动，借以推广中华传统文化。当时，马来西亚华社致力于建立从义务教育到高等教育的完善华文教育体系。南洋大学被关闭及独立大学不获准办学相继发生以后，再加上前往中国的升学之路又尚未开通，学子们的唯一出路便是到台湾升学。然而，昂贵的留学费用也让许多学子望而却步，造成华文教育无法往更高水平发展。1990年代，马来西亚的政治情况正处于“小开放”时期，马中之间的教育往来，也因“历史留下的问题”得以解决而开始开展，中国留学之路也初见曙光。

1中国的崛起对华社而言，无疑是使华文教育进一步发展的契机。对于中国释出的合作意图，华社抱有正面的态度。中国与华社之间的教育往来对象主要是教育机构以及民间组织。初始，碍于两国间尚未有正式的官方协议，双方大多以考察和探访的名义进行互访。1997年的教育协议正式签署以后，双方的联系紧密而且合作频繁，开展了许多惠及全华社的活动与项目。华社分别在1990年、1998年和1999年创办南方学院（2012年升格为大学学院）、新纪元学院和韩江学院（2014年升格为大学学院，全称韩江传媒大学学院），提供优质但学费廉宜的高等教育，解决贫寒学子无法出国继续深造的问题。这三所民办高校在不同程度上与中国的政府和民间组织维系着友好的关系。华社向中国高校取经，借鉴和学习办学的方式与经验，中国高校方面也本着弘扬中华文化和协助海外华文教育发展的精神提供资源，其中中文系与中国高校的关系最有渊源，比如韩江学院中文系的创立就获得了南京大学的鼎力协助，其架构、学制、课程与教学大纲均由南京大学协助规划。

为了加强教学的质量，本地高校与中国高校在多个专业课程都有双联合作。新纪元学院的中国语言文学系（中文系）与浙江大学有双联的2+2学分转移学士课程的合作。南方大学学院与中国高校的合作有：与华中师范大学开展课程与教学论硕士课程；与华侨大学联办哲学硕士班；与天津中医药大学联合培养3+2中医本科生；与广西右江民族医学院联办西医课程；与海南大学联办旅游管理硕士专业学位课程。韩江大学学院则陆续与清华大学、上海大学、扬州大学等数十所高校开展了本科及硕士项目的合作，以及与同济大学签署了本科学士学位转移学分的合作项目。

1除了常见的课程合作以外，中国官方单位和高校也直接与民间单位联合开展以培养和推广为目的的许多活动与项目。我们选取近年来较为大型的活动与项目，大致整理成以下几种：一、教师进修，比如北京市汉语国际推广中心与新纪元学院所举办的汉语教师培训班；二、学生游学，比如马来西亚留华同学会与中国海外交流协会联合主办的2016年海外华裔青少年“中国寻根之旅”冬令营系列（福建、湖南、山东）；三、项目推广，比如马来西亚华校董事联合会总会（董总）与中国国家汉办《国家汉语教师证书》认证考试培训中心和北京师范大学陕西分中心所举办的《国家汉语教师证书》认证考试推广；四、科研考察，比如南方大学学院主办的“马来西亚南方大学学院，中国教育访问团”等。

1、文化软实力对华文教育的影响

中国的改革开放，将庞大的人力资源和消费市场投入到世界的格局中。一方面发展硬实力的同时，中国文化软实力也作为另一条发展主线，持续发挥其影响力。语言作为文化的承载媒介，对于汉语的全球化推广，中国投入了大量的人力以及资源。例如，直属中国教育部的国家汉办就是为推广汉语而成立的专门机构，其宗旨是“1致力于为世界各国提供汉语言文化的教学资源和服务，最大限度地满足海外汉语学习者的需求”。它其下的孔子学院更是直接面向海外的汉语以及汉文化推广的第一线单位¹，截至2015年

12月1日为止,在全球134个国家和地区已经建立500所孔子学院和1000个孔子课堂。根据《文化建设蓝皮书·中国文化发展报告(2015-2016)》,孔子学院已经成为了汉语推广和体现中国“软实力”的文化品牌。

汉语走向国际化对马来西亚华社而言,这是带领华文教育往更高阶段发展的契机。随着来自中国的资源投入,华文教育犹如“久旱逢甘霖”般得到滋养,带来了前所未有的变化与影响。总体上有以下几点:

1. 提高教师教学的素质

马来西亚华文教育被称为是除中港台以外,最为完善的中文教育体系,但美名之下的真实情况,却是语音、语言本体知识等方面专业性的不足。首先,马来西亚是一个多语言并存的国家,在这样一个语言竞争的大环境之下,华人首先考量的是让华语生存下去,因此使用率和普及范围成为了华社发展华文教育的重点所在,而关乎语言本体质量的专门方面也就只能退居次要的地位了。再者,本地缺乏相关的专业人才和正规的培训机构,加上教师的行政工作繁重,要想在课余时间接受专业的训练,实在是心有余而力不足。外部条件加上内部原因的限制,造成全马各地华文教师能力参差不齐的情况。当来自中国的“外援”进入马来西亚以后,之前所面对的问题都引刃而解。教师接受专业培训,除了个人能力的提升外,也将间接地提高教学的质量。

2. 华文学校(华校)受到青睐

11近年来,城市地区的华文小学(华小)都面临学生爆满的问题,父母甚至需要漏夜排队获得新生入学名额。形成这一现象的原因在于中国经济腾飞使汉语(华语)的价值水涨船高,马来西亚华校受到非华裔父母的青睐,纷纷将孩子送入华校就读。数据显示,2010年全马来西亚华小就读的非华裔学生人数多达72,443人,2014年增加至87,463人,短短5年间增加15,020人。这显示华小的办学方针受到别的民族的认可,基本确定了华小生源的可持续发展。许多父母将孩子送入华小就读,抱持的观念是让孩子学习华语,提高社会竞争能力。

3. 促进华语作为第二语言(二语)教学的发展

华语作为第二语言教学在马来西亚历史悠久,最早可以追溯到500多年前的马六甲王朝时期(当时中国正处于明朝时期)。尽管第二语言学习早已扎根于马来西亚,但二语教学的概念与理论并未获得太大的关注,也没有发展出任何二语教学的理论。一些有经验的教师或许在长期的教学中积累出一套教学方式,但无法起到规范的作用。中文教师对于“母语教学”和“二语教学”没有清晰的概念,常将母语的教学方式用在二语教学中。全球汉语热的到来,使二语教学成为炙手可热的新兴学科,中国学者引进西方国家的语言理论,参考英语作为二语教学的模式发展出了许多教学理论。马来西亚引进中国二语习得的教学概念和理论,系统化且专业化地解决“怎么教”和“教什么”的问题。

4. 政府态度的软化与人才培养

1马来西亚政府始终没有放弃《拉萨报告书》中的“最终目标”,认为实现只以马来语为教学媒介语的单一源流学校才能让各民族团结。华社对华文教育的坚持不



让步，常被认为只是为了民族自身利益着想的单纯坚持，是阻碍国民团结的绊脚石。所以，当中国崛起成为世界经济的火车头，这个强而有力的“外援”，就让政府看到了华语所能够带来的实质性经济利益，对华文教育的态度也稍有软化。2009年，中国首次成为马来西亚最大贸易伙伴国；2015年，马来西亚是中国在全球的第六大贸易伙伴国。马来西亚除了是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亚投行，AIIB）的创始成员国外，同时也是“一带一路”的沿线国家之一。如此紧密的经济往来，使得能说中文以及了解两国文化的人才是市场所迫切需要的。政府通过孔子学院或当地培训机构，组织官员学习华语。另外，也与北京外国语大学合作，培养专业中文人才。华社方面也趁着这个好时机不遗余力地加强华文教育向外发展。以新纪元学院为例，该院长期帮助印尼华社恢复华文教育。素有马来西亚民间教育部之称的董教总，也致力于将马来西亚打造成域内最好的中文教育中心。华文教育将成为国家经济发展的最强助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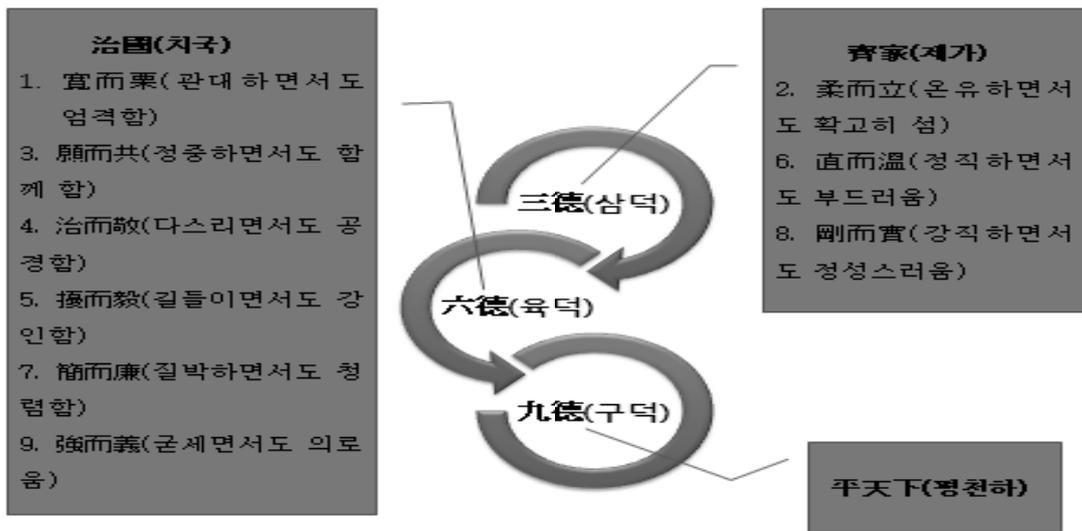
五、结语

中国加大力度发展文化软实力，使汉语国际化，而且成为重要的经济使用语。这给始终坚持华文教育的马来西亚华社，提供了更大的前进动力。双方都是双赢的。然而二语教育的蓬勃情况，却给华文教育教育工作者带来一定的隐忧。无论如何，我们认为总体而言还是利大于弊的。

孔子的‘中’與‘和’之修辭學

仁川大學校 安性栽

皋陶曰：“都！亦行有九德。亦言，其人有德，乃言曰，載采采。”禹曰：“何？”皋陶曰：“寬而栗，柔而立，愿而恭，亂而敬，擾而毅，直而溫，簡而廉，剛而塞，彊而義。彰厥有常，吉哉！日宣三德，夙夜浚明，有家。日嚴祗敬六德，亮采，有邦。翁受敷施，九德咸事，俊乂在官，百僚師師。百工惟時，撫于五辰，庶績其凝。” [尚書] <皋陶謨>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禮記] <中庸>

子曰：“參乎，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門人問曰：“何謂也？” 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 [論語] <里仁>

忠: [左傳] <昭公 28年> 魏獻子 叔向 饒蔑

恕: [孟子] <離婁> 禹稷顏子易地，則皆然。

忠恕違道不遠，施諸己而不願，亦勿施於人。 [禮記] <中庸>

1. 中: 客觀, 公正

中者，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庸，平常也。 [禮記] <中庸·序>

君子依乎中庸，遯世不見知而不悔，唯聖者能之。 [禮記] <中庸>

子曰：“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 [論語] <爲政>

愛而知其惡，憎而知其善。 [禮記] <曲禮上>

子曰：“管仲之器小哉。” 或曰：“管仲儉乎？” 曰：“管氏有三歸，官事不攝，焉得儉？” 然則管仲知

禮乎?" 曰: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邦君爲兩君之好有反玷, 管氏亦有反玷。管氏而知禮, 孰不知禮?" [論語] <八佾>

或問子產。子曰: "惠人也。" 問子西。曰: "彼哉, 彼哉。" 問管仲。曰: "人也。奪伯氏駢邑三百, 飯疏食, 沒齒無怨言。" [論語] <憲問>

在上位不陵下, 在下位不援上, 正己而不求於人則無怨, 上不怨天, 下不尤人。 [禮記] <中庸>

高辛生而神靈, 自言其名。普施利物, 不於其身。聰以知遠, 明以察微。順天之義, 知民之急。仁而威, 惠而信, 脩身而天下服。取地之財而節用之, 撫教萬民而利誨之, 曆日月而迎送之, 明鬼神而敬事之。其色郁郁, 其德嶷嶷。其動也時, 其服也土。帝嘗溉執中而遍天下, 日月所照, 風雨所至, 莫不從服。 [史記] <五帝本紀>

帝曰: "來, 禹! 降水傲予, 成允成功, 惟汝賢。克勤于邦, 克儉于家, 不自滿假, 惟汝賢。汝惟不矜, 天下莫與汝爭能。汝惟不伐, 天下莫與汝爭功。予懋乃德, 嘉乃丕績, 天之歷數在汝躬, 汝終陟元后。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無稽之言勿聽, 弗詢之謀勿庸。可愛非君? 可畏非民? 衆非元后, 何戴? 后非衆, 罔與守邦。欽哉! 慎乃有位, 敬修其可願, 四海困窮, 天祿永終。惟口出好興戎, 朕言不再。" [尚書] <大禹謨>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禮記] <中庸>

帝曰: "(省略) 予懋乃德, 嘉乃丕績, 天之歷數在汝躬, 汝終陟元后。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尚書] <大禹謨>

"佑賢輔德, 顯忠遂良, 兼弱攻昧, 取亂侮亡, 推亡固存, 邦乃其昌。德日新, 萬邦惟懷, 志自滿, 九族乃離, 王懋昭大德, 建中于民。" [尚書] <仲虺之誥>

王曰: "君陳, 爾惟弘周公丕訓, 無依勢作威, 無倚法以削。寬而有制, 從容以和。殷民在辟, 予曰辟, 爾惟勿辟, 予曰宥, 爾惟勿宥, 惟厥中。" [尚書] <君陳>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 [尚書] <洪範>

佑賢輔德, 顯忠遂良, 兼弱攻昧, 取亂侮亡, 推亡固存, 邦乃其昌。德日新, 萬邦惟懷, 志自滿, 九族乃離, 王懋昭大德, 建中于民。以義制事, 以禮制心, 垂裕後昆。予聞曰, 能自得師者王, 謂人莫己若者亡, 好問則裕, 自用則小。嗚呼! 慎厥終, 惟其始, 殖有禮, 覆昏暴。欽崇天道, 永保天命。 [尚書] <仲虺之誥>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子曰: "與之釜。" 請益。曰: "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子曰: "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吾聞之也, 君子周急, 不繼富。" 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 辭。子曰: "毋。以與爾鄰里鄉黨乎。" [論語] <雍也>

2. 和: 相生, 共生與和諧

孔子曰: "求! 君子, 疾夫舍曰欲之而必爲之辭。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夫如是, 故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既來之, 則安之。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於邦內。吾恐季孫之憂, 不在顛隕, 而在蕭牆之內也。" [論語] <季氏>

陳子禽謂子貢曰：“子爲恭也，仲尼豈賢於子乎？”子貢曰：“君子，一言以爲知，一言以爲不知，言不可不慎也！夫子之不可及也，猶天之不可階而升也。夫子之得邦家者，所謂立之斯立，道之斯行，綏之斯來，動之斯和。其生也，榮；其死也，哀，如之何其可及也？”[論語] <子張>

帝堯者，放勳。其仁如天，其知如神。就之如日，望之如雲。富而不驕，貴而不舒。(省略) 能明馴德，以親九族。九族既睦，便章百姓。百姓昭明，合和萬國。[史記] <五帝本紀>

堯曰：“嗟！四嶽：朕在位七十載，汝能庸命，踐朕位。”嶽應曰：“鄙德忝帝位。”堯曰：“悉舉貴戚及疏遠隱匿者。”衆皆言於堯曰：“有矜在民間，曰虞舜。”堯曰：“然，朕聞之。其何如？”嶽曰：“盲者子。父頑，母嚚，弟傲，能和以孝，烝烝治，不至奸。”堯曰：“吾其試哉。”於是堯妻之二女，觀其德於二女。[史記] <五帝本紀>

天敘有典，勅我五典五惇哉！天秩有禮，自我五禮有庸哉！同寅協恭和衷哉！天命有德，五服五章哉！天討有罪，五刑五用哉！政事，懋哉！懋哉！[尚書] <皋陶謨>

此二十二人鹹成厥功：皐陶爲大理，平，民各伏得其實；伯夷主禮，上下鹹讓；垂主工師，百工致功；益主虞，山澤辟；棄主稷，百穀時茂；契主司徒，百姓親和；龍主賓客，遠人至；十二牧行而九州莫敢辟違；(省略)。[史記] <五帝本紀>

舜曰：“然。以夔爲典樂，教稚子，直而溫，寬而栗，剛而毋虐，簡而毋傲；詩言意，歌長言，聲依永，律和聲，八音能諧，毋相奪倫，神人以和。”[史記] <五帝本紀>

禹曰：“于！帝念哉！德惟善政，政在養民。水、火、金、木、土、谷，惟修；正德、利用、厚生、惟和。”[尚書] <大禹謨>

周公曰：嗚呼！厥亦惟我周太王王季，克自抑畏。文王卑服卽康功田功，徽柔懿恭，懷保小民，惠鮮鰥寡。自朝至于日中昃，不遑暇食，用咸和萬民。文王不敢盤于遊田，以庶邦惟正之供，文王受命惟中身，厥享國五十年。周公曰，嗚呼。[尚書] <無逸>

王曰：“君陳，爾惟弘周公丕訓，無依勢作威，無倚法以削。寬而有制，從容以和。殷民在辟，予曰辟，爾惟勿辟，予曰宥，爾惟勿宥，惟厥中。”[尚書] <君陳>

既絀殷命，襲淮夷，歸在豐，作周官。興正禮樂，度制於是改，而民和睦，頌聲興。[史記] <周本紀>

穆王將征犬戎，祭公謀父諫曰：“不可。先王耀德不觀兵。夫兵戢而時動，動則威；觀則玩，玩則無震。(省略) 至于文王·武王，昭前之光明而加之以慈和，事神保民，無不欣喜。(省略) 布令陳辭而有不至，則增脩於德，無勤民於遠。是以近無不聽，遠無不服。(省略) 王遂征之，得四白狼四白鹿以歸。自是荒服者不至。[史記] <周本紀>

子曰：“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和。”[論語] <子路>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禮記] <中庸>

30后再论《穆斯林的葬礼》

穆罕默德·阿里 苏伊士运河大学

《穆斯林的葬礼》是当代回族作家霍达的力作，“真正执笔写作的时间只有四个半月，而前面的准备工作已经有几十年，可以说动用了我前半生所有的积累¹”，它是霍达长期游离于母族后自觉关照母族文化并以此为基点而在文学艺术追求中的一次跨越，标志着霍达小说创作的新突破和艺术的臻于成熟。霍达说：“我无意在作品中阐发什么主题，只是把心中要说的话说出来，别人怎么理解都可以¹”她曾在对小说的介绍中说过：“一个穆斯林家族，六十年间的兴衰，三代人民运的沉浮，两个发生在不同时代、有着不同形态却又交错扭结的爱情悲剧。…揭示了他们在华夏文化与伊斯兰文化的撞击和融合中的心路历程，以及在特定的时代氛围中对人生真谛的困惑和追求¹”

作品一出版就引起社会反响，许多评论家、学者和读者给予了很高的评价，冰心在这本书的序言中写到：“看了《穆斯林的葬礼》这本书，就如同走进了一个完全新奇的世界。书里每一个细节，我都很‘陌生’。…我觉得它是现代中国百花齐放的文坛上的一朵异卉奇花，挺然独立。它以独特的情节和风格，引起了轰动的效应¹。”

“大环境会影响文学创作的质与量，小环境的影响则更是直接而明显。一个作家的家庭背景与居住家室，是他最难摆脱的影响因素了。家庭环境对作家的影响，当然不只在创作一方面，而是在他的整个人格，一切活动¹”苏联学者赫拉普钦科说：“对艺术作品发生影响的不仅仅是被看到的東西，并且还有积极地被认识和被体会到的东西¹”，霍达受中华读书报采访时确定上述说的内容说：“所有的作家都是在写自己”，又说“文学作品来自生活，我当然会从生活中汲取素材”，再说“文学是社会生活在作家头脑中的反映，是作家对人生、对社会的观察与思辨。¹”

如前所述，我们就不得不先谈到作家背景，霍达“于1945年出生在一个回族家庭，北京人，并且一直住在北京，从未移居外地¹”，“是回族当中普通一员，一名虔诚的穆斯林¹”，她的家庭是个珠玉世家，1961年曾就读于解放军艺术学院学习话剧表演，后不久因患心脏病而不得不离开话剧舞台，之后就学习英语专业。成年后亲身经历了十年文革，她个人及周围人的苦痛的生存状态、生活境遇曾经历的困窘不可避免地在她的审美观念、悲剧意识形成的重要因素之一。

上世纪八十年代，文坛上掀起了一股名为“寻根”的文化思潮，文学寻根的提出，尤其现实的、历史的必然性和可能性，旨在寻找中华民族文化、文学乃至生命之根的一种文学现象，它以地域的历史文化特征、民族的原始生活形态或传统的精神价值为主要表现对象。寻根文学的主张主要有：其一，强调表现民俗；其二，强化民族意识；其三，强调地域特色。寻根文学的主要内容有：其一，寻找民族劣根性；其二，寻找民族前进的动力；其三，表现人生探索者的生命之根；其四，表现自然的人化和人的自然化。寻根文学立足现实，以民族的历史文化为背景，寻求民族文化的更新和变迁。

在内容上，《穆葬》延续了寻根文学的思路，表现回族人民的生活。一、在寻根文学思潮启发下，霍达将关注的目光投向自己的民族，去表达他们的生活，他们的精神世界，特别是他们与宗教紧密联系在一起的日常生活。二、揭示个体受制与文化的种种不自由，小说中构成人物悲剧命运的两个重要事件，一是韩子奇与梁冰玉的结合；二是韩新月与楚雁潮的相爱。由于梁冰玉与梁君壁是亲姐妹所以她与韩子奇的结合违反了《古兰经》禁止一个男人同时娶两姐妹的规定。而后者则是触犯了穆斯林不得与“卡斐尔”结婚的禁忌。霍达还描写了传统市民文化中门当户对的陈腐观念，对韩天星和容桂芳以及陈淑彦恋爱和婚姻的影响，直接导致了他们情感生活的不幸。

在寻根文学的基础上，霍达又开拓了新的领域，首先，虽然寻根文学反对当代文学传统中文学、政治二元对立的结构，但实际情况是政治对人的影响如同文化一样是客观存在的，霍达在小说中故事的发生、人物性格的形成与发展无不与当时的政治事件紧密相连，例如五四运动、第二次世界大战。其二，寻根文学大部分作家看传统文化是丑陋的，霍达对民族传统文化有着全面、清醒的把握，她沉潜到整个民族文化最核心的部分，透过表面纷繁杂乱的個人生活，寻找出他们骨子里的一致性。我们不妨说，霍达在借鉴寻根文学写作思路的基础上，继承他们成功的经验，也弥补了他们的不足，并超越其狭隘的一面，实现了自己的写作愿景。

霍达看来悲剧带来的审美容易造成人们心灵的痛苦和压抑，但灵魂的窒息中又是对人类精神境界的一种诗意地提升与升华，“我觉得人生在世应该做那样的人，即使一生中全是悲剧，也是幸运的，因为他毕竟完成了并非人人都能经历的对自已心灵的冶炼过程，他毕竟经历了并非人人都能经历的高洁，纯净的意境。人应该是这样的大写的‘人’¹”，正是由于对文艺悲剧精神的深刻把握，使《穆葬》中多了一份深沉的文艺悲剧气质，不仅体现在作者有意在名字上用心良苦“仅凭这个名字，就已经是他们看到了未来作品的模样：风度。气度，格调¹”更是在结尾上避免了中国传统文学的大团圆结局的教条束缚，怀着一种深沉的悲剧意识，注定了她只能以悲剧的格调来孕育和生产她的文艺生命。

《穆葬》中浸染着一种浓烈的悲剧色彩，以及强烈的悲剧意识下对文艺真正精神的自觉挖掘

，小说中的悲剧事件大体可以分作三类，一是爱情悲剧“两个发生在不同时代、有着不同形态却又交错扭结的爱情悲剧1”，主要采取的是两条线索来进行对比描写，一条线索主要以梁君壁和韩子奇的爱情为代表，另一条则以韩新月和楚雁潮的爱情为代表，中间穿插着梁冰玉、姑妈以及韩天星和陈淑彦等人的感情经历。

婚姻和家庭在伊斯兰教制度体系中占有核心的地位，主人公韩子奇和梁君壁的婚姻不能说存在多少爱情成份，而在一种特殊的环境下产生的，韩子奇出于对于师傅恩情的报答以及对玉的热爱，和梁君壁结合，应该说他们之间兄妹之情更甚。然而，冰玉是韩子奇看着长大的师妹，当他们初次相见时，他摸着玉儿的小手，后来又打破了那一只玉碗，或许这个结局作者早已为读者写定。带着对爱的渴望和追求，再加上战争所迫，韩子奇选择抛却妻子，带着爱情受伤的妻妹梁冰玉一同奔往玉的安全地带。在伦敦，他们一起度过了最美好的十年。于是，这场在时代变迁中诞生的爱情在强大的宗教势力前注定要成为悲剧。当他们回到自己的家，回到穆斯林的群里，悲剧开始上演，最终韩子奇选择了他视为生命的玉，也即婚姻，从而导致梁冰玉再度流落异国，韩新月从小失去生身母亲。

相比之下，韩新月和楚雁潮的爱情就比上一辈纯真执着得多。作为一对恋人的形象展现在读者面前的。他们分属两个不同的民族、信仰，面对来自母亲的责难，韩新月没有退缩，楚雁潮也没有。虽然他们的爱情是在韩新月的大病中才真正进入高潮，难免会给人一点遗憾，但是仅凭他们的真挚感人、自然朴素的爱情理想就足以弥补这个缺憾。韩新月最终怀着对爱的渴望、对爱的执著追求、怀着无限的爱恋和遗憾永远的去，留给了楚雁潮海一般的悲愤和痛苦。

韩子奇和梁冰玉的爱情悲剧与韩新月和楚雁潮的爱情悲剧有千丝万缕的联系，后者可以看作前者的继续。两者都是男女主人公对自由爱的权利受到韩太太身上所体现的阻止。另外，韩天星和容桂芳的爱情悲剧又是韩太太身上所体现的门户对立的势力观念酿成的。

二是社会悲剧，它是在个人与社会大环境的冲突中表现人物对正义和理想的不屈追求和献身精神。小说故事发生的时代对中国社会或世界环境而言，都属于变幻莫测的多事之秋。在这样一种极其复杂、恶劣的生存环境下，这个家族的三代人却始终不曾放弃找寻并努力实现自己的人生理想，正是这不息的奋斗与结局之间的巨大反差更进一步增强了小说震撼人心的悲剧力量。

第一代是梁亦清，尽管他只是一清贫的玉匠，但却把整个心血都扑在了琢玉上。玉器制作对他来说，不单是一种谋生的手段或一种机械的循环劳作，而是一种创造性的艺术。尤其在后来，为了给中国的穆斯林争口气，他以一个虔诚的伊斯兰教徒的顽强坚韧，倾注毕生心血雕出了独一无二的玉船，然而，就在完工的那一刻，在他的极度劳累中宝船功亏一篑，玉损带来的是人亡。

第二代是韩子奇，从开始痴迷上玉，到成为名震京城的“玉王”，是他彻底改变了玉匠们那用自己的劳动心血为别人创造财富的生活方式。韩子奇所追求的不仅仅是钱财，更是真正的玉的价值，也是人的自身价值。在他的眼里，玉是有生命的，所以他为了玉，不惜一切，最后，随着他视若生命的玉的失去，他的生命也走到了尽头。

第三代是韩新月，这位坚韧而执著的冰清玉洁的少女已完全从穆斯林家族中脱离开来。他努力进取，在家庭矛盾、感情纠葛、病魔缠身的重重压力下，仍然坚强地耕耘着自己的精神家园、追逐着自己的人生理想。在生命之火将灭之时，她还强撑着与楚雁潮合译鲁迅作品，为实现自己的理想作最后的努力。

虽然几代人在理想追求的道路上结局都不完美，作者更深刻的主旨是想通过笔下人物对理想和人生价值的追求来再现一种生命意识并启发读者的心灵。

三是命运悲剧，集中地表现了人类对人生意义的积极探索和在自身价值的实现中所显现的坚强性格和意志。梁亦清、韩子奇、梁冰玉、韩新月以及参与制造过悲剧的虔诚的梁君壁和文化精英楚雁潮，他们在积极探索人生意义和实现自身价值的过程中无不意识到、预感到失败、痛苦、不幸甚至死亡的必然性，但他们坚持以坚韧、坚强的意志突围。

梁冰玉经受了新思想、现代文化的洗礼，敢爱敢恨，当她的初恋以欺骗的方式结束，当她那段异国的爱情还没有开始，她在经历了这两场的爱情变故之后，她的心死了；战争过后，她与韩子奇的相爱结合；回国后，在姐姐的责备中，在韩子奇的畏缩和无奈中，她怀着无限的遗憾和伤痛远走他乡。她为了爱，轰轰烈烈的争取了，为了获得属于自己的幸福和未来，她以离开心爱的男人、心爱的女儿来以此抗争。

悲剧的精髓就在于张扬人类在非常时期所表现出的昂扬进取的积极本质和悲剧精神。它一方面表现个人在自然界和社会群体中最终意义上的微不足道，另一方面又显示出人在生存过程和争取自由中的蓬勃生命力。这样就能使读者感悟和体会了坚强不息的意志的悲壮和伟大，从而点燃心中潜存的超越和抗争的火种。

在华夏文化与伊斯兰文化、传统文化与现代文化、宗教与现实的冲突中，根据小说中人物用自己的方式与不可知的命运进行了复杂的较量，与时代的悲剧相呼应，在爱与恨、生与死等问题上做出了各不同相同的反应，体现出了种种相异的人格。作品中所塑造的人物形象大致可分为

传统文化型、传统文化向现代文化过度型以及现代化文化型等三种类型。

传统型人格主要体现在“玉器梁”梁亦清及其大女儿梁君璧的身上。老一辈玉器匠人梁亦清，是奇珍斋玉器作坊主人，他具有传统中国劳动者的特质，也有着穆斯林的特殊心理结构，即使人家靠他的手艺赚大钱也不抱怨，这是传统文化与穆斯林文化的双中烙印的存在。他并不以供家养口为满足，他自有建基于虔诚信仰之上的执着追求，这信仰和追求寄托在宝船《郑和航海图》的雕琢上，他说：“人，不能忘了祖先啊，冲他们，我也得豁上这条老命，做出宝船，让外国人也瞧瞧，中国的穆斯林对得起祖宗¹”。他的猝亡不仅是一个传统中国穆斯林个人的命运悲剧，也是那个年代资本倾轧、社会动乱的时代悲剧。

梁亦清的长女、韩子奇的妻子梁君璧这个文学形象是个比其父亲性格更为复杂、更加典型地体现了各种冲突的中国传统穆斯林。在她的一生中承担过多种角色，即使她在面临苦难的时候坚强勇敢，也使她在面临亲情与信仰、宗教与现实、回族文化与华夏文化相冲突时，做出了不近情理的决定，给身边的亲人造成了无法弥补的伤害。

作为女儿，她精明能干、孝顺勤俭，在父亲猝逝后，毅然担起办丧事的重任，在葬礼上大骂趁火打劫的仇人，毫不畏惧、也毫不屈服地说：“我爸爸可是为您死的，为您那宝船¹！”，这是一个勇敢坚强的女人。作为妻子，在丈夫成为“玉王”之前，她对丈夫、儿子的爱保留了一个传统女性的所有美好的特征。当丈夫成为名噪一时的“玉王”之后，并由于地位的变化、世事的磨练，家里的任何事情她都要掌握、家里的任何人的命运她都要操纵，当丈夫归来，女性性格不允许丈夫与别的女人有关的她，又由于宗教信仰和传统文化的多种因素的，她不能也不愿理解丈夫与妹妹的爱情；赶走冰玉，保住了韩太太的地位，是她刚强作风的体现。这结果在韩太太的心理留下了永远的创伤，是她在以后变成了一个控制欲极强的女人。而当面对新月，这个她名义上的女儿的时候，韩太太的心理是极为复杂的，她想起的是自己的妹妹，那个曾经抢走自己丈夫的人。

于是，韩子奇与梁冰玉、韩新月与楚雁潮两个发生在不同时代的两代人的爱情悲剧就是这样被梁君璧连接在了一起，她直接造成了他们的痛苦，自己也在痛苦中挣扎。她疼妹妹，爱丈夫，爱孩子，却只能让他们按照自己的方式去生活。

总的来看，韩太太是一个在宗教化与世俗化同时作用下而产生的悲剧性人物，她的思想观念后来有了改变和进步。她总显露着压人的气势，但其内心隐藏着一腔悲痛；她并不一定是一个坏人，但给人的感觉却是一个十足的坏人。她可敬、可悲、可爱、可恨，是一个虔诚而又愚昧的穆斯林，是一位《红楼梦》中的人物形象。

传统文化向现代文化过度型体现出在韩子奇人格形象上。韩子奇作为玉器梁的传人，则更多地经受着感情与理智、亲情与爱情、信仰与生活交织在一起在其心理层面上所掀起的巨大风暴，是他在一生中大部分的时间里心理上都处于焦灼状态。

早期的韩子奇从朝圣老人和玉魔老人那里接受教育，吸纳伊斯兰文化和华夏文化，从梁亦清那里学艺习德，强化民族、宗教、道德意识。在残酷的现实面前，他积极寻找改变命运的机会，主动接受汉语文化和英语文化的教育，从亨特一家人那里接受西方文化，懂得“如果商品不能在你手里创造出更大的价值，那它就等于没有价值¹”，深深陶醉于中国传统文化，欣赏玉，终于成为名噪一时的“玉王”。面对战争，把他的玉护送到遥远的自以为安全的伦敦，并在异国他乡开办“玉展”，在战火的伦敦，面对冰玉的呼唤，他第一次懂得了爱情，他心理结构中的现代文化人格成分终于占了上风。回国后，虽然也有闪光的一面，但面对妻儿，他心理结构中的传统伦理道德观，使他没有勇气去了结与梁君璧无爱的婚姻。最终礼教与传统战胜了本能的人性，造成了他此后人生中更多的痛苦。他为了让女儿完成上大学的梦想，他忍痛卖掉了他看作性命一般珍贵的藏品；在女儿患病后，他倾其所有而无微不至地关心她。韩子奇一生中追求成功，却在成功后颠沛流离；追求爱，却在得到爱后失去爱；痴迷于玉，却在搜寻到玉物后被全部抢走。他的混血文化人格和心理结构体现出来在一生抗争的过程中。

韩天星自小目睹家庭的变故，作为家中长子，他具有传统穆斯林的优点，但他毕竟是生活在现代中国的工人，于是也有初恋。然而这一切在有了母亲的参与后便都改变了，在浑然不觉中失去了初恋，得知真相后，他虽然充满怨恨，但是顾虑到自己为人子、为丈夫、为父亲的责任而将痛苦隐藏在心里，也正是这责任促使他焚烧了父亲怀着最后的希望写给梁冰玉的信。父子两代人所处的时代不同，性格特征却有相似之处，有着共同的爱情悲剧。悲剧是不可避免的，但是悲剧的再次重复发生却是更深的悲剧。

梁家第二代人中的梁冰玉是现代文化人格形象。她与姐姐共同生长在传统的穆斯林家庭，所不同的，她从小接受良好教育，在华季年华考进燕京大学，还到英国留学，因而像当时许多新青年女性一样，有爱国心、正义感，因初恋情人出卖革命、进步的同学而心灵受创伤。她认为自己不应该当管家婆及做饭、生孩子的机器，而追求个性、婚姻自由。她所受的是伊斯兰文化与华夏文化、传统文化与现代文化相互融合的熏陶；相较而言，她身上的现代文化人格更多，也是小说中第一位开始觉醒、有了人、女人的生命意识的女性。

战争时陪姐夫去英国，面对与姐夫相爱她宣言：“爱情又不是买卖，没有讨价还价。如果世界还有真正的爱情，那应该是一尘不染的圣物，是人和人心灵的相互感应¹。”，她的婚恋不见容于真主和穆斯林，也不见容于华夏传统道德，但无论遭受什么样的冷眼和承担什么样的罪名，她死而无憾，永远不后悔，面对姐姐时说：“我爱他，他也爱我，我们就结合了，事情就是这么简单。至于你，我只知道你是我的姐姐，也曾经是韩子奇的妻子，但那已经是过去了！”¹，而面对姐夫兼爱人，也不仰之鼻息：“我是一个人，独立的人，既不是你的、更不是梁君璧的附属品，不是你们可以任意摆布的棋子！女人也有尊严，女人也有人格，女人不是男人钱袋里的钞票，可以随意取，随意花；女人不是男人身上的衣裳，想穿就穿，想脱就脱，不用了还可以存在箱子里！...我不能为了让你在这个家庭、在这个社会像‘人’而不把我自己当人！...我还以为我得到的是爱呢，还以为你这个男子汉的肩膀能担起爱的责任呢，原来你也和她一样，根本不懂得什么是爱情！”¹”。梁冰玉首先意识到自己是一个活着的人，然后有子女性意识的自觉，这是现代女性独立人格的体现。

在梁冰玉的文化心理结构中，人的意识、女性的独立意识终于觉醒并支配了她，超越了特定民族的心理意识，女性用自己的爱情悲剧换得了自身的觉醒。总的来看，梁冰玉是一个富裕反抗、注重追求自我的穆斯林，又似乎是永远唱不大的女人。

相较而言，韩新月更少传统的负累，更多的是现代文化人格。新月的爱情、学业和思想都是现代的，是比较典型的现代文化人格形象。她坚持自己的第一志愿，如愿以偿考上北京大学，满怀信心地要凭自己的真才实学与同学们争个高低。在爱情，她认同平等、真诚的爱情，得知自己的病情救治无望，强烈的自尊心和对楚老师的爱使她强忍痛苦写下了分手信，这是具有现代文化人格的女性对爱情的独立见解。

梁冰玉与韩新月母女二人生活在不同的时代，各自的经历也不相同，但有一点是相同的，那就是对人性、对爱的渴望，对爱的执著追求和强烈的现代女性意识。

人物是小说的重要组成部分，人物形象的内涵丰富与否，关系到作品的成败。人物的性格是人物形象的明显表现。作品审美地、理性地将不同性格类型的人，没有直观的评论，三种人的文化心理结构和行为模式清晰地跃然纸上，既塑造出他们作为这一类人的共性，有标示出他们为这一个的独特个性所在。

小说也存在着许多方面都不足与缺陷。虽然成功地塑造了人物形象，但是如果从较高的美学境界来要求，其人物形象的建构和描写不无瑕疵。例如梁君璧这一形象的描写不太符合穆斯林的生活现实，她是一个没有理想化的人物；梁冰玉追求个性、追求婚姻自由，选择跟姐夫相爱；郑晓京与楚老师之间的关于组织问题的讨论，以及郑晓京对楚韩爱情的质问指责，都让我们难以接受一个二十岁不到的学生如何说得那么教条化的话语；韩子奇的性格发展前后之间跨度太大，韩子奇在去英国之前有决心，而在从英国回来后，则唯唯诺诺、畏缩，可这种变化，小说没有充足、必要而有效的铺垫。

小说情节交错发展，这虽然增强了小说的张力和读者阅读时的期待心理，但也给读者尤其是阅读能力不够强的读者带来了困难。作品虽然充满“回味”和“京味”，但对穆斯林礼仪的有些描写点生硬。

客观地批评《穆葬》，对其优长和成就给予某种程度的肯定，同时也应该指出其不足与缺陷。这无论对于其修订时在艺术的逐步完善，还是对于当下长篇小说创作均有一定的现实价值与理论意义。

霍达说每个民族在由传统向现代转变过程中的撞击与交融都会产生痛苦。小说在回顾自己的历史时，给我们重点展示了回回民族在其转变过程中所体验的尴尬、矛盾与困惑。个体身份与社会现实的冲撞，宗教信仰与人性情感的相互搁浅，这些都给故事中人物产生了巨大的影响。文明还是愚昧让悲剧产生？所有的一切皆由自由而抽着的灵魂而起，而所有的一切也皆因执着而虔诚的心灵所灭。尽管真爱与自由领导一切，但最终不得不屈服于愚昧，在那无言可辩的愚昧氛围里，那根深蒂固、无以反抗的思想足以摧毁一切。

也许，霍达要我们以自审的眼光回顾自己民族走过的艰辛道路，回顾中华女性所走过的艰辛道路；这既是一种自审，也是一种提醒，提醒社会更加宽容地对待其他民族、其他宗教以及女性在面对传统向现代转变过程中的处境，这既是对作品的悲剧内涵的最好理解，也是作者的主旨所在。

从总体上看，《穆葬》充满着鲜明的悲剧色彩和强烈的悲剧意识，在我们细细地品读过程中、在我们经历着“甜蜜的痛苦”的同时，享受着精神上的审美愉悦。

2017年度韩国中语中文学秋季联合国际学术研讨会

11月 11日 (星期六)

10:00-11:30

语言学分科 1-3 (203號)

主持：金俊秀(韓國教員大學)

金赫(延世大學)

甲骨文“秋”字在甲骨類組與用法上的字形差異考察

鄭蓮實(尚志大學)

《新增類合》通用字初探

韋良玉(北京師範大學)

太平天國文獻用字特點探析

申祐先(漢陽大學)

從「罽」詞族論《詩·周南·葛草》「服之無斃」之義

楊錫彭(東國大學/南京大學)

漢字影響漢語說略

李周殷(淑明女大)

第四次革命時期“漢字教育”的方向和前景

- 通過激活腦科學領域的“前額葉” -

甲骨文“𦍋（秋）”字在甲骨類組與用法上的字形差異考察

金赫（延世大學）

{ 目次 }

- 一. 甲骨文“𦍋（秋）”字的字形分類
- 二. 甲骨文“𦍋（秋）”字在類組與用法上的字形差異
- 三. 結語

一 章 甲骨文“𦍋（秋）”字的字形分類

甲骨文“秋”字的各種異體寫作如下：

A型

A1



A2



B型

B1



B2



B3



B4



C型

C1



C2



D型



E型



F型



二 章 甲骨文“𧈧（秋）”字在類組與用法上的字形差異

甲骨文“𧈧”字，有“蝗蟲”、春秋之“秋”、“人名”、“地名”等四種用法。在此，我們主要討論“𧈧”字在“蝗蟲”和春秋之“秋”兩種用法上的問題，同時也討論不同類組上出現的“𧈧”字異體問題。

甲骨文“𧈧1”字，象蝗蟲之形，用來表示其本義“蝗蟲”，也用來表示春秋之“秋”。从“火”的“𧈧”字，沒有一個例外，都用來表示春秋之“秋”。王子楊先生認為，“𧈧”可能跟“𧈧1”開始分化了。下面我們仔細考察“𧈧”字在各類組上的字形差異。

A1型，寫作（《合》20476）形。師組小字類卜辭，用A1型來表示春秋之“秋”。其辭例如下：

癸亥卜，小方不正，今（秋）受…… 《合》20476

A2型，寫作（《合》11535）、（《合》11536）等形。師賓間類卜辭，用A2型來表示春秋之“秋”。其辭例如下：

……卜，今（秋）雨。 《合》11535

B1型，寫作（《合》9185）、（《合》32863）等形。賓組、歷組二類卜辭，用B1型

來表示春秋之“秋”。其辭例如下：

戊午卜，殷貞：祈祀今來（秋）多。 《合》9185

惠（秋）令畢。 《合》32863

B2型，寫作（《合》11538正）、（《合》13737）等形。賓組卜辭，用B2型來表示“蝗蟲”和春秋之“秋”。其辭例如下：

……今（秋）大…… 《合》11538正

今（龜）其有降𠂔。 《合》13737

B3型，寫作（《合》24225）、（《合》21586）等形。出組一類卜辭，用B3型來表示“蝗蟲”。子組卜辭，用B3型來表示春秋之“秋”。其辭例如下：

庚申卜，出貞：今歲（龜）不至茲商。 《合》24225

乙未，余卜，貞：今（秋）我入商。 《合》21586

B4型，寫作（《合》9628）形。賓組卜辭，用B4型來表示“蝗蟲”。其辭例如下：

丙辰卜，賓貞：其告（龜）于上甲，不唯…… 《合》9628

C1型，寫作（《合》28114）、（《合》36522）等形。何組二類卜辭，用C1型來表示“蝗蟲”。黃類卜辭，用C1型來表示春秋之“秋”。

其辭例如下：

……（龜）王其……唐……受…… 《合》28114

庚寅王卜，在義貞：余其次才茲上。今（秋）其敦，其乎示于商，正，余受有祐。
王占曰：吉。 《合》36522

C2型，寫作（《合》33233正）、（《合》28206）等形。歷組二類、無名類卜辭，用C2型來表示“蝗蟲”。其辭例如下：

……貞：其寧（龜），來辛卯酒。 《合》33233正

其告 (龜) 上甲二牛。 《合》28206

D類，蝗蟲的頭部作“目”形，寫作 (《屯》263)、 (《合》28207) 等形。歷組二類、無名類卜辭，用D類來表示“蝗蟲”。其辭例如下：

……告 (龜) 彝(再)。 《屯》263

其告 (龜) 上甲。 《合》28207

E類，寫作 (《合補》10936)、 (《合》33281) 等形。歷組二類卜辭，用E類來表示“蝗蟲”。其辭例如下：

癸酉貞： (龜) 不至。 《合補》10936

丁酉貞： (龜) 不彝(再)。 《合》33281

F類，省去蝗蟲的頭部，寫作 (《合補》10646) 形。歷組草體類卜辭，用F類來表示“蝗蟲”。其辭例如下：

癸酉…… (龜) …… 《合補》10646

除了在上面討論的形體之外，从“火”的“𤇓”字都用來表示春秋之“秋”。其辭例如下：

丁未卜，貞：危方冊翟新家，今 (秋) 王其比。《合》28001 (何組二類)

丁丑貞，今 (秋)，王其大史。 《合》32968 (歷組二類)

……貞：王令畢今 (秋) ……舟，壅乃奠。 《合》32854 (歷組二類)

丁亥貞：今 (秋) 王令眾𤇓作虞。 《屯》4330 (歷組二類)

惠今 (秋)。 《合》29715 (無名類)

三 章 結 語

通過以上的分析我們可以知道，不同類組卜辭確實存在不同的用字習慣。甲骨文中象蝗蟲之形的 (“”、“”、“”、“”)字，用來表示“蝗蟲”，也可以用來表示春秋之“秋”。但是，歷組卜辭用字上的區別很嚴格。歷組卜辭的刻手用加“火”旁的“𤇓”字來寫



春秋的“秋”，用“𦉳”字來寫“螽”。

在此需要指出的是，蝗蟲頭部作“目”形的字（、），都只在歷組和無名類卜辭裏出現。從這種現象我們可以看出，歷組卜辭和無名類卜辭刻手之間，可能有師生繼承的關係。

《新增類合》通用字初探

鄭蓮實（尚志大學校中國學系）

[目次]

-
- 一. 引言
 - 二. 《新增類合》通用字
 - 三. 《新增類合》通用字分類
 - 四. 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選字頭的標準
 - 五. 結語
-

一. 引言

《新增類合》是《類合》的修改本。《類合》是一本給兒童教文字的教材，在朝鮮時期跟《千字文》《訓蒙字會》一起被廣範使用的。《新增類合》是由朝鮮時期的學者劉希春編寫的，上下二卷，1576年完成的。《新增類合》把《類合》的1512字增補到3000字，繼承《類合》的27個分類。筆者在〈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選字頭的標準〉里探討過這些教材選字頭的標準。本文章主要包括兩個方面：第一，分析《新增類合》通用字的性格。第二，補充〈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選字頭的標準〉¹⁾。‘通用字’這個術語來自安秉禧寫的《新增類合》(解題)²⁾。

二. 《新增類合》通用字

《新增類合》收錄3000個字，每個字分成字頭和解說兩個部分。字頭用大字寫，解說用小字寫。解說的內容很簡單，就寫了‘訓和讀’，大部分寫一個訓讀，不過有些字寫兩個訓讀，還寫通用字。字頭左上端的圈點表示上聲，右上端的圈點表示去聲。

吏: 관원 니 셔리 니	思: 싱각 스 픈 스 去聲	
予: 줄 여 나 여 平聲	識: 알 식 싱각 지 去聲	
賈: 당스 고 一音 가	刺: 디를 즈 又音 척	
層: 층 층 一作 층	創: 冊 첫암 덩굴 창	
豫: 미리 예 猶豫 결 문호미라	謂 [○] : 니를 위	果 [○] : 여름 과

《新增類合》收錄109個通用字。在下列表中前者是字頭，後者是通用字。

1) 鄭蓮實，〈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選字頭的標準〉，《中國研究》（第71卷），2017年6月。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是《類合》《訓蒙字會》《新增類合》《兒學編》。

2) 東陽學研究所，《東陽學叢書》第二集，首爾：檀國大學校出版部，1972年，223頁。

煙-烟, 楠-柟, 笋-筍, 鷲-鷩, 栖-棲, 猿-猿, 駝-駝, 蟻-蟻, 蛇-蛇, 窓-窓, 麪-麵, 糧-糧, 筓-筓, 筵-筵, 鍼-針, 鋤-鋤, 棹-櫂, 棍-棍, 鞣-鞣, 鞣-鞣, 他-佗, 澣-浣, 恍-恍, 憐-憐, 填-填, 壩-壩, 勳-勳, 仙-僊, 慷-忼, 遯-遁, 掛-挂, 泛-汎, 礙-碍

換聲旁的原因主要是提高表音功能或者書寫簡便。

(5) 換造字方法(3個)

企-跂, 豔-艷, 豎-豎

這些字或者把形旁換成聲旁, 或者把聲旁換成形旁, 結果造字方法跟著發生變化。

(6) 換結構或位置(4個)

峯-峰, 蟹-蟹, 隣-鄰, 氈-氈

(7) 變形(14個)

怪-怪, 床-牀, 珍-玕, 匹-疋, 蜜-蜜, 鹽-塩, 銜-銜, 齎-賫, 劫-劫, 參-叅, 繭-茶, 煮-煮, 畫-畫, 携-攜

2) 假借關係

裘錫圭說過“假借就是借用同音或音近的字來表示一個詞”³⁾。他按照所表示的詞是否有本字把假借分成三類：無本字的假借，本字后造的假借，本有本字的假借⁴⁾。大部分虛詞或音譯外來詞用假借字記錄的，一直沒有本字，這屬於第一類。有的詞本來用假借字來表示，後來給它造了本字，這屬於第二類，這就是後起本字。本有本字的詞也使用假借字，有的假借字到後來取代了本字，有的假借字後來不再使用，這屬於第三類。第三類就是所謂的通假。通假指的是“假借一個同音或音近的字來表示一個本有其字的詞”⁵⁾。109個通用字中21個屬於這一類，占19%。

(1) 無本字的假借

沒有

(2) 本字后造的假借 (7個)

翦-剪, 默-嚙, 賸-剩, 塗-途, 蘇-甦, 然-燃, 欲-慾,

(3) 本有本字的假借 (14個)

歷-曆, 檢-檢, 巨-鉅, 臯-罪, 埃-俟, 霓-蜺, 扞-創, 輩-背, 灑-洒, 濬-浚, 凭-憑, 粗-麤, 嗜-者, 層-曾

3)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90年, 179頁。

4)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90年, 181頁。

5)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90年, 187頁。

通過以上的內容可以知道《新增類合》的通用字實際上包括異體和假借，大部分的通用字屬於異體關係。

四．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選字頭的標準

筆者在〈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選字頭的標準〉一文中說過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選字頭的標準主要是表音或表意的明確性和書寫的簡便。在這裏以109個通用字為對象分析過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選字頭的標準。一般認為，字頭是正字。不過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有些字頭正好相反，它屬於俗字。在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的字頭當中出現頻率3以上的屬於俗字的一共有18個，具體的例子如下。括號裏的數字是該字頭在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的出現頻率，比如說4意味著該字頭在四種教材當中都出現。

烟(3)-煙(1), 溪(4)-谿(0), 笋(3)-筍(0), 猿(4)-猿(0), 猪(3)-豬(0), 蟹(4)-蟹(0), 蟻(4)-蟻(0), 蛙(3)-蛙(0), 隣(3)-鄰(1), 碁(3)-碁(1), 麵(3)-麩(1), 椀(3)-盃(1), 筴(4)-筴(0), 鋤(3)-鋤(1), 鞞(3)-鞞(1), 靴(3)-鞞(1), 跡(4)-迹(0), 掛(3)-挂(0)

第一，提高表音或表意功能(6個)

笋(3)-筍(0), 蟻(4)-蟻(0), 筴(4)-筴(0), 鋤(3)-鋤(1), 跡(4)-迹(0), 掛(3)-挂(0),

第二，書寫的簡便(5個)

烟(3)-煙(1), 溪(4)-谿(0), 猪(3)-豬(0), 蛙(3)-蛙(0), 靴(3)-鞞(1)

第三，不屬於上述兩類的(7個)

猿(4)-猿(0), 蟹(4)-蟹(0), 隣(3)-鄰(1), 碁(3)-碁(1), 麵(3)-麩(1), 椀(3)-盃(1), 鞞(3)-鞞(1)

五．結語

《新增類合》通用字實際上包括異體和假借，其中異體關係占優勢。朝鮮時期四種文字教材中選字頭的標準主要有表音或表意的明確性和書寫的簡便。

太平天国文献用字特点探析

韦良玉（北京师范大学文学院）

〔 目次 〕

- 一. 大量使用新造字形
- 二. 大量使用特殊借字
- 三. 存在特殊异形同用现象
- 四. 方言地域特点突出
- 五. 用字具有简俗倾向

<参考文献>

- [1]李运富.“汉字学三平面理论”申论[J].北京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6, (3).
- [2]张涌泉.汉语俗字研究[M].北京:商务印书馆, 2010.
- [3]王建军, 杨奔.太平天国文献俗字研究述评[J].广西社会科学, 2013, (2).
- [4]李运富.汉字学新论[M].北京:北京师范大学出版社, 2012: 201.
- [5]许长安.太平天国的俗体字和避讳字[A].马庆株.语文现代化论丛(第2辑)[C], 北京:语文出版社, 1996.

太平天国运动是清朝咸丰元年(1851)到同治三年(1864)间,由洪秀全等人领导的反对清朝封建统治和外国资本主义侵略的农民起义运动。太平天国属于历史上独特的政治集团,在思想方面具有独特的政治和宗教主张;在人员构成方面,由于起义从广西兴起,大多数领导人和起义成员为客家或两粤人。太平天国为宣传自身的政治宗教思想,教育民众,在立国十余年内,发行了大量公私文书和书籍。他们有意地将一些思想主张通过特殊的用字方法传递出来。同时由于集团组成人员的文化水平和方言背景,文献用字面貌更加复杂独特。

太平天国文献性质与一般古代民间文献有所不同,它主要由宣传政治宗教思想的专著和下发的各种公文诏书组成。对于否定传统经典的太平天国政权来说,这些文献不仅具有官方文献性质,还相当于他们的经典文献,甚至被当作科举考试的内容。但无论是内容还是语言文字方面,太平天国文献与一般的官方文献以及传统经典文献相比均有很强的特异性。我们从字用学角度入手梳理这批特殊材料,能更好地把握其文字方面的特点,发现汉字使用中的一些特殊现象,从而丰富我们对汉字职用问题的认识,同时为解读文献提供帮助。

一 大量使用新造字形

太平天国文献中经常使用新造字形,即为太平天国独创,前代和同时其他文献中没有的特殊字形。这些新造字形所记录的词语在其他文献中均有常用字形记录,我们称为一般字形。通过文献测查,将太平天国新造字形统计列表如下¹⁾。

¹⁾ 有的新造字形恰与某个前代已有的形体同形,似乎也可视为借用已有字形记录语词的现象。我们认为,如